
인천5.3민주항쟁 기초 조사 보고서
결과보고서

제출일 : 2021년 12월 30일

제출자: 인천5.3민주항쟁 기초조사팀

결과보고서

사업명	인천5.3민주항쟁 기초 조사 보고서 제작			
총괄 책임자	소속	인하대학교	직위/전공	초빙교수
	주소		전화/FAX	
	성명	김창수	주민등록번호	
사업기간	2021.11.1. ~ 2021. 12. 30.		참여인력	5명

「인천5.3민주항쟁 기초 조사 보고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총괄책임자 : 김창수 (인)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귀하

목차

1부. 개관	1
1. 조사 배경	1
2. 연구진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조직 및 인원	2
3. 사업 계획	3
1) 연구현황 및 기초 자료 조사	3
2) 자문위원 구성	3
3) 결과보고서 작성	3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1) 추진 전략	4
2) 추진체계	5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2부.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9
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	9
2. 대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	81
3.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 노승환, 「인천사태의 진상」 (5월 15일)	0... 2
4. 5.3항쟁 당일 시위 전개 양상 개관	1 2
5. 인천5.3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 재구성	3 2
6. 시위 상황과 경찰의 진압 상황	62

3부.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53

1. 연구현황 3

2. 명칭(잠정적인 결론)73

3. 5.3항쟁 이전까지의 개헌운동 전개83

(1) 1985년 2.12총선 승리와 제2차 개헌운동8... 3

(2) 1986년 신민당의 개헌 서명운동 민중운동권의 입장0... 4

(3) 신민당의 개헌운동과 민중운동의 개입3... 4

4. 인천5.3민주항쟁 이후의 상황94

1) 경찰 수사 내용94

4부. 구술자료 분석 5

1. 조사 목적 5

2. 조사 개요 5

3. 조사 내용 5

4. 조사 결과 (SWOT분석)95

5. 향후 과제 6

6. 자료 아카이빙 관련 양식 체계화 방안1... 6

■ 부록 1: 5.3 참가자 증언 분석37

■ 부록 2: 「문익환 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 1986.6.19.) 분석0... 8

■ 부록 3: 5.3행사사건 상황도18

■ 부록 4: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2... 8

■ 부록 5: 자료종합(인천5.3기초조사자료생산주체별 시간대별 사건구성) 1... 9

■ 부록 6: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경찰측 자료91

■ 부록 7: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신문 자료 91

1부 개관

1부. 개관

1. 조사 배경

- 인천시에서는 2018년 8월에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음. 최근에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 사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성과물이 10여 편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는 인천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으며, 영상이나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화’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 있음.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 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자, 향후 건립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전시 및 교육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이러한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은 바로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초 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역사기념 사업들은 모두 <기초 조사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 왔음. 2020년 출간된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 작업도 2005년에 수행된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인천지역>(책임연구원: 이우재, 공동연구원: 나준식, 노현기)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음.
-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논문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탐구에 한계가 있음. 인천에서 발생했지만 전국적인 의미가 있는 인천5.3민주항쟁이 여전히 ‘사태’로 불리고 있음. 또한 ‘실패한 투쟁’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인천5.3민주항쟁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 조사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진 현황

1) 일반현황

- 2021년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천5.3민주항쟁 기초 연구 및 시민교육 교재개발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꾸려졌음.
- 기획단은 이번 기초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천지역 사회운동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조직했음.

2) 조직 및 인원

- 연구책임자: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 연구원: 이재성(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안정운(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연구보조원: 김혜영(인천연구원 행정원)
※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추가될 수 있음.
- 자문: 김현석(인천민속학회 이사)
송용한(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실장)

3. 사업 계획

1) 연구현황 및 기초 자료 조사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연구현황 조사 및 자문
 - 연구 관련 단행본, 논문 등 리스트 정리
 - 주요 연구 논점 정리 및 해제
 - 필요시, 인천 5.3민주항쟁 주요 관련자 조사 또는 자문
- 인천 5.3민주항쟁 사건 일지 구축
 - 시간별, 장소별, 사건 주요 내용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단체 조사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단체 현황 파악
- 인천 5.3민주항쟁 관련 사건 조사
 - 인천5.3민주항쟁 당일에 벌어진 사건들

2) 자문위원 구성

- 인천 5.3민주항쟁 현장 상황 증언이 가능한 참가자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줄 연구자

3) 결과보고서 작성

- 앞의 가, 나의 과업 내용이 반영된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사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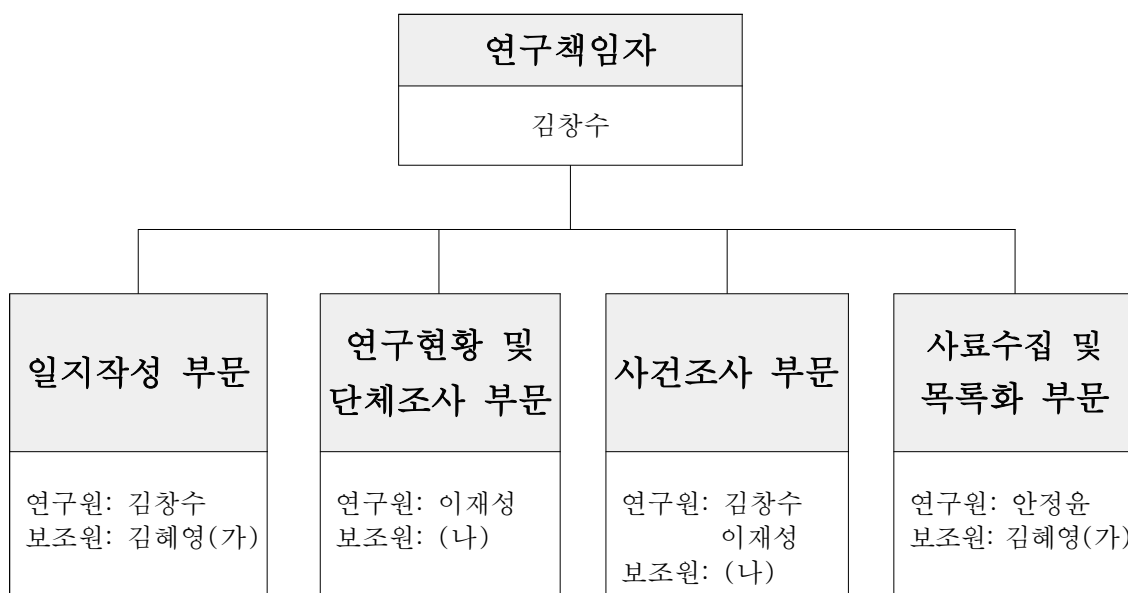
- 인천5.3민주항쟁을 제대로 알고, 기념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 1986년 5월 3일에 전개된 인천5.3민주항쟁은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건이다. 35주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인천5.3민주항쟁은 주로 ‘사태’로 표현되고, 대체로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천5.3민주항쟁을 5월 3일 하루의 사건으로만 축소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6.10항쟁이 ‘6월 항쟁’이듯이 인천5.3민주항쟁도 1986년 개헌운동의 전체 맥락 아래에서 보아야 한다.
 - 역사적 사건을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1987년 6.10항쟁도 단기적으로는 성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987년 12월 대선에서 독재정권이 연장되는 결과가 되었다. 6.10항쟁의 주체들이 전두환 정권의 6.29선언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쟁취가 곧 민주화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첫째로, 인천5.3민주항쟁은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이었다. 즉 인천5.3민주항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신민당의 개헌운동의 전개이다.
- 둘째로, 부산, 광주, 대구 등지를 거치면서 진행된 전국적인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이 유사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폭력 시위의 양상이 보였으며, 4월 5일의 대구대회에서부터는 신민당이 아닌 민통련과 학생운동 등 재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이 별도의 대회를 여는 투쟁 형식이 만들어졌다. 인천5.3민주항쟁의 양상은 그 형식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 셋째로, 신민당과 함께 그러나 따로 대회를 열었던 재야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민통련과 인사련, 서노련과 인노련, 학생운동 조직

등의 성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조직의 구성원, 이념, 실천과 더불어 인천5.3민주항쟁 이후의 전개과정이 포함된다.

- 넷째로, 미시적으로는 5월 3일 당일 인천 곳곳에서 어떤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문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포함된다.
- 다섯째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 양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에서는 10시간에 걸친 치열한 투석전이 벌어졌다. 화염병도 등장했다. 이는 ‘폭력시위’, ‘위법행위’로 매도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서의 다양한 시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여섯째로, 인천5.3민주항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공안정국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배, 고문, 구속, 수감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어느 시점, 어느 범위까지가 기초 조사 연구의 범위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2) 추진체계

- 참여 인력 편성표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 수집, 정리될 것이다.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심층 연구 사업에 기초가 될 것이다.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교육 자료 제작 사업에 기초가 될 것이다.

2부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2부. 5.3항쟁 상황 비교 분석

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08:00-09:1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30여명 [상황] - 옥외 확성기 8개 설치 - (시민회관 2층, 참가전면 4개, 동쪽방향으로 4개) - 플래카드 게시 14매 게시 - (장내6, 장외 8)
9:10-09:2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50여명, 구경꾼 30여명, 도합 130여명 [상황] ○ 대회장 상황 - “민주천하지대본” 등 내용의 만장 30개 - (대형5개, 소형25개) - 피켓100여개(개헌구호 등) - (시민회관 앞 계단 및 광장에 놓아둠) ○ 안내방송 실시 - (내용) - 여기는 신민당 개헌추진 지부 결성대회장입니다. - 개헌구호 방송 ○ 서명대 설치 3개 - (시민회관 계단 및 광장) ○ 국회의원도착 - 명화섭 의원 등 당직자 20여명
9:2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당원 60여명, 구경꾼 40여명, 도합 150여명 [상황] ○ 09:20경 명화섭 의원 등 당직자 20여명(청년당원)이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모범운전자 노열부 등 30여명에게 옥설을 하며 시민회관 광장밖으로 몰아냄. ○ 09:30경 시민회관 앞 횡단보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정복경

시간구분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
	<p>찰관에게 당원 60여명이 몰려와 “개새끼들 몰러가라”며 밀어 부쳐 시민회관 동쪽 건너편 교보빌딩 앞으로 이동함.</p>
09:30-10:00	<p>[인원] 장내 60여명, 장외당원 100여명, 구경꾼 100여명, 도합 260여명 [상황]</p> <p>○ 09:37경 시민회관 앞으로 밀려난 모범운전자들이 다시 시민회관앞 도로 중앙선상에 일렬로 도열 배치 근무에 당하자 청년당원 20여명과 명화섭 의원이 재차 “행사장으로부터 2키로미터 밖으로 물러나라. 너희는 정보요원이 위장한 것이다”라며 청년당원들이 노열부 외 2명에게 “야 쌍놈의 새끼야 왜 여기는 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먹살을 잡고 구두발로 정강이, 엉덩이 등을 차면서 밀어부쳐 몰아냄.</p> <p>○ 10:00경 옥외방송을 통해 “행사장 주변에 있는 정, 사복 경찰과 정보형사는 현재시간으로 현위치에서 2키로미터 밖으로 물러가라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기는 불상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언동</p> <p>○ 10:00 플래카드 게시 7개 (시민회관 앞 차도변)</p>
10:00-10:30	<p>[인원] 장내70여명, 장외당원 60여명, 구경꾼 150여명, 도합 280여명 [상황]</p> <p>○ 10:30경 주취측에서 옥외방송을 통해 “제물포역, 주안역에서 전투경찰이 본 행사에 참여중인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으니 주변에 계신분들은 시민회관 광장으로 모여 대처하자”고 하여</p>
10:30-11:00	<p>○ 10:40경 당원 100여명이 도보로는 주안역, 봉고차 편으로는 제물포역 지원차 분산 출발</p> <p>○ 10:45경 독재타도 개헌서명 이란 스티카와 당기를 부착한 승용차 20여대가 시민회관을 출발 주안 4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행사안내 가두 방송하면서 김영삼, 이민우 등 영접차 출발</p>
11:00-11:30	<p>[인원] 장내 70여명, 장외 당원 50여명, 구경꾼 200여명, 도합 770여명 [상황]</p> <p>○ 11:17 김영삼. 이민우 등 일행 차량 3대, 시외버스 터미널 도착, 명화섭 의원 등 당원 100여명의 환영을 받은 후</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 11:25 차량 47대로 명화섭의원을 선두로 송의로타리-신흥로타리-동인천역-송림동-백마장-부평역-백운역-간석5거리-1지구당사-시민회관-주안역 경유 12:30 주안가든 도착 중식.</p>
11:30-12:00	<p>[인원] 장내 700여명, 장외 당원300 학생 등 기타 600여명, 도합 600여명 [상황]</p> <p>○ 11:30경 행사장 광장에 400여명이 집결 입장코저 하였으나 주최측에서 12:00부터 입장시키겠다고 제지. ○ 11:45 옥외마이크를 통해 - 식당 안과 밖에 사복경찰관이 배치되어 음과 양으로 방해공작을 펴고 있으니 철저히 감시 바란다. - 시민회관 앞 상가를 시청에서 모두 철거를 요구하여 상인들의 상업행위마저 규제받고 있다. ○ 11:40부터 당원 입장 시작, 12:00 현재 당원 500여명 입장함. ○ 11:54경 행사장 부근(100미터 상가) 천주교 주안1동 성당 담장 뒤에 화염병 14개, 유인물 600매, 교련복 1개, 개헌서명 원부 1권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 동부서 일반중대 2소대 검문조에서 회수(의경 권오성) ○ 11:55 주최측에서 옥내외 방송으로 “광주학살 자행한 000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 7건 구호방송. (남녀교대혼성방송) ○ 11:55경부터 시민회관 광장에 대기중이던 근로자풍 6명이(여자2, 남자4) 인천지역 구속자 가족협의회 명의로 된 “구속자 석방 쟁취”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준비 - 노동자 사회복지 연합회 명의로 된 “구속자 석방을 쟁취하자”라는 플래카드를 근로자풍 10여명이 들고 시민회관 광장에 모여 연좌 - 민헌연 200여명이 “김대중선생 등 민주인사 사면복권하라”는 등 플래카드 7개를 들고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안역 방향에서 차도로 시민회관 광장에 도착.</p>
12:00-12:30	<p>[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4,000여명, 구경꾼 2,000여명, 도합 8,000여명 [상황]</p> <p>○ 12:00경 학생풍 300여명이 주안1동 성당 옆 골목에서, 다른 학생풍 200여명은 시민회관 건너편 골목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대형을 형성하고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구호를 외치면서 갑자기 출현하자 행사장 부근에 모여있던 학생풍 2,000여명이 일시에 가세 스크램을 짜고 “미제축출, 파쇼타도, 민주헌법 쟁취, 독재정권 타도,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량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주안역 쪽으로 진출 타가 되돌아 시민회관 앞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위군중이 4,000여명으로 증가</p>
13:00-13:30	<p>[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일반 4,000, 도합 12,000여명</p> <p>[상황]</p> <p>○ 13:05경 민통련 재야단체 200여명이 시민회관 동쪽 차도에서 집결 연좌시위하면서 “독재타도” 등 구호 제창하고 리어카에 스피카 4대 장착, 시위선동하여 시위꾼 3,000여명이 가세 연좌 시위.</p> <p>○ 13:15 시위군중 2,000여명이 스크램을 짜고 민정당사(시민회관과 200미터)로 뛰어 가면서 갑자기 당사에 투석, 동건물 전면2, 3층 유리창을 완전 파손(20매) 시킨후 계속 셔터문을 부수고 당사내 진입을 시도하므로 당사내에 들어간 경비경찰관이 당사 옥상에 올라가 휴대용 사과탄을 투척하자 시위군중이 다시 시민회관 앞으로 돌아와 시위를 계속</p> <p>- 민정당사 경비인력: 이주 1개소대 내부: 3개 분대 차량: 1개 분대 정문: 3명, 첩문샷다 내리고 안으로 피신</p> <p>- 교통전면차단</p> <p>- 여주소대 사과탄 5발 발사</p> <p>○ 13:20 여주경비과장 지원요청</p> <p>- 수도사업소에 상황대기중이던 수원시장부대 민정당사 상황 진압을 위해 기동 1, 5, 8 서울 13동 4개중대 출동(기동 5중대 선발)</p>
13:30-14:00	<p>○ 13:35경 이들 시위군중 2,000여명이 다시 민정당사 쪽으로 몰려가서 당사를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져 집기류가 나면서 잠시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시위군중은 다시 진압경찰을 향하여 돌과 화염병을 던져 순경 최동현 등 6명이 돌과 화염병에 맞아 부상과 화상을 입음.</p> <p>- 기동 5중대 신축 공사장 옆 골목 도착 시위군중과 대치</p> <p>○ 13:35경 주최측에서 방송을 통해 김대중 선생이 X인고져 10:00경 자택을 출발하여 하였으나 500여 경찰이 저지하였다고 방송.</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 성명불상자가 장내에서 전화로 김대중에게 “현재 인파는 10만정도이고 시민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 학생 20,000여명이 참여중인바 경찰이 가스탄으로 시위를 진압코져 한다. 학생중 시위주도하는 자는 이우재와 홍석복이다”라고 상황보고.</p> <p>○ 13:40경 과격 일부학생중 시위군중 일부가 취재기자 연합 이00 서울왕00를 폭행하고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주차한 신민당 깃발을 단 레코드 승용차 1대를 밀어다 민정당사 방향으로 세워놓고 방화 000 소유자 (김노진, 당원) 불이 붙자 경찰을 향하여 밀었음.(소방차 2대가 출동 진화하여 하였으나 시위대가 소방차를 탈취하려고 하여 접근치 못하고 돌아감)</p> <p>○ 13:45 과격한 상태가 계속되어 최루탄을 발사 일단 저지 - 수원서장 지휘 기동 5중대 발사</p> <p>○ 13:45경 주안역 방면으로 행사장 쪽으로 이민우 총재, 김영삼, 당지도부 등 300여명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행사장에 입장코져 진행.</p> <p>○ 13:50 후속 3개중대가 도착(기동 1, 8, 서울13) - 기동 5중대와 합동 작전 전개와 동시 최루탄 발사 시민회관 방향으로 100미터 가량 밀어붙임</p>
<p>14:00-14:30</p>	<p>[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구경꾼 4,000, 도합 12,000여명</p> <p>[상황]</p> <p>○ 14:00 시위군중 세력 와해후 부대 100미터 가량 후퇴(민정당사로부터 신기4거리 방면 50미터 지점) 부대정비, 상황대비</p> <p>○ 14:05 시위군중 일부가 시민회관에서 자체소방 호수를 끌어내어 물을 뿌리는 한편 주안역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뽑아 쓰러트려 민정당사 방향에 있는 진압부대 쪽으로 밀고감.</p> <p>○ 14:10경 민통련등 시위군중 1,500여명이 시민회관 앞 차도에서 연좌한 가운데 민통련 사회국장 조준구가 선동 “000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 제창후 민정당사 방면으로 투석 시위와 동시 민정당사에 돌 500여개, 화염병 80여개 투척 화재 발생</p> <p>- 여주소대 사과탄 15발 발사(민정당 옥상) - 수원서장 부대 대치</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 14:15경 이민우 총재 등 당지도부 30여명이 도보행진으로 시민회관 부근 성심의원 앞 노상(행사장과 약150미터 상거)에 이르렀으나 시위 군중들이 “신민당은 각성하라”면서 시민회관 입구에서 입장을 저지 일시 주안가든 쪽으로 되돌아왔다가 잠시후 재입장을 시도 하였으나 역시 저지 당하여 입장치 못함.</p> <p>○ 14:20경 주최측에서는 방송으로“근로자 학생 여러분 금일행사는 꼭 치우려져야합니다. 이총재 등 당직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방송을 함.</p> <p>○ 14:20경 시민회관 앞 차도에서는 학생등(민통련) 1,500여명이 팽가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연좌 시위, 분위기 고조</p>
<p>14:30-15:00</p>	<p>○ 14:30 민정당 방향 수원서장 부대 시위군중 1500여명 시민회관 방향 150미터가량 밀어붙임 - 소방차 5대 민정당사 화재 진화</p> <p>○ 14:30 시위군중 일부 극렬학생 등 200여명이 행사장 부근 주안1동 성당(130미터)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1개. 이정표 2개를 쓰러뜨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p> <p>○ 14:30 이민우, 김영삼, 당지도부,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도보로 신민당사 앞에 도착</p> <p>○ 14:30 시민회관 동쪽 차도상 교보빌딩 앞에서 허수아비와 성조기를 붙태우며 -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 미일외세 물러가라 - 생활임금 인상하라 - 군부독재 파쇼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침.</p> <p>○ 14:35경 시위군중 200여명이 시민회관 건너편 인도의 보도블럭을 깨어 진압부대에 투석 - 안양서장 부대 배치(석암4거리 방향)</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 수원서장 부대 배치(민정당사 방향)</p> <p>○ 14:50 신민당사에서 이민우 총재 등 당지도부와 주최측의 명화섭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대책회의 실시</p>
15:00-15:30	<p>[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5,000, 구경꾼 2,000, 도합 9,000여명 [상황]</p> <p>○ 15:00경 학생풍 시위군중 1,000여명이 민정당사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것을화학탄을 발사 저지</p> <p>- 수원서장 부대 와해 분산 작전 전개</p> <p>○ 15:10 노승환, 이택돈, 박왕식, 명화섭, 유제언 의원 등이 시민회관에 입장키 위해 도착하였으나 시위군중에 의해 저지당하고 다시 당사로 되돌아와 “경찰의 악랄한 방해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적 망동으로 신민당 행사는 무산되었다. 잠시후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방송 한편 행사장에서는 노승환 지부장이 “경찰 책임자를 만나서 경찰의 최루탄 발사 등 방해공작으로 행사가 중단된 것을 규탄하고 예정대로 행사를 속개토록 하겠다”고 방송.</p> <p>○ 15:20경 당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민회관에서 대회를 금일중 개최하기로 결정하겠다” 고 방송당시 지구당사 앞 도로에서는 당원 300여명이 연좌</p>
15:30-16:00	<p>○ 15:30경 시위군중 1,000여명이 시민회관 광장에서 북과 팽가리를 치며 “김영삼, 김대중에 의한 개헌운동 중지하라”고 구호제창하고 진압부대에 투석하면서 스크램을 짜고 민정당사 방면으로 진행.</p> <p>○ 15:35 관할 인천동부서장이 경찰국장과 함께 신민당사를 찾아가 동부서장이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p> <p>○ 15:40경 안기부 분실장이 석암파출소 직원을 통하여 10분후에 인근 석암파출소(당사와 400미터 상거)에서 만나자고 요청(메모지) 하였으나 만날 필요 없다고 거절당함.</p> <p>○ 15:45경 시위군중이 계속하여 진압부대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 등 시위가 점차 극렬화 되는 등 시위가 더욱 악화되므로 이를 진압고져 진압차량</p>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을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에 전진하였을 때 군중이 진압차량을 포위 등 차량에 탑승한 전경들을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 전경 1명이 가스차에서 추락되는 등 당시 현장에서 전경 사복1명, 진압복장 전경 2명이 납치되어 무차별 집단 폭행함으로 수원서장 부대 즉각 반경 SY 44탄 발사와 동시 사복부대(8중대) 투입 시위 폭행자 검거에 당함.이때 구출작전으로 진압부대 및 8중대 사복의 부상자 많이 발생</p> <p>○ 15:50경 대한생명 빌딩 앞에서 민통련이 주도하던 시위대는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졌음.</p> <p>○ 15:55경 주최측에서 방송을 통하여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이총재와 길고문의 참석 없이도 행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다”라고 방송한후 안동선, 장기욱 의원 등이 교대로 개헌구호를 선창하면서 분위기 조성.</p>
16:00-16:30	<p>[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4,000, 구경꾼 2,000, 도합 8,000여명 [상황]</p> <p>○ 16:00경 교보빌딩 앞 시위대 일부가 주안1동 성당 부근에서 화염병으로 보이는 라면박스 5개 분량의 물건을 손수레로 시민회관 앞 4거리까지 운반하여 시위군중과 합세극열 시위</p>
16:30-17:00	<p>○ 16:30경 주안가든 앞에서 시위군중 100여명이 안양서장 부대에 최류탄 지원 가던 경찰 타이탄 트럭 (1045번 가스탄 476발 적재) 1대를 탈취 행사장 앞 4거리로 밀고 가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민당은 각성하라 - 신민당은 자폭하라 - 이원집정제 반대 - 미제국주의 철수 등 구호 제창 <p>○ 16:45 탈취한 타이탄 트럭을 시민회관4거리에서 적재함 덮개를 벗겨서 적재함위에 놓고 불을 부쳐 석암4거리 쪽 진압부대를 향하여 밀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서장 부대가 차량 회수와 동시 진화 - 이때 장내에서 방송으로 “2차에 걸쳐 김영삼고문 등 당지도부가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학생들 자극으로 입장치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시간구분	<p style="text-align: center;">「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 pp.140-150</p>
	<p>늦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대로로 행사장에 들어 올 것이다"라고 방송</p> <p>○ 16:50 시민회관 앞 시위대는 탈취차량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탄용산자 확보</p> <p>○ 16:55 동시위대 성명불상자가 “금일 하루를 시위와 농성으로 완전히 장악하자”라고 선동.</p>
17:00-17:30	<p>[인원] [상황]</p> <p>○ 17:00경 주안1동 성당 부근 500여명과 행사장 앞4거리 500여명 등 1,000여명의 시위군중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독재 정권을 이민우가 물리쳐주겠는가 - 김대중, 김영삼은 안된다 - 우리 스스로가 해야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석을 하여 극렬시위 계속 - 안양서장 부대 대치 <p>○ 17:20 홍사덕 대변인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악랄한 방해에 의해 신민당 결성대회가 좌절되었다. - 당지도부가 대회장에 입장하는 시간에 맞추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여 그들의 출입을 봉쇄한 것이다. - 이후 견잡을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정부에 있으며 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p>○ 17:29경 이민우 총재, 김영삼고문과 당소속 의원 30여명은 승용차 편으로 상경</p>
17:30-18:00	<p>○ 17:40 진압작전 전개최루탄 발사로 행사장 주변의 시위군중이 주안역 등지로 분산</p> <p>○ 18:10 시민회관의 당원들은 만세삼창을 한후 자진 해산 귀가</p>

2. 대검찰청 중간수사결과발표

시간구분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 (1986.5.19.) "나. 시간별 소요 진행상황" pp.79-
12:00-12:30	○ 12:00경부터 학생등 2,000여명이 인천 시민회관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개시한 후 시간이 흐르자 4,000여명으로 증가하고 교통마비
13:00-13:30	<p>○ 13:15경 학생등 2,000여명이 민정당 인천 제1지구 당사등에 투석, 2·3층 유리창 20여매를 파손한 후 당사내 진입 시도</p> <p>○ 13:26경 경찰이 최루탄(사과탄) 5발 투척</p> <p>○ 13:35경 학생등 2,000여명이 화염병 10여개를 위 민정당사에 투척하여 건물일부를 소실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무차별 투척하여 경찰관 6명 부상</p> <p>○ 13:40경 학생등 일부가 취재기자등을 폭행하고, 시민회관 앞 노상에 주차한 신민당 깃발을 단 레코드 승용차 1대(신민당원 김노진 소유)를 밀어다 민정당사 방향으로 세워놓고 방화</p> <p>○ 13:50경 시위가 과격해지자 경찰이 최루탄 발사</p>
14:00-14:30	<p>○ 14:00경 신민당 이민우총재, 김영삼 고문 등이 대회장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숙지말자 신민당 이란 플래카드를 든 일부 시위군중의 저지로 입장치 못하고 14:17경 현판식장으로 퇴거</p> <p>○ 14:30경 학생등 200여명이 행사장 부근 공중전화박스 1개, 이정표 2개를 쓰러뜨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경찰에 투석 및 화염병 투척</p> <p>○ 14:30경 시민회관 앞 동쪽 차도에서 학생등 1,000여명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구호 등을 외치며 경찰에 투석시위</p>
15:00-15:30	<p>○ 15:20경 신민당 주최측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회를 강행하기로 한다"고 방송하였으나, 시위군중 계속 투석</p> <p>○ 15:45경 학생등 일부가 경찰차량을 포위하고 경찰관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 3명이 부상</p>

16:00-16:30	○ 16:30경 학생등 100여명이 경찰타이탄트럭 1대를 탈취 적재함에 불을 붙여 경찰을 향해 밀어부침
17:00-17:30	○ 17:20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은 대회를 무기연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 ○ 17:40경 학생등 1,000여명이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버스 안내판 2개를 뽑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극렬투석
19:00-19:30	○ 19:00경 학생등 300여명이 제물포역 앞으로 이동
20:00-20:30	○ 20:20경 학생등 300여명이 도화국민학교 앞에서 시위 하면서 형사기동대 봉고차량 1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소실
20:30-21:00	
21:30-22:00	○ 21:40경 소요종료

3. 신민당 진상조사보고서 노승환, 「인천사태의 진상」 (5월 15일)

시간	내용	비고
12:40	인천시청 쪽으로부터 학생 근로자들이 스크럼을 자고 대회장 쪽으로 대거 행진하자 길가에 줄지어 앉아 있던 학생과 근로자를 가장한 2,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에 가세 “미제 축출” “파쇼타도” “인천해방구”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등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각종의 유인물을 뿌리기 시작함	
13:40	당지도부가 대회장에 입장할 즈음 민정당사와 승용차에 불이 질러지고 거의 동시에 대량의 최루탄이 발사 되었다는 점은 시차의 계획성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것이었던바, 이는 대회 방해를 위한 공작성의 증거라 하니할 수 없다.	
3:40	가스차 1대가 아무런 필요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쪽으로 돌진하다 급정거 했다.	

4. 5.3항쟁 당일 시위 전개 양상 개관

■ 5.3항쟁 당일 오전 상황

- 5.3항쟁 전날인 5.2일에는 민통련 관계자들은 인천으로 와서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민통련과 인사연 관계자들은 다음날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이나 플래카드와 준비물들을 시민회관 인근의 주안1동성당로 옮겨 보관해두었다.
- 경기도경찰국은 5월 2일 저녁 9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다.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검색하였고, 유인물, 화염병을 비롯한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하다.¹⁾ 또 경기도경은 자체병력 35개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계 80개중대 10,720명을 오전 9시에 배치하여 주요 지점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진압 작전을 준비하다.
-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통련과 재야단체가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5월 3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 현판식을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행사 직전에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를 검문실시, 주안역과 제물포역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시민회관 광장에 모범운전자와 정복경찰 배치 등으로 신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신민당은 방송을 통해 경찰이 대회장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경찰은 행사장 100~200m 내외까지 근접한 압박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²⁾
- 재야단체의 시위는 1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여명과 40여 명의 인노련 회원들은 각각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확성기를 설치한 리어카로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회관 네거리에서 시위가 시작되면서 주변에 운집해 있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대는 곧 2천여 명 규모로 불어 났으며, 민통련 주도의 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13시 경에는 4천여 명으로

1)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 p.41

2)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늘어났다.

- 오후 1시 20분경, 민정당사 앞 신기촌 방향을 맡고 있던 경찰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 운집중인 수천명의 시위군중 향해 다연발 최루탄 무차별 발사하여, 여러 명이 과편에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지자 이에 격분한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과 투석전으로 벌이며 민정당사를 공격했다.³⁾ 이 과정에서 민정당 제1지구당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⁴⁾
- 오후 3시 45분경, 수원서장이 담당하고 있던 신기촌 방향의 시위대가 늘어나면서 시위가 격화되자 진압차량을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까지 전진하였다가 시위대에 의해 진압차량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4시 30분경에는 시위 현장에 경찰의 최루탄 운반차가 돌진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최루탄 운반차는 신기촌 쪽에서 출발하여 본래 경인상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최루탄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석암 4거리에서 진압부대의 후방으로 접근해야 할 차량이 주안역 대로의 시위대 가운데로 진입하여 시위대에 점거된 사건이다.
- 오후 5시 20분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 ‘경찰 방해로’ 개헌 현판식 무기 연기를 발표하고, 김영삼 고문등 신민당의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민통련 200명의 시위대는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2,000명 시위대는 시가행진하며 대열을 정비했다.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무기 연기된 이후 시위대와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이 계속됐다.
-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경은 시민회관 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제물포역, 수봉공원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다가⁵⁾ 오후 10시경 10시간에 걸친 5·3 당일의 항쟁은 종료되었다.⁶⁾

5. 인천5.3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 재구성⁷⁾

3) 경찰의 과잉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격렬한 투석과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많다.

4) 『선봉』4호 (‘86.5.13)

5) 서울로 귀가 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은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6) 대검,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보고」(1986.5.19.), 경기도경 「실황조사서」(5.28) 등 참조

7)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를 중심으로 정리한 상황임

■ 09:00~12:00

시간	내 용	비고
09:00	신한민주당 집회 안내방송 시작	신민당 방송
09:20	신민당 청년 당원 60명 시민회관 광장 배치 정북경찰관 철수 요청	신민당 항의
10:00	경찰관 행사장 2km 밖 철수 요청 방송 (충돌우려 제기)	신민당 항의
10:40	신민당원 100여명 주안역 제물포역 이동하여 경찰 검문검색에 강한 항의	신민당 항의
11:54	주안1동성당앞 경찰 검문조, 화염병14개, 유인물600매, 교련복 1착 수거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 타도, 군사독재 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 구호 방송시작	검색압수, 신민당 방송

■ 12:00~17:40

시간	내 용	비고
12:00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명, 플래카드, 화성기 달린 리어카로 시위 시작 시민회관 네거리 시위출발, 시민회관 건너편 학생 300명, 대회장 주변 2천명 -주안역앞 300명 시위군중 20개의 플래카드, “인천을 해방구로” 행진 시작	민통련 시위 민민투 시위
13:00	대회장 주변 4천명 민통련 장기표 정책실장 주도로 시위 시작	장기표 연설
13:15	시위대 2천명 민정당사 진입 시도, 투석, 화염병 투척 35분경 민정당사 화재로 전소 (여주소대 민정당사 고립) /13:26, 경찰 사과탄 5발 투척	민정당 공격 사과탄투척

시간	내 용	비고
13:40	시위군중 200명, 노상주차 신민당원 차량 방화전소 -시민회관 앞 근로자 200명 유인물 2천매 살포시위 -학생800명시민회관 사거리 스크럼시위 돌과 화염병 투척/13:35, 경찰 최루탄발사	당원차량전소 투석전 격화 최루탄발사
13:45	수원서장 지휘 진압부대 4개중대, 최루탄 사용 민정당사 진압, 여주 소대 구출	민정당사진압
14:05	시위대 시민회관 소방호스로 대회장 살수, 주안성당앞 버스승강장 쓰러뜨리고 화염병 투척하며 민정당사 앞 바리케이트 설치	바리케이트1
14:20	민통련회원 100명의 선도로 1500명 풍물패 선두 유인물 배포	풍물패 행진
14:25	민통련 장기표 '구속자 석방' 구호 외치면서 시위	장기표 연설
15:30	-주안초등 건너편 시위대 200명, 시내버스 안내판, 공중전화박스 쓰러뜨려 바리케이트 설치 돌과 화염병 투척. -민통련 회원 등 1,000명 교보빌딩 앞 "속지말자 신민당" 플래카드 들고 성조기와 군사독재 화형식 개최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김영삼과 김대중이 벌이고 있는 개헌운동 중지하라) -15:45. 시위대, 경기 기동8중대 소속 가스차 포위, 기동 8중대장 김윤옥 경감 등 10명 부상	바리케이트2 가스차 포위
16:30	시민회관 북쪽 시민화원 앞 100명의 시위군중이 경찰 최루탄 운반용 타이탄 트럭 탈취 후 불을 붙여 안양서장 지휘 진압부대로 밀어 붙임 17:10분 차량 회수	타이탄 탈취
17:20	홍사덕 대변인 대회 무기 연기 발표 -민통련 200명 등 시위대 철야시위 결의, 시위대 2000명 시가행진 대열 정비 -17:30, 시위군중 2,000명 민정당사 진압부대 향해 투석, 화염병 투척 -17:30, 김영삼 고문등 당소속 의원 승용차편으로 상경	현판식연기 시가행진 투석전격화
17:40	경기도경 3개방향에서 34개 중대 투입 진압 작전 전개, 시위군중 주력 분산, 1,000여명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며 버스승강대 2개로 바리케이트 설치 투석전	바리케이트3

■ 18:15~21:40

시간	내 용	비고
----	-----	----

시간	내 용	비고
18:15	- 주안역 앞 100, 주안역앞 계단 200명, 제일연탄 300명 시위 계속 - 주안1동 파출소, 법원4거리 방향 산발 시위 부천서장지휘5개중대, 남양주서장 지휘 4개중대, 광명서장 지휘 4개중대 각각 투입 진압	주안역 시위
19:04	제물포,앞 시위 / 동인천역 앞(연좌), 용덕마루 화평교 축현초교 주안 5,6공단 시위 -19:30, 동암역 시위 ⁸⁾	제물포역 시위
20:00	서울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 부천역전 시위	부천역전 시위
20:20	도화초등학교 앞 도화4거리 시위대 300명, 교통초소 투석, 인천동부서 기동대차량 방화전소	도화초등 시위
21:40	중구 경동 4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 차도 재집결 시위 - 남양주서장 인천서장 진압 인천시내 상황종료	동인천 시위

※ 추가 분석 계획

- 5.3항쟁 참가자 구술 증언록, 입수한 판결문, 수사기록을 비교 분석하여 항쟁 당일 일지를 작성한 다음 주요 참가자의 자문을 받아 완성할 계획임

8) 경인일보, 5월5일자 보도

6. 시위 상황과 경찰의 진압 상황

[DA1431865 인천5.3 경찰자료 10(실황조사)] 8쪽~17쪽

- 그동안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 신민당 시도지부 결성대회에서도 민통련 등이 주도한 불순분자들이 행사종료되기전에는 주로 행사장 주변을 돌면서 불순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하다가 행사종료후 투석 방화 등 난동시위가 있어 인천 집회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경기도 자체인력 35개중대 4,690명과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80개중대 10,720명을 사건당일 09:00까지 경비배치하고 질서유지 및 검문검색에 당하면서 상황을 유지하였던 바(별지 도면2 참조)
- 주최측인 신민당에서는 09:00경에 대회장인 시민회관과 옥외에 대형 확성기 8대를 2층 전면과 동쪽 교보빌딩 방향으로 각각 4대씩 설치하고, 프랑카드 14매를 장내 6매, 장외 8매 게시하는 한편 시민회관 계단 및 광장에 서명대 3개를 설치하고 신민당 개헌추진지부 결성대회장이라고 안내방송 실시(사진 18,19, 참조)
- 09:20경에는 주최측 청년당원 20여명이 대회장 부근에서 교통정리중인 모범운전자 노열부 등 30명에게 욕설하며 시민회관 광장 밖으로 밀어 내고 시민회관 앞 횡단보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중인 정북경찰관에게 청년당원60여명이 개새끼들 물러가라며 일어부치고
- 10:00경 행사장 옥외방송을 통하여 “경찰관은 행사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밖으로 물러가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어떠한 불상사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계속 방송하다
- 10:40경에는 행사장 앞에 모여있는 신민당원 100여명에게 방송으로 경찰에서 주안역과 제물포역에 도착하는 당원들을 연행하고 있으니 대치하자고 하여 봉고차로 제물포역에 40여명, 주안역에 도보로 50여명이 와서 경찰의 검문검색을 항의하였고
- 11:54경 대회장인 시민회관에서 약 100여미터 상거한 주안1동 성당앞에서 경찰검문조에 의해 화염병 14개와 유인물 600여매, 대학교련복 1개 등이 수거되

었고 대회자에서는 옥외확성기로 남녀가 교대로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타도, 군사독재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방송은 계속 되던 중

- 12:00경에 이르러서는 주안1동 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여명이 프랑카드를 앞세운 대열속에 확성기를 달은 리어카를 끌고 나와 시민회관 건너편 골목에서 나온 학생풍 300여명과 대회장 주변에 산재해 있던 문 제 단체회원등 학생풍 2,000여명과 합류 스크럼을 짜고(사진 20, 21, 참조)
 -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 독재 정권 물러가라
 - 미일 세력 물러가라
 - 민중 정권 수립하자
-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회관 앞4거리를 돌면서 시위하고(사진22, 23,)
- 거의 같은 시간에 주안역앞에서도 300여명의 시위군중이 20여대의 프랑카드를 들고 “인천을 해방구로”라는 등의 각종유인물을 살포하면서 대회장 쪽으로 행진하여 시민회관 주변 군중과 합류
- 13:00경에는 대회장 주변에 약 4,000여명이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와 그가맹단체인 인사련 등 간부의 주도로
 - 미일세력 몰아내고 민중정권 수립하자
 - 속지말자 신민당 몰아내자 양키놈
 - 기만술수 일삼는 신민당을 믿지말자
- 등의 프랑카드와 피켓등을 들고
- “미제파쏘타도”등 구호와 “철천지 원수미제와 그 앞잡이 깡패적 반동 정권의 심장부에 해방의 칼을 꽂자”는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연좌 및 행사장 주변을 맴돌면서 시위하였으나
- 경찰은 신민당 집회의 진행과 대회장 군중의 안전을 위하여 진압치않고 계속 배치장소에서 질서유지 및 검문검색에 당하였던 바
- 13:15경 시위군중 2,000여명이 스크램을 짜고 시민회관에서 200미터 상거한 민정당 인천1지구당사 앞으로 돌진하면서 투석 2, 3층 유리창을 파손 시킨후(사진24 참조) 계속 셔터문을 부수고 당사내 진입을 시도 함으로서

- 동소에 배치되어 경비에 당하고 있던 여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2156명이 사과탄 5발사용하여 시위군중을 격퇴시키고 수원경찰서장이 자취하는 신기과출소 부산3중대를 당사쪽으로 대치케하였으나
 - ※ 이로 인하여 순경 최동헌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별지4 명단참조)
- 13:35경 시민회관 주변으로 퇴진하였던 시위군중 2,000여명은 다시 민정당사 앞으로 몰려가 진압대치부대와 민정당사를 향하여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여 당사에 방화(사진 25,26, 참조)
 - 당사에 배치된 여주소대에서 사과탄 15발을 사용 저지하면서 소방차2대를 동원하였으나 시위대의 극열한 투석저항으로 접근치못하여 동소에서 500미터(시민회관에서 300미터) 상거한 경기기동5중대와 8중대가 지원 13:45 체루탄을 발사하여 일단 저지 진압하였으나
 - ※ 동 시위로 5중대 상경 장래권등 12명이 1주-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민정당사 2층 사무실 45평이 전소되고 획시밀 1대등 집기류 등 모두 4,000만원 상당이 소실되었으며(별지 5명단, 사진 27,28,29, 참조)
- 13:40경
시민회관 앞에서 일부 과격학생풍 시위군중 약200여명이 시민회관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시민당기와 개현스티카등이 부착된 신민당원 김노진 소유 레크드 승용차1대를 경찰바리케이트가 설치된 민정당사 방향 시민약국 앞까지 밀고가 화염병을 던져 방화 전소시켰으며 (사진 30,31,32,33, 참조)
시민회관 앞 김광식 정형외과 건물에 투석하여 유리창 10여매를 손괴하는 한편
- 근로자풍 200여명은 시민회관앞에서 “미제와 그 쫓마니를 이롭게하는 모든 것을 때려부수자”“미제의 상징인 거만한 맥아더 동상을 까부수자”는 내용의 근로자 해방동맹 명의로 된 유인물 2,000여매를 살포하며 시위하고
- 학생풍 800여명이 코 밑에 치약을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는 시민회관 앞4거리에서 스크램을 짜고 각목 등을 들고 시위하면서 화염병과 돌을 투척하며
- 일부 시위현장을 취재하던 연합뉴스 이남기 기자와 서울신문 왕상관 기자를 폭행하고 필립등을 빼앗는등 시위가 격열화되어

- 이에 대처하였던 수원경찰서장 지휘하에 진압부대4개중대가 시위의 과격화를 막기 위하여 13:45경 최루탄(sy44탄)을 사용진압하고 민정당사에 고립된 여주소대를 구출하였으나
- 14:05경 시위군중 일부가 시민회관에 시설된 소방호수를 끌어내 대회장 입구 등 주변(주변)에 물을 뿌렸고 주안성당 앞 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쓰러트려(사진 34, 참조)
 민정당사 방향으로 밀고가면서(사진35 참조) 진압부대를 향해 화염병과 돌을 무차별 투척하여
 - 자제하여 치안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방송하면서 최루탄을 발사치 않고 시위군중과 대처하고
- 14:20경 시민회관 앞 주안성당 간을 오가며 차도에서 민통련회원100여명의 선도로 1,500여명이 팽가리를 치며 유인물을 배포, 화염병을 투척하고(사진 36,37, 참조)
- 14:25경 민통련 연구실장 장기표 등이 민통련 회원들 앞에서 “구속자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선동하고(사진3부터 17까지 참조)
- 14:30경 주안 국민 학교 건너편에서 시위학생 200여명은 시내버스 대형 안내판과 공중전화박스 1개씩을 쓰러트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사진 38참조) 돌과 화염병등을 다량 투척하고, 시민회관 동편 교보빌딩 앞 차도상에서 민통련 회원 등 1,000여명은 “속지말자 신민당”이란 프랑카드 등을 들고 군부독재 허수아비와 대형성조기를 불태우며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미일외세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신기촌 방향으로 진행다가 저지당하자 다시 시민회관4거리로 되돌아와 민민투 학생들과 합세 “김대중, 김영삼에 의한 개헌운동 중지하라”“미제국주의자들 심장에 칼을 꽂자”“인천을 해방구로”“헌법제정 민중회의 소집하자”는 등의 과격구호와 유인물등이 난문하였고, 근로자 및 일부 민통련 회원100여명은 리어카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다니며) 구호를 제창하여
 - 수원경찰서장 지휘부대는 민정당사에서 시민회관방향으로, 안양경찰서장 지휘부대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시민회관방향으로 최루탄을 사용 협공저지하고 소방차 5대를 민정당사로 투입 14:30경 진화하였으나

- 15:45경 주최측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방송하여 신민당 중앙인사의 입장 위한 길을 터주고 대회장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회관 주변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경기 기동8중대소속 가스차 1대를 앞세워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 시위대가 각목등을 휘두르며 진압부대를 공격 차량의 기어가 엉키면서 포위당해 동차량에 탑승하였던 기동 1(수기로 8로 고쳐져있음) 중대장 경감 김운옥 등 10명이 2주 내지 6주간의 부상을 당하며(별지 명단, 사진 39참조) 위 수원, 안양 경찰서장 지휘 진압부대가 최루탄발사 구출하였으며
- 16:30경에는 시민회관 북쪽 시민화원 앞에서 시위군중 100여명이 최루탄을 수송하는 인천7가1045호 경찰 타이탄트럭1대를 각목과 돌맹이로 탈취 최루탄 476발을 꺼낸후 차를 시민회관 앞까지 밀고가(사진 40참조)
- 16:40경 적재함 덮개를 벗겨 기름통을 떼어 적재함을 뿌린후 불을 붙여(사진41참조) 현대아파트 앞 안양경찰서장 지휘 진압부대를 향하여 밀어붙여
 - 안양서장 지휘부대가 이를 진압 17:10경 탈취차량을 회수하였으나
 - ※ 시가42만원상당이 훼손되었고
- 17:20경 홍사덕 대변인이 대회연기 발표가 있었으나
- 17:25경 시위군중들은 호트러질 기세없이 민통련회원 200여명은 시민회관 앞4거리에서 철야시위를 다짐하는 등 기세를 올렸고(올렸고) 학생 및 근로자등 2,000여명은 시민회관4거리에서 시내로 진출키위해 스크럼을 짜고 시민회관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시청과 구청 건물을 점거 “인천을 해방구로 하자”는 말이 나오고
- 17:30경 시위군중 2,000여명은 민정당사쪽의 진압부대에 민통련회원 등 300여명은 석암4거리 방향등 진압부대에 돌과 화염병을 수없이 투척하여 격렬하게 시위하여
- 17:30경 김영삼 고문 등 당소속의원 30여명이 승용차편으로 상경한후 인
 - 17:49 진압작전을 전개
 - 시민회관 남쪽에서는 수원서장 지휘7개중대
 - 시민회관 서쪽에서는 남양주서장 지휘8개중대

- 시민회관 동쪽에서는
안양서장지휘 5개중대
여주서장지휘 5개중대
 - 주안역 광장에서는
부천서장지휘 5개중대
광명서장지휘 4개중대
총34개 중대를 투입 진압한바

- 17:40경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시위군중의 주력이 분산되지 그중 1,000여명은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버스 승강대2개를 뽑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극열투석

- 18:15경 주안역부근에 시위군중 재집결하여
주안역 앞 100여명
주안역입구 계단 200여명
제일연탄 앞 300여명
이 드럼통을 굴리며 시위를 감행하여
 - 주안역은 부천서장 지휘5개중대, 주안1동 파출소쪽은 남양주서장 지휘 4개중대, 법원4거리방향은 광명서장 지휘6개중대, 총13개중대를 투입 해산조치 하였으나

- 19:04경 제물포역앞에서 시민회관과 주안역으로 피신한 시위대가 제물포역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계속하여
 - 연천서장지휘 2개중대
인천동부서장 지휘2개중대
올림픽 기획과장 지휘2개중대
총6개중대를 투입 진압하였으나

- 20:20경 인천 도화 국민 학교 앞 도화4거리 노상에서 시위대원 300여명이 교통초소에 투석 유리창 4매를 파손시킨후 초소 옆에 정차중이던 인천동부경찰서 형사기동대 봉고차량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방화전소시켜
 - 평택서장 지휘1개중대
인천동부서장 지휘2개중대
올림픽기획과장 지휘2개중대

총5개중대를 투입 진압하였으나

- ※ 형사기동대차량에 승차한 인천동부경찰서 순경 김길만 등 3명이 부상을 당하고 동 차량은 화염병 투척으로 전소되었으며,

○ 21:25 인천 중구 경동4거리쪽에서 동인천역방향으로 학생풍 200여명이 차도에 재집결시위함으로

- 남양주서장 지휘4개중대
인천서장지휘2개중대
총6개중대를 투입진압함으로서

○ 21:40경 모든 상황이 종료됨

3부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

3부. 연구현황과 문헌자료 분석

1. 연구현황

1987년 ‘6월항쟁’은 민주주의 이행을 가능케 한 사건이면서 구체적으로는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운동이었다. 그럼에도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개헌운동으로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최종숙 2016, 14). 직선제 개헌은 6월항쟁을 통해 쟁취한 가장 커다란 성과로서, 6월항쟁이 성공한 투쟁이고 따라서 1987년이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의 원년이라는 평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그러나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재정권의 공범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 직선제 개헌을 통한 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더 나아가 ‘6월항쟁’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전격 수용한 노태우(당시 민정당 총재)의 ‘6.29선언’은 당시에는 독자적인 결단이자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평가되었으나, 이후 증언과 연구를 통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미국까지 연계된 정치적 전략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346-347; 정일준 2017, 23-26). 설상가상으로 1987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은 이후 민주헌법으로서의 긍정적 평가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실패를 가져온 ‘87년 체제’의 불행한 출발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조현연 2017 참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연구에서 개헌과 개헌운동이라는 주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사에서 권력 획득·연장이 헌법의 개정을 동반한 사례가 많았다. 헌법 제정 이후 12번의 개헌안 제출과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 중에서 1969년대의 ‘3선 개헌 반대운동’, 1972년의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 등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개헌운동의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을 헌법 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이행은 주로 1987년 6월 항쟁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었고, 6월 항쟁을 정점으로 그 이전 역사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했다. 하지만 주류 담론에 대한 ‘수정론’도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종숙(2016)이 ‘1986년의 실패와 1987년의 성공’이라는 주류적 해석을 수용하고 있고, 『한국민주화운동사3』에서도 1987년 ‘민주대연합’과 1986년 ‘개헌 서명운동’ 당시를 비교 언급하고 있다. “1986년 전반기 야당이 개헌현판식을 가질 때

재야와 관계를 갖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는 대체로 상호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협조할 때에도 다분히 동상이몽적이었다. 그렇지만 1987년 초 박종철고문사망사건 이후 이루어진 민주대연합은 단일한 조직을 통해 공동협조가 잘 되었고 단일한 목적으로 향해 활동했다”는 것이다(p.282).

하지만 정대화(2005)는 노태우의 6.29선언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이 분열하고 민주화운동의 주도권을 상실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즉 “국민운동본부는 6.29 선언을 6월항쟁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집중한 반면 그것이 군사정권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상황이 반전을 허용하면서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정대화 2005, 226)고 평가했다. 조현연(2007, 2006b, 1997)의 연구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야당과 국민운동본부가 6.29선언 이후 개헌 ‘투쟁’을 독재정권과의 개헌 ‘협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민주화의 의제가 협소해지면서 독재정권의 전략이 관철되었으며(조현연 1997), 당시 민중운동 진영 역시 개헌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헌’이라는 의제의 중요성 인식이나 제도권 현실 정치의 분석에 무능하여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에 머물렀으며(조현연 2006b), 그 결과는 민주화운동의 배제 및 참여 포기, 그리고 분열이었으며, 1988년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에서의 지체였다는 것이다(조현연 2007). 분명한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성공’으로 규정하고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는 담론이나, 그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모두 ‘발전’이나 ‘공고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논증이 필요한 부정확한 담론 또는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 담론의 효과 때문에 19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2006년에 개최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계 승사업회의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토론회 이전에는 보고서 한 편도 발표된 바가 없었다. 그 행사에서 발표된 조현연(2006)과 조희연(2006), 그리고 이후 김영곤(2007), 이준한(2014), 서중석(2016), 최종훈(2020), 김창수(2021b) 등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천5.3민주항쟁을 6월항쟁과 관계에서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이준한 2014)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서중석 2016)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차원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분석한 논문(김영곤 2007, 조희연 2006)과 사례 자체를 충실하게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논문(최종훈 2020, 김창수 2021b) 등이 있다. 하지만 인천5.3민주항쟁을 전체 민주화운동, 즉 1985년부터 시작된 ‘개헌운동’의 전개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다.

2. 명칭(잠정적인 결론)

이 연구에서는 ‘5.3인천민주항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2020년 6월에 윤관석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구)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된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개념의 어순을 약간 바꾼 것이다.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이 조항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⁹⁾ 법률에서 누락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시행령에서 포함시켰다. 한편, 2018년 10월에 인천시의회는 조성혜 의원(민주당, 비례)외 1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¹⁰⁾ 여기에는 기존 조례 제2조에 있던 ‘4.19혁명, 6.10항쟁 등’이라는 부분을 ‘4.19혁명, 5.3민주항쟁, 6.10항쟁 등’으로 수정하였다. 민주화운동의 각 명칭은 하나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운동 주체들의 검토와 합의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명칭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른 용어로 재정의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명칭은 ‘시기+장소+사건 성격’의 순서로 규정되고, 시기나 장소는 생략되기도 한다. 예로서 4.19혁명, 부마(부산·마산)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있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항쟁’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개념의 의미 차이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간혹 ‘민주’보다 ‘민중’을 사용하는 용례가 보이지만 이는 공식적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5.3시위’에 대해서도 ‘5.3인천민주항쟁’ 또는 줄여서 ‘5.3인천항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9)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주최(2020년 12월 15일)

10)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2018년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3. 5.3항쟁 이전까지의 개헌운동 전개

(1) 1985년 2.12총선 승리와 제2차 개헌운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정권의 몰락 이후,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면서 공안 통치를 본격화했다. 이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구속 또는 연금되거나, 정치활동의 규제를 받았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2월에 정치활동 피규제자 중 452명을 2차에 걸쳐 해금하였으나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핵심 인사 99명은 여전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가택연금 상태의 김영삼은 1983년 5월 18일에 ‘단식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계기로 숨죽여 있던 민주화운동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저격) 직후 민주화 국면에서 ‘양 김’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단일화 협상이 깨어지고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했었으나, 1983년에는 다시 손을 맞잡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김영삼 단식투쟁 대책위원회’를 ‘민주국민협의회추진위원회’로 발전시켰고, 1985년 5월 18일에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을 결성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김영삼이 공동의장으로, 김대중이 고문으로 시작한 민주협은 이후 김대중 고문, 김영삼, 김상현 공동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12월 11일 세 사람의 명의로 제 12대 총선에 대해 ‘선거투쟁 선언’을 발표하였다. 민주협은 신당 신민당의 모태가 되었다.

1985년 1월 1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대의원 5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대회가 열렸다. 신민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 국정감사권 부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언론기본권 폐지 및 노동관계법 개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김정남 2005, 464).¹¹⁾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사건과 같은 해 3월 29일에 결성된 민주주의적 민주화운동 단체인 ‘민중통일민중운동연합’(이후 민통련)의 출현 등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개헌운동은 점차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¹²⁾ 신민당은 ‘더 이상 헌정중

11) 이 의제들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를 내세워 전략적으로 제시한 ‘6.29 선언’의 주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치인의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2인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지방자치제와 대학 자율화 실현 등이 주요 골자였다.

12) 가장 먼저 조직화된 것은 민주화운동(전국)청년연합(민청련)이었다. 1983년 9월 30일에 창립 대회를 연 민청련은 197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공개적인

단과 유혈의 비극이 없기를 원한다면 어떤 형태의 혁명도 아닌 선거에 의한 명예 혁명, 평화혁명으로 독재를 퇴진시키는 것만이 피와 눈물로 얼룩진 헌정사의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론을 공식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1985년 8월 민통련은 '민주제 개헌운동'을 제기했고, 9월 신민당은 정기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1985년 11월 20일 서울 장충동 민통련 사무실에서 '민주헌법쟁취위원회' 결성 및 현판식이 열렸다. 민통련 산하 23개 단체가 참가하여 '군부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는 구호를 걸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12월에는 신민당을 향해 '군사정권과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환상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1985년 12월 민정당이 신민당의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안을 거부하면서 여야간 정치협상 결렬되었고, 1985년 개헌정국은 1986년의 '개헌투쟁' 정국으로 전환되었다. 독재정권 하의 야당은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 왔다. 쿠데타로 인해 국정과 의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타의로 '장외'로 몰려 비자발적으로 '재야' 정치집단이 되기도 했고, 의회가 운영되는 와중이라도 정치적 수단의 하나로 '장외' 투쟁을 벌였다. 한국의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필요에 따라 '장내'와 '장외' 투쟁을 병행하여 왔고, 실제로 장외 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여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계와 재야 단체들의 개헌운동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개헌론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5일 서노련은 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안양지역 노동3권 쟁취위원회 등과 연합하여 '전국노동자 민주·민주·민족통일헌법 쟁취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과 신민당을 모두 비판하면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는 민주·민주·민족통일헌법'을 주장했다. 그것을 '삼민헌법'이라고 불렀다. 학생운동 역시 10월 26일 연세대에서 전학련 집회를 열고 '삼민헌법 쟁취와 수입개방 압력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29일에는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가 발족했

투쟁조직으로 조직하였다. 민청련의 결성으로 다른 부문의 단체들도 하나둘씩 조직되기 시작했다. 1984년 6월 29일에는 민청련 등이 주축이 되어 상설협의체로서 민주·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를 결성했고, 1984년 10월 16일에는 재야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결성했다. 민민협과 국민회의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던 와중에 1985년 2월 12일 12대 총선이 치러졌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신생 정당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반군사독재 의식이 급속히 표출되고 있는 조건에서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열을 시급히 정비해야 하며, 제도정치권과 다른 힘찬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85년 3월 29일 민통련이 출범을 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에서의 야당의 역할이나 민통련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민통련에 대해서는 정대화(2005), 이명식(2005)의 연구가 있고 당시 야당(김영삼과 김대중, 양김 세력)에 대해 주목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강원택 외 2015, 이계희 1992).

고, 11월 18일에는 전학련 산하 ‘군부독재타도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소속 대학생 191명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기습 점거하였다.

(2) 1986년 신민당의 개헌 서명운동 민중운동권의 입장

1986년 1월 7일 민통련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사독재정권의 퇴진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헌법은 국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을 열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민중의 싸움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헌법이 담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분단 극복 의지와 4월혁명, 5.18광주민중항쟁 정신 계승, 둘째, 생존권, 저항권,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등의 보장 등을 꼽았다. 정치제도로는 직선제로의 개헌과 대통령 권한 제한, 의회 국정감사권 보장,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73-75).

1986년 1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대통령 선거 방법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와 서울올림픽 개최라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가 성취되고 난 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대통령 국정연설이 끝난 직후에 ‘원외 개헌운동’을 결의했다. 야당의 개헌운동에 대해 정부와 검찰은 의원 신분을 제외하고는 개헌운동 참여가 위법 행위이자 불법정치활동으로 간주하고 의법 처리할 것이라 경고했다(조선일보 1986년 1월 17일자). 학생운동권에서 먼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월 4일 전학련 소속 서울의 14개 대학 학생들은 ‘헌법철폐 및 헌법제정 국민의회 쟁취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추진본부’를 결성했다. 정치권도 움직였다. 민통련은 1986년 3월 5일에 가맹 23개 단체와 각계 민주인사 303인의 이름으로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협을 중심으로 이미 1985년 12월에 ‘민주제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신민당은 1986년 2월에 ‘2.12총선 승리 1주년 기념식’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중앙당에서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개헌추진 1천만명 서명운동 총본부’ 현판식을 거행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행사는 무산되었다. 개헌운동의 첫 행사가 무산되었지만 신민당은 ‘1986년 말까지 1천만 서명 완료 및 국회 개헌안 확정, 1987년 3월까지 개헌 완료’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하고 3월 11일부터 서울 3백만, 부산 1백만, 대구 60만, 인천 40만, 경기 80만, 강원 70만, 충북 30만, 충남 70만, 전북 50만, 전남 95만, 경북 60만, 경남 80만, 제주 5만 등으로 시도별 서명 목표 인원

을 설정하였다(경향신문 1986년 3월 5일자). 지역 대도시 순회 현판식 일정은 3월 11일 서울, 23일 부산, 30일 광주, 4월 6일 대구 등으로 정해졌다. 3월 11일에는 서울 흥사단본부 강당에서 2천여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추진위 서울지부 결성대회가 열렸고, 당간부들은 당사까지 행진을 한 후 중앙당사에서 개헌추진위 서울시지부 현판식을 거행했다(경향신문 1986년 3월 11일자).

전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는 개헌운동의 기본 형식이 결정되었다. 신민당은 도시 중심부에서 대규모 ‘개헌추진위 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함께 인근 지구당 사무실까지 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현판식을 거행하는 방식이었다. 1985년 3월 4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에서 개헌을 위한 시국선언을 한 이후 1986년 5월까지 종교계(5건) 이외에 총 30여 개 대학의 교수 8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최종숙 2016, 40-43, 조현연 2006a, 16).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는 “학생들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학원문제는 학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가 압축되어 표출된 것인 만큼 그 병폐의 제거만이 궁극적으로 학원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과 민주화가 국민 앞에 하루속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인천의소리」 10호, 1986.4.30.).

1985년 하반기부터 학생운동 진영도 개헌을 위한 투쟁을 고민하고 있었다. 학생운동권의 주장은 9월경에는 ‘민주제 개헌투쟁론’이다가, 11월경에는 삼민(민중·민주·민족)헌법쟁취론으로 변화하고 다시 1986년 2월경에는 ‘파쇼헌법철폐투쟁론’으로 변화해 갔다. 내용적으로 민주제 개헌투쟁론은 민통련 등 민중운동 다수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었다. 삼민헌법쟁취론은 서노련 등 노동운동 측의 입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론과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직선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왜냐하면 신민당의 주도 아래 민중운동 진영이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소수이지만 일부에서는 반미투쟁 자체를 중시하며 ‘개헌투쟁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다른 그룹에서는 ‘직선제 개헌’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자민투’에 의해 1986년 3월 이후 ‘반제투쟁론 하의 직선제 개헌론’이 제기되었다(일송정 편집부 엮음 1988, 95).

한편, 1986년 3~4월의 학생운동권은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1985년의 노선 투쟁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크게 두 그룹이 형성되었다. 3월 21일에 서울대에서 ‘반제반군부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결성되었고, 4월 11일에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가 결성되었다. 민민투와 자민투는 노선의 차

이를 둔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 상호 간에 격렬한 감정적 대립을 하기도 했다. 노선에 있어서 민민투는 자본주의의 계급문제를 강조하면서, 개헌투쟁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헌법제정국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투는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개헌투쟁보다 ‘반미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고원 2013, 이창언 2013b). 이들은 이후 NL노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과 CA노선(제헌의회 소집론)으로 각각 노선을 정립해 나갔다. 자민투는 개헌운동보다 반미운동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개헌운동 확산을 보면서 ‘직선제 개헌론’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민민투는 직선제 개헌론을 개량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4월 29일 전국 30개 대학 3,000여 명이 연세대에 모여 전국반제반과소 민족민주학생연합(민민학련)을 결성했다. 이들은 5.3인천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민민학련·민민투는 직선제 개헌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개헌 투쟁 열기를 ‘혁명적 정세가 형성되는 시기’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민민투와 자민투 모두 ‘보수대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신민당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타협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4월 26일 이화여대 대자보는 신민당 경북·대구지구 및 대전 충남도지구 현판식에 대해, “기회주의적 정치세력의 선도자인 김영삼, 이민우 등은 민중들을 향해 ‘평화적인 시위를 하라’, ‘자제해 달라’며 고양되는 민중의 투쟁 열기를 저지시키고자 버둥거렸다”며 비판하면서 “민중의 투쟁은 80년 민중의 민주화 열기를 총칼로 짓밟고 나타난 군사정권의 정치·경제·문화 등 파쇼적 억압과 한국 민중의 고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타도투쟁인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조선일보 1986년 5월 1일자). 4월 27일 청주대회 이후 4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만섭 국민당 총재, 이민우 신민당 총재,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는 “5월 3일 인천 현판식에 운동권 학생들이 몰려가자고 대자보에 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평 일대에 위장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인천대회 참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89년에 개헌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민우는 87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소수이겠지만 좌익 학생들은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 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서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반발을 샀다.

이런 와중에 4월 28일 서울대 인근 신림사거리에서 전당입소 거부투쟁을 벌이던 김세진, 이재호가 전경의 집압작전에 몰려 저항하다가 분신·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고, 당일 서울대에서는 자민투 집회가, 연세대에서는 민민투의 연합체인 민민학련(전국반미반과소민족민주학생연맹)

집회가 열렸다. 5월 2일 자민투와 민민투는 공동 집회를 열고 ‘모든 힘을 인천으로 총집결하자’며 신민당의 타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운동이 변혁운동 이론에 점차 빠져들어 가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일각의 반응은 ‘기성세대 책임론’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돈명 변호사는 1985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도그마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염려하는 한편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면서 학생운동을 변호하는 일에 대해 ‘나는 명색이 변론이랍시고 법정에 섭니다만, 그런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들 편에 서는 기성세대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위를 얻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은 이 나라가 너무도 긴 세월동안 정치·경제·사회적인 비민주를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 때문에 결국 혁명론이 대두된 것’이라면서 ‘젊은 학생들을 용공으로 잡아넣음으로써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¹³⁾

(3) 신민당의 개헌운동과 민중운동의 개입

5.3인천항쟁은 단 하루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5.3인천항쟁은 1986년 개헌투쟁 중에서 특히 개헌운동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을 매개로 한 민주화운동 진영의 활동을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개헌투쟁이 다시 공안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변곡점이었다. 민통련은 1986년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운집하자 3월 31일에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개헌현판식에 적극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5월 3일 인천대회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민통련 기관지에 발표된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과제」라는 문서는(『민주통일 5호』) “5.3항쟁 당시 객관적 대중정치정세가 고양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전국적 운동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느꼈”으나 “운동권 내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내부조정이 선결과제임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이명식 2005).

① 부산대회와 광주대회

1986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시 부산진구 대한극장에서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과 의원 60~70여명, 당원 약 3~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추진

13) 「이돈명 변호사 구속사건 변론요지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859077

위 부산시지부(지부장 이기택 부총재) 결성대회가 열렸다. 김영삼은 '부산시지부의 결성은 유신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산 시민들이 영원한 민주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은 경찰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육성 녹음테이프를 축사를 했다. 대회를 마친 신민당 지도부와 당원, 그리고 시민들은 600m 정도 떨어진 신민당 부산진구 지구당 당사까지 도보행진을 했고, 근처 서면로터리 일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대한극장에서 서면로터리로 가는 4차선 도로 600m가 약 5천여 인파로 메워졌다. 공식 일정 이후 대학생 등 일부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면서 가두 시위에 나서려 하자 경찰은 진압을 시작하여 오후 6시 경에 해산했다(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각 1986년 3월 23일자).

3월 30일 오후 2시에 전남 광주 YMCA 강당에서 개헌추진위 전남도지부(지부장 이중재 부총재) 결성대회가 열렸다.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과 소속 의원 60여 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대표 등 재야인사들이 참여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대표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가던 중 화곡동 입구 4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를 당했다. 김영삼 고문은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혁명을 거부할 때 이 땅에 폭력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의장은 육성 테이프를 통한 연설에서 '나의 갈 길은 광주 영령들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과 민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뿐'이라며 '민주회복을 위해 총궐기하자'고 말했다. 결성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 시내 금남로, 충장로 등 도심 거리와 도청 앞 광장 분수대는 시민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광주 시내 주요 도심지 도로들이 한 때 마비될 정도였다. 시민들은 도청앞 광장을 '민주시민의 광장'이라 부르며 집회를 진행하였고, 전남대 총학생회 등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삼민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오색 전단을 대량 살포하는 등 대회장 주변에 12여 종의 각종 유인물들이 난무하였다. 결성대회 후 참석자들은 1~1.5km 정도 떨어진 대인동의 광주동·북구지구당(위원장 신기하)으로 이동하여 현판식을 열었다.

당 지도부가 철수한 후에도 학생 등 4천여 명은 해산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다. 저녁 7시 경 대학생들 수백 명은 스크럼을 짜고 도청 쪽으로 진출하였고 강제 해산시키려던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밤 9시 30분 경 시위대는 3백여 명으로 줄었고 도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15m 높이의 광주직할시승격기념탑은 시위대에 의해 무너진 후 불에 탔다. 경찰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가두시위와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최루탄을 사용하여 해산시켰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광주의 개헌추진 현판식과 관련하여 신민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학생 12명, 무직 24명, 음식점 종업원 12명, 운전자 등 근로자 4명, 상업·회사원 등 10명, 농업 7

명 등 총 69명을 연행 조사하였고 방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조사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시위대에 용공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현판식 참가자 수는 약 5천 ~ 6천 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 국무성 버나드 칼브 대변인은 31일 야당의 광주 행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언제나 화해와 대화를 촉구해 왔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야당의 집회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야당의 집회가 기본적으로 평화적이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이날 개헌서명운동 광주지부 현판식 행사와 관련된 시위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각 1986년 3월 31일자). 4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민주를 빙자한 혼란 획책을 엄격히 다스려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의 장외 개헌 공세가 개헌추진 도지부 결성대회를 빌미삼아 운동권 학생 및 일부 재야세력과 연결된 대중 시위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광주지점은 당일 연행된 69명 가운데 32명을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동아일보 1986년 4월 2일자).

광주대회 직후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은 “군사독재 퇴진투쟁 선언 - 민중민주화운동의 방향전환과 전민중의 총궐기를 촉구하며”라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광주대회의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자료집을 발행했다.¹⁴⁾ 이 자료집은 민통련 산하 지역지부와 단체들에 전달이 되었고, 민중운동진영이 신민당 개헌 지역지부 결성식과 현판식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메운 시민들과 민중대회를 개최한 광주대회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찬란한 복권’이라고 평가했다(p. 10). 또한 광주대회는 ‘지속적으로 수세적 위축상태로 몰려온 군사독재에게 결정적 일격’을 가한 사건이며, ‘군사독재퇴진투쟁의 가속화와 반군사독재 민중민주화 투쟁대열의 전국적, 전대중적인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세는 우리에게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군사독재퇴진투쟁에 모든 민중민주화 운동의 결집을 요구한다. (중략) 민중민주화 운동의 주도적 투쟁을 통하여 군사독재퇴진을 실현시키고, 투쟁과정을 통하여 단련되어진 민중의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광범한 민중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

14) 「오월이여! 활화산 광주여! 전진하여 승리하라!! - 3.30광주민중투쟁자료집」.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125770.

다. (중략) 3.30 광주민중투쟁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반군사독재 민중민주화투쟁 대열의 전국적·전대중적 확대의 계기를 올바르게 활용하여야 한다. (중략) 전국의 전민중이여! 전두환 군사독재의 즉각적인 퇴진을 위해 총단결하라! 총궐기하라! ‘군사독재퇴진’으로 모든 투쟁의 대열과 대오를 정비하고 구호를 통일시키라! 전면적인 군사독재퇴진투쟁으로의 총공세를 준비해 나가자!(pp. 10-11)

인천사회운동연합이 발행한 「인천의 소리 10호」 민중투쟁 특보(1986년 4월 30일자)는 광주대회(3월 30일 개최)와 대구대회(4월 5일)의 상황을 알리면서 5월 투쟁을 독려하는 기획으로 제작되었다. 인사연은 광주대회에서 최대 40만 명이 운집했고, 대구대회에서는 최대 10만여 명이 모여 ‘총궐기’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광주대회에서 도청 앞 광장의 시민들이 대형 경축탑을 뜯어내 현정권의 화형식을 거행하였음을 알렸다. 이러한 투쟁은 ‘군사독재 퇴진을 위한 총궐기’로서 민중투쟁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인천의 소리 11호」 민중투쟁 특보(1986년 5월 16일자)에서 다시 한번 광주대회와 대구대회의 진행 과정을 지도와 함께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광주대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자정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내를 가로지르며 전경과 투석전을 전개한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대구대회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하루 종일 투쟁을 전개한 후 밤이 지나 다음날인 4월 6일 오전 8시 15분경에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② 대구대회에서 인천대회까지

광주대회 이후 대구(4월 5일), 대전(4월 19일), 청주(4월 27일)에서 개헌서명 지역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이 차례로 거행되었다. 신민당의 추산으로 대구대회에는 약 4~5만명이 모였고, 대전대회는 약 명이, 그리고 청주대회에는 약 2~3만명이 모였다. 민통련은 신민당의 지부결성식 및 현판식에 조직력을 동원했지만 광주대회에서만만큼의 격렬한 시위는 벌이지 않았다.

인천대회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4월 27일 청주대회 이후 4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만섭 국민당 총재, 이민우 신민당 총재,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는 “5월 3일 인천 현판식에 운동권 학생들이 몰려가자고 대자보에 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평 일대에 위장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인천대회 참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89년에 개헌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민우는 87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소수이겠지만 좌익 학생들은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서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반발을 샀다. 4월 29일 신민당과 민주협이 참여하고 있는 야권 연합모임인 민국련에서 학생들의 반미 주장을 비난했다. 야당 측의 비판들이 인천대회 파국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민통련은 민국련의 발언에 반발하여 민국련을 탈퇴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에는 ‘가자 인천으로’, ‘인천을 해방구로’, ‘신민당의 기회주의를 타도하자’는 등의 대자보가 붙어서 인천대회의 ‘전장화’는 예고되어 있었다.(매일경제, 동아일보 각 1986년 5월 1일자, 경향신문 1986년 5월 5일자)

5.3인천항쟁의 경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서술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다. 김창수(2021)은 기존 자료를 총 망라하여 상세한 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우재(2006)의 일지가 있고, 작성자 미상의 일지¹⁵⁾와 정상용의 공소장과 이재영의 판결문¹⁶⁾ 자료가 있다. 이우재의 일지의 사건 설명 부분은 상당 부분 정상용 공소장 내용과 동일하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5.3인천대회와 관련된 가장 상세한 자료는 내무부가 작성한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이다.¹⁷⁾

5.3인천항쟁을 5월 2일의 준비상황에서 시작하여 5월 3일 저녁 9시40분 중구 경동 사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것으로 5.3인천항쟁 일지는 마무리되고 있다. 기존 자료들은 민통련, 인사연, 인노련, 서노련 등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신민당, 자민투, 민민투 쪽의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일지에 따르면 민통련과 인사연은 5월 2일부터 플래카드와 유인물 등을 준비하였고, 경찰은 2일 21시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인천 일대에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유인물, 화염병 등을 압수했다. 신민당은 3일 오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대회장(주안 시민회관)과 인근 주안역 등 일대에 배치된 경찰들과 마찰이 일어났다. 12시 경 인근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인사연, 민청련, 민불련 등 회원 500여 명이 시민회관 쪽으로 행진을 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¹⁸⁾ 이들은 ‘민주화 촉진 인천시민대회’를 열고¹⁹⁾ 연설을 하면서 자체적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858583 “인천 민중 투쟁 경과 보고서”

16) 정상용의 공소장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소장(등록번호 10926), 정상용의 공판조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소장(등록번호 민10786), 이재영의 9인의 판결문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자료이다.

17) 내무부 작성. 경찰청 자료 관리번호 DA1431866 파일번호10 pp. 68-91. 이 자료는 당일 사건이 철저히 정부 입장에서 재해석되어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정부 대응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치안당국’은 야당의 ‘정치행사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회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난동소요 중에도 ‘신민당 집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렸고,

인 집회를 진행했다. 1시 경 인파는 4,000여 명으로 늘었다.

오후 1시 경에 민민학련 대오가 주안역 인근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다량의 최루탄이 발사되는 가운데, 민민투 시위대가 신기촌 방면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정당 지구당사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자민투는 시민회관 인근에서 행진하며 ‘미제국주의와 전두환은 즉각 물러가라’고 외쳤다. 1시 30분경 민통련 등에서 ‘민주화촉진 시민대화’를 열자고 결의했고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서 준비한 사물놀이패가 군중을 집결시켰다. 1시 40분 경 인노련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경찰과의 일진일퇴 공방이 이어지다가, 시민회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신민당원의 승용차에 불이 나고 시위대는 경찰 측으로 차를 밀어내었다.

원래 신민당 지부 결성대회 시작 시간은 2시였다. 그러나 워낙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고 여러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시작되었고, 경찰과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민당은 가두방속으로 김영삼, 이민우의 도착을 알리고 시위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위대는 신민당을 비판하며 반대로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2시 30분 경 주안초등학교 앞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 과정에서 버스안내판과 공중전화박스 등이 파손되어 바리케이트로 사용되었고, 시민회관 앞 동쪽 차도에서는 시위대가 ‘미·일 외세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²⁰⁾ 이후 5시 20분까지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최루탄 가스차와 최루탄 운반 트럭이 차례로 시위대 쪽으로 들어왔다가 시위대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시 20분에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은 개헌 서명운동 경기·인천지부 결성식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근 신민당 지구당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김영삼 등 당원들은 시민회관 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 직후 경찰은 34개 중대로 시위대를 일시에 해산시켰다. 경찰에 의해 324명이 연행되었다. 6시 10분경 시민회관 안에 대기하던 신민당원 2천여 명이 해산을 하고,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1,000여 명은 주안역과 제물포역 쪽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도심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후 동암역, 석바위, 도화사거리 등과 서울 방면의 부천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다. 저녁 9시40분 중구 경동 사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것으로 5.3인천항쟁은 종료되었다.

18) “인천 민중 투쟁 경과 보고서”와 『인천민주화운동사』에는 주안역 앞에서 시작된 시위와 주안성당에서 시작된 시위의 시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시 ~ 12시 40분 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

19) 정상용 공소장에는 13시30분이라고 되어 있다.

20) 경찰 조사 자료와 이재용의 판결문에는 성조기 화형식이 언급되고 ‘상황도’로도 표시되어 있다. 『인천민주화운동사』와 김창수(2021) 일지에는 누락되어 있다.

4. 인천5.3민주항쟁 이후의 상황

1) 경찰 수사 내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생산한 수사 관련 문서 일체를 입수했다. 이 기록물의 분량은 A4 3,174쪽으로 디지털 파일(pdf) 21개로 구분되어 공개가 되었다.

먼저 인천대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5월 1일 내무부 치안본부장 명의의 공문이 경찰청 정보과장에게 되었다. 이 공문은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에 대한 것으로 ‘경찰수사력을 총집중하여, 국가소요 기획, 극렬투쟁 좌경조직인 민민투 구성원을 완검함으로써 학원사태의 진원지를 발본색원하고 절대다수 선량한 학생을 보호코자’ 총 64명의 구성원 중 미검거 상태의 38명을 수배·구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검거자 26명은 대부분 1986년 3월과 4월에 구속되었다. 공문은 민민투가 용공조직 ‘삼민투’의 후신으로서 북괴 지하 흑색선전단체인 소위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와 명칭 및 전략이 동일하다며, ‘간첩 검거 차원에서 모든 범죄에 최우선하여’ 수사할 것과 정보·수사·용공 합동전담수사반을 5월 3일까지 구성하고 5월 31일까지 ‘완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²¹⁾

경기도경찰국의 종합수사 결과보고 문헌을 통해서 5.3인천항쟁에 대한 당시 공안 정권의 종합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해석 내용을 알 수 있다. 수사보고 자료는 5월 4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부천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경기도경 등에서 매일같이 수사 진척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에 경기도경이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 문헌을 작성하였고, 5월 28일에는 ‘피해 상황과 경찰의 경비 및 진압 상황을 조사키 위해’ 「실황조사서(5.3시위)」 문헌이 작성되었다.²²⁾ 종합수사결과 및 실황조사서를 통해 5.3인천항쟁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찰 보고서 상의 사건 개요

21) 관리번호 DA1431857. 파일번호2. pp. 71-87.

22) 각각 관리번호 DA1431856. 파일번호1. pp. 137-181, 관리번호 DA1431856. 파일번호 10. pp. 1-73. 「실황조사서(5.3시위)」에는 상세한 지도 9장과 증거 사진 47장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5월 3일 인천시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신한민주당 개헌추진 인천·경인지부 결성대회에서 재야불순세력 민통련과 산하 단체 그리고 급진좌경세력 민민투, 자민투의 폭력난동 시위를 벌여, 경찰관 189명 등 다수가 중경상을 입고 민정당사 방화, 민간·경찰차량 탈취 및 방화 등에 의해 1억6천여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그동안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 신민당 시도지부 결성대회에서 민통련 등 불순분자들이 행사종료 후 투석, 방화 등 난동 시위를 벌여 인천집회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경기도경 자체 인력 35개 중대 4,690명과 지원인력 45개 중대 6,030명(합계 80개 중대 10,720명)을 배치하였다.

경찰 보고서의 의하면, ‘5.3시위’에는 조직적으로 민통련, 민민투, 자민투, EYC, 민청련, 민불연, 인사련, 인노련, 서노련 등이 참여하였고, 서울대 등 20여개 이상의 소속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연행자 350명 중 학생이 248명, 노동자는 23명, 회사원 3명으로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민민투 차원의 세 가지 투쟁 계획을 파악하였고 이들은 인천지구 민정당 당사 타격 및 동인천역 4차 대중집회 후 경기도경찰국 점거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민정당사 방화는 연세대 민민투 부위원장 제성민 등의 지시에 의해 이상명, 이용주 등이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경찰 측 공식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건의 개요이다. 특히 「종합조사결과보고」(1986년 5월 20일)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5.3인천시위는 치밀한 계획하에 격렬한 폭력 시위를 목표로 삼고, 민통련의 주도로 재야 불순 세력과 대학 내 과격한 좌경의식화 학생단체가 야합, 종교 세력까지 방조하며, 신민당의 소위 민주화운동에 편승, 인천시위를 기폭제로 삼아 군중을 선동,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전복하려던 과대망상적 난동시위였으며, 경찰력이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그 흉계를 와해시킨 것이다.²³⁾

검찰은 5월 1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5.3인천시위를 “학원의 급진좌경분자와 재야의 일부 과격세력이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일을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시위를 감행하여 치안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발표에서 검찰은 구속자들을 ‘난동소요’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냈다.

23) DA1431856. 파일번호1. pp. 172. 인용하면서 일부 문장 교정을 하였음.

(2) 신민당과 민통련 등의 대응

정부와 경찰·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신민당과 민통련 등은 「인천사태의 진상」(1986년 5월 15일)이나 「'5.3인천민주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1986년 5월 19일)등의 자료를 통해서 반박하였다.²⁴⁾ 신민당은 인천사태진상조사특별위원장 노승환의 명의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천대회의 무산이 '현 정권의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공작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대회 전과 당일에 수만명의 전투경찰이 삼엄한 경계와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대회를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각목, 화염병, 유인물 등이 대회장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회 시작 전에 '학생과 근로자로 가장한' 2,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이후 '미제 축출', '인천 해방구',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격렬한 구호를 외친 것은 '마치 재야 학생 운동권과 신민당과의 이간 분열을 의도하려는 당국의 공작, 방임 전술의 인상이 짙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사 방화나 신민당 표식이 있는 승용차 방화 사건 역시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민당의 자료는 주안1동성당 내에 유인물과 시위용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며, 대량의 최루탄을 사용한 것은 비무장, 비폭력 평화 군중에 대한 '질식사 강요'였으며, 가스차(페퍼포그) 탈취장면도 조작·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대회에 투입된 사복조 경찰의 전화 제보임을 전제로, 당국이 대회 방해를 위해 70여명을 학생 복장으로 변장시키고, 시위 군중 속에서 투석과 화염병 투척 등 폭력을 조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승용차 방화나 가스차 탈취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²⁵⁾

민통련 역시 검찰 발표가 '허위사실과 조작'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난하면서, 5.3시위에 대해 민통련과 타 단체 간의 사전 모의나 계획이 없었고, 시위대의 주장이 북한과 같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구호의 타당성을 먼저 가려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경 점거'와 같은 무리한 계획 수립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전체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음모나 폭거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통련 지역조직인 인사연은 「인천의 소리」 민중투쟁 특보(1986년 5월 16일자)를 발행하고 공안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

24) 각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12579,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등록번호 10737

25) '탈취'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김창수(2021)는 경찰 측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경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굳어졌고, 일부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도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인사련은 경찰이 1만여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무차별로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충돌을 조장하였으며, 시위대 내부에 경찰 프락치가 과격 시위를 유도하였고, 신민당 승용차 방화 역시 ‘프락치’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통련 지역조직이 발행한 「경북의 소리」(1986년 5월 10일자)에서는 민정당사 화재 사건에 대해, 시위대가 ‘미제축출’라는 반미구호를 외치자 민정당 1지구당 속에 잠복해 있던 전경들이 평화적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발포하여 공방전이 벌어졌고, 결국 화염병을 투척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경찰 측으로 돌렸다.

신민당과 민통련 등에서 당국의 조작과 왜곡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데 있어, 경찰은 의혹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작성했다.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인천사태관련)」²⁶⁾이라는 자료는 시위용품이 반입된 이유, 진압 경찰의 규모, 진압 작전의 타당성, 가스차 등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소위 ‘괴한’의 존재 의혹 등에 대해 상세한 반론을 펴고 있다. 그에 반해 이후 신민당이나 민통련 등은 시위 양상 자체에 대한 조작설을 크게 제기하지 않았다. 대신에 5.3 인천항쟁 이후 연행, 구속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고문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다.

26) 관리번호 DA1431870 파일번호 14. pp. 1-51.

4부 구술자료 분석

4부. 구술자료 분석

1. 조사 목적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존 구술기록에 대한 분석 및 가치 평가
- 향후 구술조사 방향성 제안을 통해 심층연구사업의 기반 구축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인천5.3민주항쟁 구술자료 기초 조사
- 조사기간: 2021년 9월~10월
- 조사자: 안정윤(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 조사방법: 기존 증언자료(음성파일) 및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다시 부르며, 민주주의여-』 구술자료집 분석 등

3. 조사 내용

- 녹음파일: 서동석(150715) 21개 녹음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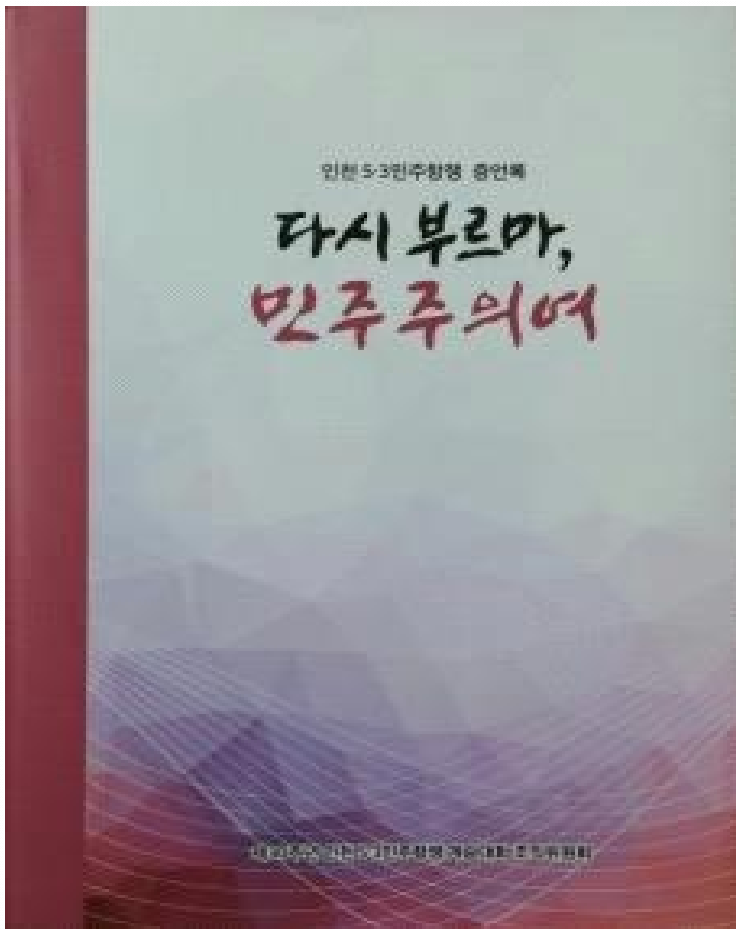
번호	구술자	녹음기록일(넘버링)	채록자
1	서동석	15071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	이현경	150730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3	성효숙 작가	15080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4	권병기	15082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5	호인수 신부	15082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6	정성렬	150917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7	신정길	1510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8	이남희	151016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9	김정택 목사	151018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번호	구술자	녹음기록일(넘버링)	채록자
10	김진국	151022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1	권오광	15102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2	이민우1	1511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3	이민우2	1511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4	김지선	151105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5	김명숙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6	양승조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7	양재덕	2015_0716_0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8	양재덕	2015_0716_02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19	유동우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0	이우재	2015.06.11.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21	정동근	-	김현석, 인수범 중 1인

- 구술자료집: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6.10.)
 - 34명의 구술을 통한 증언

구분	번호	제목	비고
자료	1	인쇄물	11건
	2	기록사진	13건
	3	언론보도	8건
	4	각계의 목소리	10건
증언	1	정말 궁금해요. 다들 현장에는 왜 있었는지_권병기	시민사회
	2	‘선도투’에서 창살 아래 ‘감방투쟁’으로_권오광	노동
	3	을지로 인쇄골목, 또 하나의 저항_권순갑·안삼화	인쇄소
	4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_김명숙	구속자 가족
	5	역사의 진보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_김성복	기독교
	6	학생으로서 맡은 작은 역할이었어요_김수영	대학생
	7	산업선교회 노동운동에서 지역주민운동으로_김정택	기독교
	8	타협하는데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_김지선	노동
	9	선진노동자, 인노련, 삼민동맹_김진국	노동
	10	디딤돌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였어요_박계동	시민사회
	11	다시 5.3을 끌어오고 싶어요_박육남	노동
	12	우리가 가진 전투력의 최대치를 보았어요_서동석	불교
	13	강물에 흐르는 수 많은 빛깔중에 하나일테죠_성효숙	미술
	14	민통련 활동가에서 공장생활로_신순봉	시민사회
	15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였는데_신정길	노동
	16	‘타도’였어요. 연설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_양승조	노동
	17	인천을 넘어 시대 속으로_양재덕	노동
	18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어요_이우재	노동
	19	‘도시봉기’의 현장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다_윤인중	기독교
	20	유인물 배포로 끌려간 대공분실_윤현수	기독교
	21	반성을 먼저 하는 게 순서겠지요_이남희	시민사회
	22	대중을 움직인 건 직선제 개헌이었어요_이민우	기독교
	23	반면교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_이우재	시민사회
	24	‘개헌 현판식 싸움’의 끝에서_이지호·유중순	시민사회

구분	번호	제목	비고
	25	‘5월 3일’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_이해미	대학생
	26	노동운동의 진원지에서 외친 노동자들의 목소리_이현경	노동
	27	민중봉기론에 기초한 민주화운동이예요_장기표	시민사회
	28	함께 모여서 한바탕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_장영달	시민사회
	29	‘기만적인’ 직선제 구호를 뚫고 가두투쟁으로_전희식	노동
	30	‘광주’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투쟁’이었어요_정동근	노동
	31	실패한 집회였어요_정성렬	놀이패
	32	인천5.3민주항쟁의 난장적축제로 민주화운동 열어_최원식	시민사회
	33	저항은 해야하지 않겠어요_호인수	천주교
	34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한 거죠_황선진	시민사회



4. 조사 결과 (SWOT분석)

- 내부 장점(strength)
 -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최초의 구술기록(30주년 기념)
 - 현대 사회운동사 측면에서 인천5.3민주항쟁의 가치 발굴 및 함양
 - 시민사회·노동계·종교계·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사회 계층 반영
 - 구술자의 연혁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증진

- 내부 단점(weakness)
 - - 인천5.3민주항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 및 대중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구술자 확대 필요(단순 참여자, 간접 참여자, 관찰자를 제보자로 확보. 예)자영업자, 주민, 초중고학생, 기자, 외국인 등)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 제기(구술조사의 매뉴얼, 균일한 질문항목, 개인정보 동의 등)
 - - 아카이빙 자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향후 자료 활용의 필요성 제기(구술기록 원본파일의 보관·정리 등)
 - -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빙 필요(개인 소장 사진·음성·영상 및 생활자료(일기·수첩) 등)

- 외부 기회(opportunity) 요인
 - 인천 5.3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
 - 역사 아카이빙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확대
- 외부 위협(threat) 요인
 - 지역사회의 아카이빙 전문인력 부족
 - 정부 및 지자체의 장기적인 예산 지원 부족

5. 향후 과제

- 인천 5.3민주항쟁 구술조사에 대한 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 구술자 대상 확대를 통한 대중성 강화 및 홍보(생활 속 5.3민주항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술조사 필요(구술조사 및 전반적인 아카이빙에 대한 전문성 교육 필요)
-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5.3민주항쟁에 관심 있는 관련분야 청년층 공모)
- 아카이빙 자료 수집 계획 수립 및 보관 공간 확보 등
 - 공모를 통한 수집방안 모색(홍보 및 대중화에 기여)
- 아카이빙 자료 활용 방안 (전시·교육·행사·예술작품 창작 등)
 - 특히 K-Culture와 관련하여 영화·드라마·노래 등 접근 필요
 - 교육 분야는 인천교육청과의 협업 필요함
- 장기적인 예산 지원 대책 필요(정부·지자체·의회 등에 필요성 제기)

6. 자료 아카이빙 관련 양식 체계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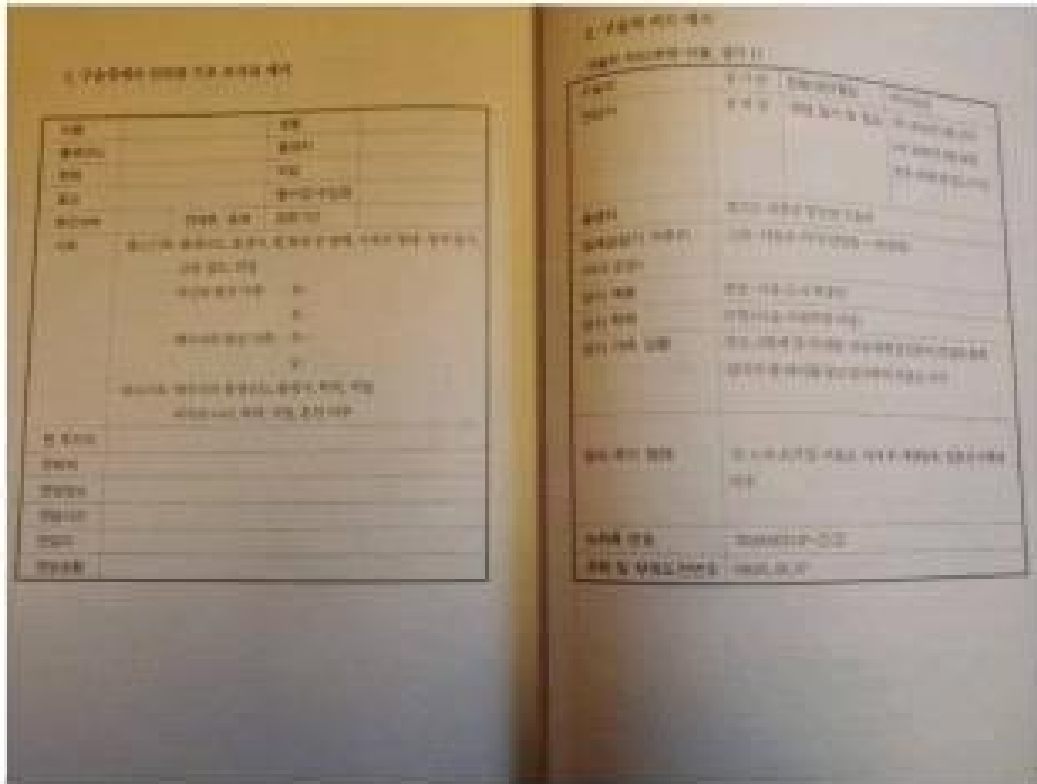
인천 조사 및 전시 현황 검토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인천 5.3 민주항쟁	1. 인천 5.3 민주항쟁	1. 인천 5.3 민주항쟁	1. 인천 5.3 민주항쟁	1. 인천 5.3 민주항쟁
2. 인천 5.3 민주항쟁	2. 인천 5.3 민주항쟁	2. 인천 5.3 민주항쟁	2. 인천 5.3 민주항쟁	2. 인천 5.3 민주항쟁
3. 인천 5.3 민주항쟁	3. 인천 5.3 민주항쟁	3. 인천 5.3 민주항쟁	3. 인천 5.3 민주항쟁	3. 인천 5.3 민주항쟁
4. 인천 5.3 민주항쟁	4. 인천 5.3 민주항쟁	4. 인천 5.3 민주항쟁	4. 인천 5.3 민주항쟁	4. 인천 5.3 민주항쟁
5. 인천 5.3 민주항쟁	5. 인천 5.3 민주항쟁	5. 인천 5.3 민주항쟁	5. 인천 5.3 민주항쟁	5. 인천 5.3 민주항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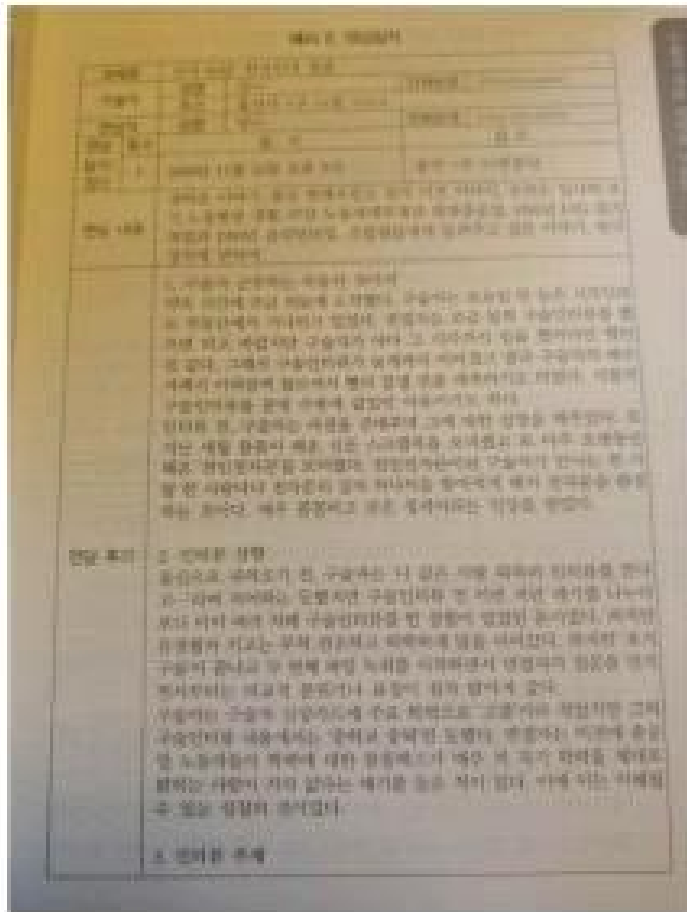
인천 산업화 시기
산업도시
공단노동자

구술생애사 조사 질문지		소장품 조사 질문지	
주제	○○○공당 노동자의 구술생애사라 생애문화	주제	○○○공당 노동자의 구술생애사라 생애문화
해설자	○○○(남/여, ○○세)	해설자	○○○(남/여, ○○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근황, 부모, 형제 - 유년시절 - 중학생 시절 - 고등학교 시절 - 연장에 입학 한 시기 - 연장에 입학 한 계기 - 재학 / 졸업연령 - 1949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년경에 공산적 모습 - 1949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9년경에 서대문 - 입사 시기 - 입사 계기 - 01년 시절들 묻기 - 무엇을 만들었는가? - 만드는 과정 / 내용 - 노동절과(휴대) - 노동절(10년) - 노동과 희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폼(통복-하의), 모자, 장화 등) - 노동과 희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의 품) - 노동과 희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득서, 깎아 찢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환경 - 공장 규모 - 임금 - 노동자구분 - 연공-공적 - 노사관계 - 노동운동 - 임금 - 노동과 육신 - 노동과 연애 - 노동과 기쁨 - 노동과 건강 - 노동과 미가 - 입사시기 - 회사계기 - 연장에서 노동자 시기의 의미 - 연장에서 ○○○공당의 의미 - 회사 후 01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 연장을 위한 마음 -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장 - 수장 - 조거 - 형태 및 구성 - 재질 - 소문자 - 입수시기 - 입수자 - 입수형태(구입, 증여, 제작, 대여, 기증) - 입수경위(구체적으로) - 입수처(구입처, 증여처 등) - 가격 - 상품 - 특징 - 보관처 - 사용처 - 사용시기 - 사용공간 - 사용내용(용도) - 사진 및 정사

제보자 카드



면담일지



면담 개요



인터뷰어 12세

제보자 정보			
이름/성명	000 / 00	본명	정연희
나이	100세(2000년 생, 100)	고향	충청도 예천군
말투	충청지방 농부 소위	학력	고(중)학 불가
봉사경력	남원시농공. 문화강연회 2000년 10월 현신. 2015. 12월. 10월. 10월	가족관계	남편, 2남1녀 3남자 장남 00071(남생) 매노리, 손자남 0세대 과남 00075(남생) 매노리, 손자남(매) 0세대 4세대
연락처	010-000-000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영등포
종교	대일유세 공무관 근무(종교) (1980년-1992년(7년 근무))	현직업	주부, 명예 70000
인터뷰 정보			
일시	2017년 7월 7일 월 11:0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영등포 49-11 해당스위트 A동 104호 해피리 사무실
소질물	-송림중학교 졸업장(1998년) -대한유세에서 공문신용부 받은 내국선, 장남 대(1972년) -유일한직 일(서러러나 송림) 로 기록 해질	특이점	-대한유세 직장동료와 연결됨 대한유세 신용 신용부 로 기록 해질 유일한직 70세로 선배로 해질 1910 1917 1918
조사자	-연정일, 김나라	발행처	-일지(사건), 일지(사건)

주요 소장자료

	소장품	제작(입수)시기	소장자	내용	비고
1	졸업앨범	1959년	이정영 (여, 72세)	송원초등학교 졸업앨범	거증예정
2	가계부	1972년~	·	결혼 이후 기록한 가계부	·
3	배독필	1972년	·	대성목재에서 결혼선물로 받은 배독필	·
4	도마	1972년	·	대성목재에서 결혼선물로 받은 도마	·
5	실	1960년대 이전	·	통일방직 실. 시어머니 유품으로 통일방직 제작 시 구입함	·
6	목재 샘플	1960년대	윤옥걸 (여, 72세)	남편이 대성목재생산부에서 받은 목재 샘플	·

녹취록 정리

- 녹취록 기록 원칙
 1. 말한 사람을 구별하여 기록한다.(조사자/제보자)
 2. 말한 그대로 적는다.(사투리나 말투도 그대로)
 3. 구체적으로 적는다.(편집하지 않는다.)
- 녹취록 기록의 기본 사항
제보자, 조사자, 녹취자, 면담장소, 일자, 시간 등 기재
면담 시 상황 및 느낌들도 구체적으로 적는다.

제보자(출생년도)	제보자	녹취자	면담일시(면담시간)	면담장소
여종익(19**)	안정운	홍길동	2017.3.10.(10:00~13:00)	청송의 집

- 구술기호 및 편집 기호
말줄임표 : 말끝을 흐리거나 침묵할 때
웃음소리 : 하하하 등
- 기록 시 말한 사람 구분 : 제보자와 조사자 구분
예) 조사자 : 안정운 제보자 : 박남수
안 : 인천에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박 : 서울 **동 공장에 있다가 197*년에 취업공고난을 보고...

부록

■ 부록 1: 5.3 참가자 증언 분석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신정길 대우전자 해고자 인노련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노련 해투위 주안 하인천 대표로 참가 -시위용품 5.2일(유인물, 각목, 화염병) 시민회관 주변 상가 건물, 화단에 반입/ 행사 당일에는 리어카를 구해서 김지선 사무국장과 고물상 행색을 한 박래군이 시위용품을 행사장으로 반입 -리어카 개조 집회장 임시연단 만들. -전회식이 연단에 올라가 선동. -시위중 주안역 쪽에서 학생들이 '미제축출 파쇼타도' 구호를 외치며 행진, 인노련 시위대 일부는 '노동해방이지 무슨 미제축출이냐'고 야유를 보냄, 제일 시장 쪽으로 행진한 학생들은 '미제축출 파쇼타도' 구호를 외쳤음 -버스정류장을 스러뜨려 바리케이트 설치 -본래 오후 5시까지 시위계획, 경찰 강제진압으로 주안역으로 철수함 	
양승조 인노련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회관 바라보고 우리는 왼쪽, 민통련은 오른쪽에서...우리는 비타협투쟁한다 했죠. 나도 하여튼 원 없이 싸웠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를 타도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선도투와 정치투쟁에 동의함) 	
양재덕 해태음료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은 인천중심이 아니라 확장된 전국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윤인중 목사 용접공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판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미제축출을 선동하는 자민투 존재 처음 접함 	
윤현수 인천기독청년 협의회(EYC)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회관에서 주안역 거쳐 제물포역으로 이동하며 시위 참가. 일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부평 쪽에도 갔다. -시민회관 앞에 있었는데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쏘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거칠게 진압했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p>던 것 같아요.</p> <p>-5.3 당일 뿌려진 노동3단체명의 유인물 2종 ‘일어서자! 이땅의 일천만 노동자여!’ “가자! 일천만 노동자의 벼락치는 함성으로 천지를 뒤엎는 노동해방의 대열로!’ 건으로 동부서 정보과 연행된후, 구월동 대공분실로 이첩. 유인물 민족인쇄소(?) 인쇄소 대표 만나 미안함을 느낌.</p> <p>-대공분실 3일간 잠안재우기 고문 취조. 구타당하는 소리 들리는 곳에서 공포분위기 속에서 조사</p>	
이남희 민통련 서울지부 조직부장		-서울민통련은 주안1동성당에서 시위준비	인민노련 투쟁부장
이민우 인천도시산선 실무자(‘81년 EYC회장)		<p>-기획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동원에 참가함. 인천 EYC, 산선에서는 총동원하자, 적극참여하자고 논의하고 조퇴투쟁등 동원 방법 제시. 10시부터 시민회관 집결하여 대오형성 참여</p> <p>-최하 1만명 참가. 학생 노동자, 택시 노동자도 교대후 참가 / -직선제 개헌에 시민호응 높았음</p> <p>-주된 구호는 ‘반제 반파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 수립하자’</p> <p>-기노련의 주장은 “삼반정권 타도하고 해방된 민중 세상 건설하자’</p> <p>-시위현장에서 주안역쪽으로 밀려났고, 제물포역으로 이동 집회 종료. 종료후 부평</p>	
이우재 인사연 집행국 장		<p>-5월 2일 인사연이 삼정동 성당에서 준비한 시위용품 은 호인수 신부의 주선으로 주안1동 성당 지하실에다 보관함 (호인수 신부 행사자금 300만원 정도 지원)</p> <p>-12시 5분 성당이동,</p> <p>-12시 30분 플래카드 펼쳐들고 시민회관으로 이동, 인노련도 두명의 여성들이 플래카드 들고 앞에서 이동</p> <p>-전경들이 갑자기 차을 한 대 몰로 시위대 한복판</p>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p>에 기어 들어오고 그래요. 차 놓고 도망가기도 하구요.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저 차는 왜 들어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p> <p>-민통련과 인사연은 가급적 집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현장에서 서노련 측에 집회유지를 제안하기도 함</p> <p>-1시30분 민통련 ‘민주화촉진시민대회’ 개최</p> <p>-곳곳에서 작은 집회가 별도로 열렸고 구호도 제작 각이었다. “전부다 따로따로였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었죠. 인노련 따로, 자민투 따로, 민민투 따로.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만 알 수 있는 거예요.</p> <p>-5.3 마지막 점검은 고잔동 성당에서 했다. 전국에서 모인 민통련 관계자들은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서 만나 성당으로 이동함.</p> <p>-5.3은 반면교사..</p>	
<p>이지호 민통련서울지부 총무부장 유종순 민통련서울지부 문화부장</p>		-	
<p>이현경 아남전기 노동자</p>		<p>-오후 5시 30분경 주안역 담장을 넘다가 연행</p> <p>-전경 숙소에서 50~60명의 여성들 상대로 가혹행위, 무릎을 꿇리고 원산폭격시키거나, 각목으로 구타하고 한 두명의 전경이 교대로 24시간 가혹행위를 계속함.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구타당함</p>	
<p>장기표 민통련 정책실장</p>		<p>-인천에는 당일 시민회관으로 바로 갔죠. 주안성당에는 들어가지 않고....</p>	
<p>장영달</p>		<p>-하루전에 가서 호인수 신부 주선으로 어디서 묵기</p>	<p>10만 군중</p>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p>도 했고..</p> <p>-인천집회를 통해 전두환이 헌법개정을 받아들여도 록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p> <p>-기억에는 10만 이상의 청중이 모였어요.</p>	
전희식 인노련 대외담 담		<p>-5.3 준비중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와 접촉시도, 자민투와는 시도하지 않음. 민통련과도 접촉하지 않음</p> <p>-인노련의 목표는 삼민헌법과 같은 혁명적 구호를 대중화시킨다.</p> <p>-전희식은 수배자로 5.3전날 서울에 도피중</p> <p>-집회한시간 전 도착, 도착하니 시위군중 운집</p> <p>-주안1동성당 앞 설치 연단에서 전희식과 서기화 교대로 연단에 올라가 대중연설과 선동, 석바위쪽 최루탄과 투석 공방전 시작. 제일시장 쪽은 경찰과 싸움 없었음</p> <p>-인노련의 동선은 리어카 이동연단을 중심으로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주안역에 이르는 경로였음</p> <p>-시위후 앰프와 마이크는 한 자영업자에게 맡기고 찾지 못함</p> <p>-학생운동 쪽에서 화염병 총 5천개를 준비하여 동인천 역까지 2~3백미터 간격으로 은닉해두겠다고 알려옴</p>	
정동근 인노련 회원 동보전기 노동 자		<p>-현장 12시 도착 시민회관에 있다가 주안역 이동, 다시 시민회관으로 이동하며 투석전 등에 참가.</p> <p>-인노련은 석바위에 집결하라는 연락 받고 오후8시, 200명 모여 해산집회후 마무리</p> <p>-노동자들이 전격적인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짐</p> <p>-</p>	
정성렬 놀이패 한광대		<p>-인사연 황선진으로부터 5.3 집회 길놀이 주도해줄 것 요청받음. 15명 가량의 풍물패 구성. 만장과 플래카드 등 시위용품 항쟁 전날 주안1동성당에서 별도 준비</p>	
황선진 민중문화운동		<p>-민문협 산하 문화패 소그룹 100명 정도 시위에 참가</p>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협의회 사무국장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인천 문화패 한광대, 인천간전 학생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길놀이패 구성	
호인수 인사연지도위원 당시 주안5동성당 신부		-주안1동성당 박성규 주임신부에게 부탁하여 시위준비 협조함 -항쟁 당일 주안1동성당 사제관에 머물면서 현장 관찰하며 민주인사들과 면담 -5.3항쟁 여파로 1988년 1월, 백령도로 전출	
권오광 인노련		-4.30 투쟁후 5.3투쟁에 대비 세차례 정도 모임을 했어요. 대회 성격에 대해 인노련은 '민중생존권 쟁취와 직선제 쟁취'로 정했어요. -자민투는 무조건 미제축출이 주된 구호였고.. 인천을 해방구로 만든다고 해서 신기촌 사거리에서 경찰청까지 계속 행진하면서 세를 구축해 하나의 해방구처럼 만드는걸 모색했죠. -민민투는 주안사거리와 도화사거리로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수배당해서 5월 8일에 잡혔는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맞았어요. 5개월 수감 생활을 함. 구치소에서 5.3의 성격을 광주항쟁처럼 군부독재에 저항한 '5.3민중항쟁'으로 결정하고 5.3동지회를 구성함.	
김지선 인노련 사무국장		-5.2: 시위용품을 주안1동성당 옆 골목 삼원섬유 동료 노동자였던 임선미 가옥에 은닉함. -5.3: 김지선은 당시 수배중이어서 임선미 가옥에 가서 시위용품 꺼내어 동료들이 리어카로 시위현장으로 옮기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돌아옴	
김진국 인노련 '안개'		-5.3 준비를 위해 서울대 찾아가 김민석과 면담. -인천에서 인노련은 200명 정도가 참가함.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그룹' 조직원. 당시 수배중			
박계동		5.3항쟁후 송도해수욕장에 인사연 관계를 중심으로 20명 정도 모임.	
신순봉 서울민통련 청 년부장		-고잔성당에서 마지막 회의후	
권병기 인사연 사회부 장		-민통련 간부들은 고잔동 성당(호인수 신부)에 숨어 들어가 있었고 -시위용품은 주안1동성당 지하실에 집결 -시위용품 제작은 삼정동성당(이성득 신부) 사무실에서 1주일 정도 제작,	
권오광 인노련 현장총 책		-5.3민중항쟁은 지역에서 운동을 이어가는 전체운동에 새로운 형태였다.... 수도권에서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함께 모여서 군부독재에 항쟁한 사건이었다.	
김수영 연세대 4년		-동인천 최종집결 동선 전달받고 참가 -"80년 이후 이렇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현장에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대의 힘'에 대한 경험이 86년 이후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알의 귀한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지선 인노련 부위원 장 겸 사무국 장		-5.3 전날 주안1동 성당 주변 임선미 가옥에 유인물 등 시위 용품 은닉, 5.3일 오전 시위용품 시위대에 전달 -5.3 직후 임선미 씨 오빠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음	

증언자별	제목	내용	비고
		-김지선은 5.3직후 수배자 검거에 나선 대공과 형사들에게 밤에 산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두건 씌우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집단구타 당하는 등 5시간 넘게 고문당함	
김진국 인노련 회원 삼민동맹 간부		-인천에서만 200명 정도는 동원했을 거예요. 하여튼 인노련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죠. 인노련 할 때 같이 의논하고 움직이고 이랬던 친구들이 79학번들이 많았어요. 서울을 거치면서 저쪽의 대응이 꽤 강경해졌어요.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신민당에서 자체적으로 시민회관 안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막겠다는 식으로 세게 나왔죠. 그 전에는 평화롭게 했죠. '인천에서는 행사두개가따로따로 진행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인천이 잡혔을 때는 저쪽에서도 대대적으로 경찰을 동원했어요. 다른 지역 경찰까지 동원해서 여기는 원천봉쇄한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가두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민통련 집회도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김진국)	
김중성 인노련부장		-경찰이 그런 실제 인노련 조직과는 다르다. -주안1동성당에서 메가폰을 잡고 시위를 시작했다. -5월 3일 신민당의 인천 현판식 일정이 발표된 후 대전행사를 답사하는 등 준비를 했다. -수배자로 확인된 이후 주로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며 서노련 신문 발행에 참여했다.	

■ 부록 2: 「문익환 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 1986.6.19.)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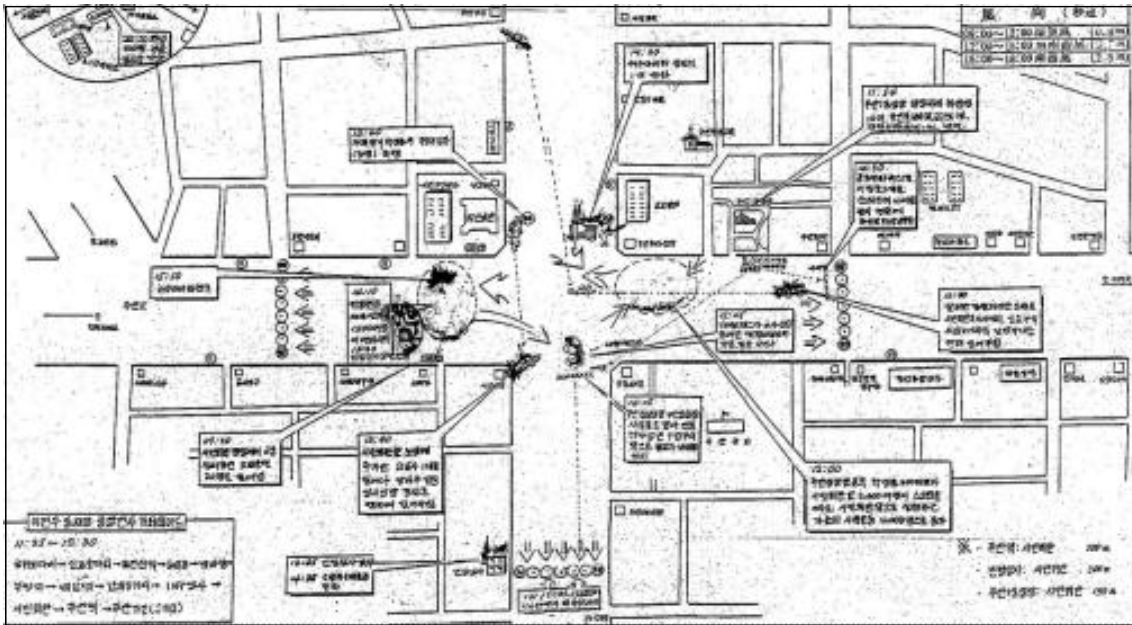
○ 시위 준비

- 5월2일
 - 11:00경 : 홍보국장 박계동, 사무처장 이부영, 대변인 김종철, 총무국 간사 임병주, 이달원에게 인쇄지시한 유인물 각 2만부씩 인쇄하고 『광주는 지금도 계획되고 있다』는 제하의 소책자는 500분, 『민주헌법을 우리 힘으로』 제하의 소책자는 3,000부 인쇄하되, 민통련 보관중 재고분 유인물과 책자 전부 포장해두라고 지시함. 임병주 이달원 중구 을지로2가 소재 세진인쇄소 및 대동인쇄소 인쇄 유인물과 보관중 재고 유인물 총 51,000부를 라면 박스에 포장함

- 5월2일
 - 22:30 박계동은 이달원과 포장한 유인물을 인천 주안 5동 성당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 5월3일
 - 06:00 포장 유인물 주안1동성당으로 옮겨 은닉하여두고
 - 11:00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 편집실장 홍성복 등의 지휘로 민통련 산하단체 20여명 손수레에 확장기와 마이크 앰프 설치함

■ 부록 3: 5.3행사사건 상황도



경기도경

- 09:20 시민회관 광장에서 교통정리중인 모범운전 20명을 밀어냄
- 11:54 주안1동성당 담장에서 화염병 14개, 유인물 교련복 1벌,
- 12:00 주안성당옆골목 학생등 300여명과 시민회관앞 2,0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시민회관쪽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시위군중 4,000명으로 증가
- 13:40: 과격 일부 학생 취재기자 (3명) 폭행
- 14:05 주안1동성당 버스 승강장 시설을 뽑아 민정당사 방면 000쪽으로 밀고가 바리케이트 설치
- 4:10 민통련 등 재야단체 1500여명이 연좌시위
- 13:40 시민회관옆 노상에서 주차한 승용차 1대를 밀어다 방화후 민정당사 방향 경찰을 향하여 밀어 부침

■ 부록 4: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오픈 아카 이브	00522953	선봉 제4호	선전물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 원...	1986.05.13	4	이상철	"미제축출! 파쇼타도!! 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하자!!!" 라는표제하에'인천5.3민중대회' 소식을전하고있다. 이자료에는당일'헌법제정민중회의쟁취를위한민중대 회'가열렸다고적었다. 또한시민회관앞의투쟁상황을 해당조직위치를중심으로시간대별로서술하고있다. 지향', '5월의기류', '인식', 이해', '소식' 등의항목으 로구성되어있으며"개헌과보수대연합"이라는글이실려 있다. 인천5.3항쟁이후군사정권이신민당과'국회내에 서의개헌'이라는'보수대연합'을추진하는것에대해비판 하며, 노동자와농민등민중의참여속에근본적사회변혁 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오픈 아카 이브	00842882	천사협소식 (제2호)	정간물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1986.06.18.	8	한국기독교 사회문 제연구원	
오픈 아카 이브	00882550	여론조사[인 천5.3사태와 관련]		[미상]	1986.00.00	1	(재)전태 일 재단	
오픈 아카 이브	0524670	애국학생들의 분신투쟁정신 계승하여 민 족자주·민중 민주쟁취를	성명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6.05.22.	4		서울대김세진, 이재호, 이동수의사망과'5.3인천항쟁 이후공안탄압상황에서민주화를위한투쟁을독려하는 성명서. 정부가주도하는헌법개정예반대하고, 5.3인 천항쟁을'군부독재에대한무제한의전면투쟁선포'로평 가하고, 광주에대한'학살원흉'과타협할수없음을강조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위한 성전에 총궐기하자!						했다.
오픈 아카 이브	0837672	인천사태의진 상	자료집	신민당개헌추진인천·경기 지부장"인천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장노승환	1986.05.15.	7		신민당이주최한'개헌추진위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및 현판식'에서민통련등운동권단체들이벌인투쟁에대해 공안당국이'용공', '과격', '소요' 등으로탄압하자, 정 권의민주화운동탄압비판이라는차원에서신민당이제 작한보고서. 제작기간도짧고, 진상조사의방법이나내 용면에서다분히'정치적대응'이라고판단된다. 전체적 으로정권이과격시위를유도, 방조한것이라는문제제기 이다.
오픈 아카 이브	0858583	인천민중투쟁 경과보고서	문서(타 자기)	[미상]	[미상]	3		5월3일당일투쟁의경과를시간대별로작성한일지. 시 위대와전경의대치상황을지도로상세히보여주고있다. 민정당사투석전이나신민당승용차방화, 공방전등에대 한설명이상세한편이다.
오픈 아카 이브	0837686	5·3인천시위 구속자 잔혹 고문 및 허 위조사 건	진정서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 동	1986.06.16.	6		인천53항쟁 이후 인천교도소에 수감된 이상명 외 36명의 가족들이 경찰 조사과정과 수감 이후 폭행,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의 행위를 당했음을 고발하 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이들은 6월 7일부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소요죄 적용 철회', '용 공조작 중지' 등을 주장했다. 별첨자료로 1. 호소문 2. 성명서 3. 구속자명단 등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이상명(인하대 4학년)은 이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용주(인하대 3학년 제적)와 함께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 혐의를 받았다. 가족들은 "경찰의 진압작전에 10분도 채 안되어 해산되어 버린 인천 시위가 부마 사태와 광주사태와 어떻게 같다는 것입니까"라고 항변했다. 성명서에는 고문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픈 아카 이브	0413404	인사연운동론 의정립을위하 여(Ⅱ)	문서(타 자기)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	10		인천5.3항쟁 이후 운동권 내부의 노선 논쟁이 활발해 지자 인사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동론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내용 중에는 인사연이 반군사독재민주화투쟁 속에서 ‘미일외세의 반민족적 반민족적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해내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대목이 있다. 하반기 헌법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민중의 힘으로 군사독재 타도’, ‘민중의 힘으로 민주헌법 제정’ 등이 슬로건으로 제시되었고, ‘헌법 제정 민중회의’를 장기적인 선전 슬로건으로 대중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념적 경향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픈 아카 이브	0859077	이돈명 변호 사 구속사건 변론요지서	자료집	김제형 변호사 등 변호인 단	1986.12.00.	32		인천5.3항쟁 이후 수배를 받게 된 민통련 이부영 사무처장을 이돈명 변호사가 숨겨준 것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과 범죄은닉죄를 적용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반박 논리를 정리한 자료이다. 2장 1절에 ‘5.3인천사태’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및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성격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변호인단은 민통련이 용공좌경성향의 급진단체가 아니라는 점과, '인천사태'를 계획하고 주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인천사태'에 대해서는 신민당이 주장하는 '오히려 정부가 조직적 대퇴 방해 및 민주화운동 탄압'이라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폭력시위나 급진적 구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 체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사회 명사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오픈 아카 이브	0916088	보도지침(5월 3일)	메모(필 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1986.05.03.	1	민주언론 시민연합	인천개헌현판식 시위 관련 기사를 다룰 때의 편집 지침. 1. 머릿기사는 한.영 정상회담으로 하고, 시위 기사는 사회면 톱이나 중간으로 할 것. 2. 기사 내용의 방향은 '학생.근로자들의 시위'로 하지 말고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의 시위'로 할 것. 폭동에 가까운 격렬 시위인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룰 것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픈 아카 이브	0916089	보도지침(5월 5일)	메모(필 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1986.05.05.	1	민주언론 시민연합	서울대 분신 사방 학생 장례식 주변 스케치 하지 말고, 인천 시위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 개입이 과격 데모 유발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이다.
오픈 아카	0916095	보도지침(5월 15일)	메모(필 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1986.05.15.	2	민주언론 시민연합	광주사태(5.18) 관계 보도 지침과 김수환 추기경 대담 내용 작게 보도하라는 지침, 신민당의 인천사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이브								태 보도는 치안당국 발표 내용과 균형있게 보도하라는 내용의 지침이다.
오픈 아카 이브	0916098	보도지침(5월 19일)	메모(필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1986.05.19.	1	민주언론 시민연합	대검찰청 인천사태 조사 발표를 사회면 톱 또는 1면 사이드 톱으로 눈에 띄게 크게 보도하라는 지침.
오픈 아카 이브	0916103	보도지침(5월 26일)	메모(필사)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	1986.05.26.	1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픈 아카 이브	085979	5.3인천민중 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선전문	서울노동운동연합	1986.5.26.	2		서노련은 5.3투쟁에서 '정당하고 민주적인 평화적 민중집회'에 대해 '적들'이 '무자비한 무장폭력과 선제공격으로 살인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권이 서노련을 5.3투쟁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활동가 14명을 강제 납치하여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신민당에 대해서는 군사독재 정권과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서노련이 주장하는 '삼민헌법'을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오픈 아카 이브	084955	[탄원서와호 소문묶음]	탄원서, 호소문	[구속자 가족들]		17		구속자의 가족들이 자필로 적은 탄원서와 호소문. 구속자 이름과 담당 형사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있기도 하다.
오픈 아카	0105353	15. 5.3 인천 시위 사건	자료집 일부	[미상]	[미상]	3		빨간 펜으로 교정교열을 본 문서임. 어떤 자료집 중에 5.3항쟁 부분만 복사를 한 것임. 이 내용은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이브								신민당이 작성한 ‘인천사태 고문 보고서’ 내용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전체 자료집은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자료집으로 추정됨. 해당 내용의 쪽수는 49~51. 한휘석, 이상명, 왕주연, 온태희 등의 피해 사례가 나옴.
오픈아카이브	0117511	5.3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자료(타자)	[미상]	[1986.06.00.]	2		이 문건은 독재정권의 운동권 탄압과 5.3투쟁에 대한 악선전을 비판하면서 투쟁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있다. 즉 운동권의 투쟁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점,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전 민중적 차원에서 ‘반제 반과쇼’ 투쟁을 벌일 통일전선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적극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반성적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전 투쟁과의 연결이나, 이후 투쟁과의 연결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다.
오픈아카이브	0859214	격동하는 '86 정세, 민중과 '보수대연합'의 갈등	자료집 일부	[미상]	[1986.00.00]	3		운동진영의 발간물의 일부(13쪽~14쪽). 내용 중간에 “미국의 대한 정책과 5.3시위 이후의 ‘대타협’ 국면”이라는 항목이 있고, 전후로 1986년 정치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이 적혀 있다.
오픈아카이브	0125770	오월이여! 활화산 광주여! 전진하여 승리하라!!	자료집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	1986.04.00	16		1986년 3월 30일 신민당 개헌추진 지역본부 결성대회와 현판식이 전라북도 광주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료집은 화보, 투쟁일지, 군사독재퇴진운동선언, 신문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민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청련은 이날 약 3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고,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다시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에 크게 고무되었다. 선언문에서 민중운동진영은 광주대회를 계기로 군사독재 퇴진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픈 아카이브	0056579	민중의소리 (화보특집)	선전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10.	2		민통련에서 발간하는 선전물. 5.3인천항쟁 직후에 발간된 ‘화보특집’호이다. 인천대회와 청주대회, 대구대회 등 사진을 실었고, 2면에는 학생, 농민 등의 투쟁과 죽음에 대한 소식을 실었다.
오픈 아카이브	0056849	[“자민투”와 “민민투” 비 교분석개요]	자료(타 자)	[미상]	[미상]	2		1986년학생운동권내대표적인투쟁과였던자민투와민민투에대해비교한표이다. 양진영이바라보는한국사회의성격, 변혁이념, 투쟁노선을정리했고, 2면에는'혁명론' 다섯가지를비교한표를구성해놓았다.
오픈 아카이브	172161	인천의소리 (12호)	선전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7.02.	2		5.3항쟁이후경찰의폭력과고문을자행하고있음을고발하고있다. 2면에서는인천교도소에서5.3 인천시위구속자들이단식항의농성을벌인소식과민통련관계자50여명과, 인사연활동가들에대한탄압을규탄하는글이실려있다.
오픈 아카이브	199365	인천의소리 (10호)	선전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4.30.	4		민중투쟁특보'로발간되었다. 신민당개헌헌관식관련한광주과대구대회에대해약도와사진을포함하여시간대별로상세히전달하고있다.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오픈 아카 이브	301166	인천의소리 (13호)	선전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7.25.	2		5.3항쟁이후부천경찰서문귀동성고문사건이발생했다. 민주화운동진영은'폭력정권, 강간정권'이라고비판하며투쟁대회를개최한내용과, 사건의개요를담고있다. 또한신호수의문사문제와인천5.3투쟁으로재판을받는구속자37명이재판거부투쟁을벌인소식등이담겨있다.
오픈 아카 이브	361484	인천의소리 (11호)	선전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5.16.	2		민중투쟁특보'로발행되었다. 주로인천5.3항쟁소식을전하고있다. 경찰이폭력사태를유도했다는주장과, '반미'를용공으로몰아세울수없다는주장, 신민당이각성해야한다는주장등이담겨있다.
오픈 아카 이브	412845	인천지역사회 운동연합창립 25주년기념 및제3차정기 총회	자료집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1986.00.00.	15		정기총회개최일은9월27일로표기되어있다. 이자료집은인사연활동보고, 인사연운동의반성과과제, 정세보고, 결의문채택등으로구성되어있다. 1986년1월부터3월까지를'민주헌법쟁취투쟁의확산기'로보고, 3월30일부터5월3일까지를'민주헌법쟁취투쟁의고양기'로보고있다. 그리고5.3항쟁이후를'현정권장기집권노골화와민중민주화운동에대한탄압저지투쟁기'라고규정하고있다.
오픈 아카 이브	413411	[인사연활동 정리]	자료(타 자)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8		인사연의활동에대해간략히정리한자료이다. 이중에서5.3민주항쟁에대해서1986년3.30 광주민중투쟁에서시작해대구, 대전에서전개된민헌쟁투가군사독재타도를위한국민총궐기투쟁의시기라고판단하고, 인사연이5월3일신민당인천개헌현판식에서대규모대중투쟁을

소장처	등록번호 (관리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설명
								준비했다. 하지만5.3인천투쟁은운동권의분열로인해 타지방에서만큼대중적인투쟁으로발전하지못했고, 이호용, 이우재, 홍성복등이수배됨으로써중대한역량의 손실을입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1987년4월에민천지역민중운동연합건설을제기했다고한다.
오픈 아카이브	530080	[자민투, 기독교청년학생, 민청련운동노선정리]	자료(타자)			17		1. 자민투의입장에대해서선전물인'해방선언' 각호를기초로정리하였다. 2. 기독교청년학생조직의입장에대해서정리하였다. 3. 민청련의입장에대해정리하였다.
오픈 아카이브	879157	민주강원(제2호)	선전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지부	1986.05.23.	4		5.3항쟁의사진을전면에내세우고"5.3인천민중투쟁은민중민주화운동에획기적인분기점을마련함"이라는표제를달고소식을전하고있다.
오픈 아카이브	83261	개헌투쟁과민중생존권	자료	한국노동복지협의회	1986.07.00.	6		민주노동(17호)' 총32쪽자료중에서5.3항쟁관련일부(4~8쪽, 27쪽)만추린파일이다. 이자료에는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대표들이모여토론한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여기에는개헌과관련되어미국, 정권, 신민당, 각단체등의입장을정리하고, 개헌투쟁의방향과과제등을제시하고있다. 27쪽에는5.3항쟁이후민통련등에대한탄압상황을알리고있다.

■ 부록 5: 자료종합(인천5.3기초조사자료생산주체별 시간대별 사건구성)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08:00-09:1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30여명 [상황] -옥외확성기8개설치 -(시민회관2층,창가전면4개,동쪽방향으로4개) -플래카드게시14매게시 -(장내6,장외8)					
9:10-09:20	[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50여명, 구경꾼 30여 명, 도합 130여명 [상황] ○대회장상황 -“민주천하지대본”등내용의만장30개 -(대형5개,소형25개) -피켓100여개(개헌구호등) -(시민회관앞계단및광장에놓아둠)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안내방송실시 -(내용) -여기는신민당개헌추진지부결성대회장입니다. -개헌구호방송</p> <p>○서명대설치3개 -(시민회관계단및광장)</p> <p>○국회의원도착 -명화섭의원등당직자20여명</p>					
9:20	<p>[인원] 장내 50여명, 장외 당원 60여명, 구경꾼 40여명, 도합 150여명</p> <p>[상황]</p> <p>○09:20경명화섭의원등당직자20여명(청년당원)이 질서유지를위해배치된모범운전자노열부등30여명에 게옥설을하며시민회관광장밖으로몰아냄.</p>	<p>○ 09:20경 주최측 당원 20여명이 대회장 부근에서 교통정리중인 모범운전자들을 밀어내었고 이어서 시민회관앞 횡단보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중인 정복 경찰관</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09:30경시민회관앞횡단보도등에서질서유지를위 해배치된정북경찰관에게당원60여명이몰려와“개새 끼들몰러가라”며밀어부쳐시민회관동쪽건너편교보 빌딩앞으로이동함.	에게 청년당원 60여명이 「xxx들 몰러가라」 며 밀 어부쳐 교보빌딩앞으로 이동				
09:30-10:00	[인원] 장내 60여명, 장외당원 100여명, 구경꾼 100여명, 도합 260여명 [상황] ○09:37경시민회관앞으로밀려난모범운전자들이다 시시민회관앞도로중앙선상에일렬로도열배치근무에 당하자청년당원20여명과평화협의회원이재차“행사장 으로부터2키로미터밖으로물러나라.너희는정보요원 이위장한것이다”라며청년당원들이노열부외2명에게 “야쌍놈의새끼야왜여기는왔느냐”고욕설을하며먹살 을잡고구두발로정강이,엉덩이등을차면서밀어부쳐몰 아냄. ○10:00경옥외방송을통해“행사장주변에있는정,사복	○ 10:00경 행사장 옥외 방송을 통하여 「경찰관은 행사장으로부터 2km 밖 으로 물러가나 이를 이행 치 않으면 어떠한 불상사 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 다」 고 계속 방송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경찰과정보형사는현재시간으로현위치에서2키로미 터밖으로물러가라이들이행치않아생기는불상사는책 임지지않겠다”고언동 ○10:00플래카드게시7개 (시민회관앞차도변)					
10:00-10:30	[인원] 장내70여명, 장외당원 60여명, 구경꾼 150 여명, 도합 280여명 [상황] ○10:30경주최측에서옥외방송을통해“제물포역,주안 역에서전투경찰이본행사에참여중인시민들을연행하 고있으니주변에계신분들은시민회관광장으로모여대 처하자”고하여					
10:30-11:00	○ 10:40경 당원 100여명이 도보로는 주안역, 봉	○ 10:40경 주최측에서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고차 편으로는 제물포역 지원차 분산 출발</p> <p>○10:45경독재타도개헌서명이란스티카와당기를부착한승용차20여대가시민회관을출발주안4거리방면으로진행하며행사안내가두방송하면서김영삼,이민우등영접차출발</p>	<p>는 행사장앞에 모여있는 당원 100여명에게 방송을 통해 「경찰에서 주안역과 제물포역에 도착하는 당원들을 연행하고 있으니 대처하자」 고 하여 봉고차로 제물포역에 40여명, 주안역에 도보로 50여명이 와서 경찰의 검문검색을 향의</p>				
11:00-11:30	<p>[인원] 장내 70여명, 장외 당원 50여명, 구경꾼 200여명, 도합 770여명</p> <p>[상황]</p> <p>○11:17김영삼,이민우등일행차량3대,시외버스터미널 도착,명화섭의원등당원100여명의환영을받은후</p> <p>○11:25차량47대로명화섭의원을선두로승의로타리-</p>	<p>○ 11:15경 대회장 옥외 방송을 통해 "시민회관 앞 상가를 시에서 모두 철시케하여 상업활동도 못하게 하고 있다" "당국에서 음과 양으로 대회 방해공작을 펴고 있으니</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신흥로타리-동인천역-송림동-백마장-부평역-백운역-간석5거리-1지구당사-시민회관-주안역경유 12:30주안가든도착중식.</p>	<p>당원들은 잘 감시해 달라 "는 등의 방송 계속</p> <p>○11:17경이민우총재일행 승용차15대가인천시외버스터미널앞에도착,환영나온100여명의당원과함께 47대차량으로시내일원카퍼레이드</p>				
11:30-12:00	<p>[인원] 장내 700여명, 장외 당원300 학생 등 기타 600여명, 도합 600여명</p> <p>[상황]</p> <p>○11:30경행사장광장에400여명이집결입장코저하였으나주최측에서12:00부터입장시키겠다고제지.</p>	<p>○ 11:54경 대회장인 시민회관에서 100여m 상거한 주안1동 성당앞에서 경찰 김문조에 의해 "화염병 14개, 유인물 600</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11:45옥외마이크를통해 -식장안과밖에서북경찰관이배치되어음과양으로방 해공작을펴고있으니철저하게감시바란다. -시민회관앞상가를시청에서도모두철거를요구하여상 인들의상업행위마저규제받고있다.</p> <p>○11:40부터당원입장시작,12:00현재당원500여명입 장함.</p> <p>○11:54경행사장부근(100미터상가)천주교주안1동성 당담장뒤에화염병14개,유인물600매,교련복1개,개헌 서명원부1권이놓여있는것을발견,동부서일반중대2소 대검문조에서회수(의경권오성)</p> <p>○11:55주최측에서옥내외방송으로“광주학살자행한 000군사독재타도하고민주헌법쟁취하자”등7건구호 방송.(남녀교대혼성방송)</p>	<p>여매, 대학교련복 1착" 등을 수거</p> <p>○이때대회장옥외확성기 에서는남녀가교대로"광주 학살자행한군사독재정권 타도,군사독재몰아내어민 주헌법쟁취하자"등구호방 송 계속</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11:55경부터시민회관광장에대기중이던근로자퐁6명이(여자2,남자4)인천지역구속자가족협의회명의로된“구속자석방쟁취”내용의플래카드를들고시위준비-노동자사회복지연합회명의로된“구속자석방을쟁취하자”라는플래카드를근로자퐁10여명이들고시민회관광장에모여연좌</p> <p>-민헌연200여명이“김대중선생등민주인사사면복권하라”는등플래카드7개를들고“타도”라는구호를외치며주안역방향에서차도로시민회관광장에도착.</p>					
12:00-12:30	<p>[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4,000여명, 구경꾼 2,000여명, 도합 8,000여명</p> <p>[상황]</p> <p>○12:00경학생퐁300여명이주안1동성당옆골목에서, 다른학생퐁200여명은시민회관건너편골목에서각각다른형태로대형을형성하고플래카드를앞세우고구호를외치면서갑자기출현하자행사장부근에모여있던학</p>	<p>○ 12:00경 주안1동성당에 민통련회원 등 200여명이 집결, 프랑카드를 앞세운 대열속에 확성기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나와 시민회관 건너편 골목에서 나온 학생퐁 300여명과 합류, 구호를 외</p>	<p>○ 12:00경부터 학생등 2,000여명이 인천 시민회관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개시한 후 시간이 흐르자 4,000여명으로 증가하고 교통마비</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생품2,000여명이일시애가세스크램을짜고“미제축출,파쇼타도,민주헌법쟁취,독재정권타도,신민당은각성하라”는구호를외치며다량의유인물을살포하면서주안역쪽으로진출타가되돌아시민회관앞으로진행되는가운데시위군중이4,000여명으로증가</p>	<p>치며 대회장앞으로 왔을 때 주변에 산재해 있던 문제단체회원 등 학생품 2,000여명으로 증가되어 대열을 갖춘후 시민회관 앞에서 스크램을 짜고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미일외세 물러가라, 민중정권 수립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왔다갔다하면서 시위</p> <p>○거의같은시각에이와는 별개로주안역앞에서300여명의시위군중이20여매의플래카드를들고 「인천을</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해방구로」라는등의각종유인물을살포하면서대회장쪽으로다가설무렵대회장주변및도로변에앉아있던학생풍젊은이들이가세4,000여명으로불어나면서"미일의세물아내고민중정권수립하자,속지말자신민당,몰아내자양키놈,기만술수일삼는신민당을민지말자"등의플래카드와피켓등을들고 「미제파쇼타도」등구호와 「철천지원수미제와그앞잡이깡패적반동정권의심장부에해방의칼을꽂자」 는유인물을살포하면서시민회관로타리에연좌시위</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2:30-13:00						
13:00-13:30	<p>[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일 반 4,000, 도합 12,000여명</p> <p>[상황]</p> <p>○13:05경민통련재야단체200여명이시민회관동쪽차 도에서집결연좌시위하면서“독재타도”등구호제창하 고리어카에스피카4대장착,시위선동하여시위꾼 3,000여명이가세연좌시위.</p> <p>○13:15시위군중2,000여명이스크램을짜고민정당사 (시민회관과200미터)로뛰어가면서갑자기당사에투 석,동건물전면2,3층유리창을완전파손(20매)시킨후 계속셔터를부수고당사내진입을시도하므로당사내 에들어간경비경찰관이당사옥상에올라가휴대용사과 탄을투척하자시위군중이다시시민회관앞으로돌아와 시위를계속</p>	<p>○ 13:15경 시위군중 2,000여명이 스크램을 짜고 시민회관에서 200m 상거한 민정당 인 천1지구당사 앞으로 돌진 하면서 투석 2층 유리창 을 파손 (경찰 최동헌 등 7명 부상)</p> <p>○일시시민회관로타리쪽 으로돌아갔던시위군중 2,000여명이다시돌과보 도부력등을투척하며민정 당사로몰려와쇠파이프등 으로부수고당사내로진입 시도</p>	<p>○ 13:15경 학생등 2,000여명이 민정당 인 천 제1지구 당사등에 투 석, 2·3층 유리창 20여 매를 파손한 후 당사내 진입 시도</p> <p>○13:26경경찰이최루탄 (사과탄)5발투척</p> <p>○13:35경학생등2,000여 명이화염병10여개를위민 정당사에투척하여건물일 부를소실하고,진압경찰을 향해돌과화염병을무차별 투척하여경찰관6명부상</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민정당사경비인력:이주1개소대 내부: 3개 분대 차량: 1개 분대 정문: 3명, 첩문샷다 내리고 안으로 피신 -교통전면차단 -여주소대사과탄5발발사 ○13:20여주경비과장지원요청 -수도사업소에상황대기중이던수원시장부대민정당사상황진압을위해기동1,5,8서울13동4개중대출동(기동5중대선발)	※이때대치중인경찰은자구행위로최루탄(사과탄)투척격퇴	○13:40경학생등일부가취재기자등을폭행하고,시민회관앞노상에주차한신민당깃발을단레코드승용차1대(신민당원김노진소유)를밀어다민정당사방향으로세워놓고방화 ○13:50경시위가과격해지자경찰이최루탄발사			
13:30-14:00	○ 13:35경 이들 시위군중 2,000여명이 다시 민정당사 쪽으로 몰려가서 당사를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져 집기류가 나면서 잠시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시위군중은 다시 진압경찰을 향하여 돌	○ 13:35경 주최측에서 옥외확성기를 통하여 금일 10:00경 김대중 선생이 동교동 자택에서 출발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과 화염병을 던져 순경 최동현 등 6명이 돌과 화염병에 맞아 부상과 화상을 입음. -기동5중대신축공사장옆골목도착시위군중과대치</p> <p>○13:35경주최측에서방송을통해김대중선생이X인고쳐10:00경자택을출발하여하였으나500여경찰이저지하였다고방송. -성명불상자가장내에서전화로김대중에게“현재인파는10만정도이고시민들이계속몰려오고있다.학생20,000여명이참여중인바경찰이가스탄으로시위를진압코져한다.학생중시위주도하는자는이우재와홍석복이다”라고상황보고.</p> <p>○13:40경과격일부학생중시위군중일부가취재기자연합이00서울왕00를폭행하고시민회관앞노상에서주차한신민당깃발을단레코드승용차1대를밀어다민정당사방향으로세워놓고방화000소유자(김노진,당원)불이불자경찰을향하여밀었음.(소방차2대가출동진화</p>	<p>하러 하였으나 500여명의 경찰이 저지하였다고 방송</p> <p>○13:35경시위군중2,000여명은대한생명빌딩앞차도에서잠시연좌타가다시민정당사앞으로몰려가더욱거세고난폭하게돌과화염병10여개를계속투척하여당사2층에서불길이솟기시작진압과정에서화염병과돌에맞아일경장화권등12부상</p> <p>※소방대2대가시위대의극렬한투석저항으로접근치못하다가14:35경진화</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하여하였으나시위대가소방차를탈취하려고하여접근 치못하고돌아감)</p> <p>○13:45과격한상태가계속되어최루탄을발사일단저 지 -수원서장지휘기동5중대발사</p> <p>○13:45경주안역방면으로행사장쪽으로이민우총재, 김영삼,당지도부등300여명이대형태극기를앞세우고 행사장에입장코저진행.</p> <p>○13:50후속3개중대가도착(기동1,8,서울13) -기동5중대와합동작전전개와동시최루탄발사시민회 관방향으로100미터가량밀어붙임</p>	<p>○13:40경 시민회관앞시위군중중 200여명이행사장부근도 로변에세워둔신민당기와 개헌스티카등이부착된레 코드승용차(신민당원김노 진소유)1대를경찰바리케 이트가설치된시민약국앞 까지밀고나와서화염병을 던져방화전소시켰고시민 회관앞김광덕정형외과건 물에투석유리창10여매파 손</p> <p>근로자풍200여명은시민 회관앞에서"미제와그꼴만 이들이룩게하는모든것을</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때려부수자""미제의상징 인거만한맥아더동상을까 부수자"는내용의 「근로자 해방동맹」 명의로된유인물 2,000여매를살포하며시 위</p> <p>학생풍800여명이코밑에 치약을바르고마스크를쓰 고는행사장앞로타리에서 스크램을짜고각목등을들 고시위하면서진압경찰에 게화염병및동등을투척</p> <p>일부시위현장을취재하던 내외신기자50여명중연합 통신김남기기자,서울신문 왕상관기자,성명불상KBS</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기자등3명이과격시위학생 10여명으로부터필름등을 빼앗기고집단구타를당하 는등시위격렬화 ※진압부대최루탄(SY44 탄)발사진압				
14:00-14:30	[인원] 장내 2,000여명, 장외 시위군중 6,000, 구 경꾼 4,000, 도합 12,000여명 [상황] ○14:00시위군중세력해후부대100미터가량후퇴 (민정당사로부터신기4거리방면50미터지점)부대정 비, 상황대비 ○14:05시위군중일부가시민회관에서자체소방호수 를끌어내어물을뿌리는한편주안역버스승강장시설물 을뺏아쓰러트려민정당사방향에있는진압부대쪽으로 밀고감.	○ 14:00-14:17경 이민우 총재등이 대회장에 입장 하려 할때 「속지말자 신 민당」 이란 플래카드를 든 일부 시위군중들은 "군부 독재와 타협하는 신민당 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 호를 합창하면서 가로 막 아 입장치 못하고 14:17 경 대회장 입장을 포기한 채 당원 등 400여명과	○ 14:00경 신민당 이민 우총재, 김영삼 고문 등 이 대회장에 입장하려 하 였으나 속지말자 신민당 이란 플래카드를 든 일부 시위군중의 저지로 입장 치 못하고 14:17경 현관 식장으로 퇴거 ○14:30경학생등200여명 이행사장부근공중전화박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14:10경민통련등시위군중1,500여명이시민회관앞 차도에서연좌한가운데민통련사회국장조준구가선동 "000독재정권타도"등구호제창후민정당사방면으로 투석시위와동시민정당사에돌500여개,화염병80여개 투척화재발생 -여주소대사과탄15발발사(민정당옥상) -수원서장부대대치</p> <p>○14:15경이민우총재등당지도부30여명이도보행진 으로시민회관부근성심의원앞노상(행사장과약150미터상거)에이르렀으나시위군중들이"신민당은각성하라"면서시민회관입구에서입장을저지일시주안가든 쪽으로되돌아왔다가잠시후재입장을시도하였으나역 시저지당하여입장치못함.</p> <p>○14:20경주최측에서는방송으로"근로자학생여러분 금일행사는꼭치우러져야합니다.이총재등당직자들이</p>	<p>같이 주안역 앞을 거쳐 현관식 장소인 1지구당사로 되돌아감</p> <p>○14:05경시위군중일부가 시민회관에설치된소방호 스텔 끌어내대회장입구등 주변에물을뿌렸고주안성 당앞버스승강장시설물을 쓰러뜨려민정당사방향으 로밀고가면서진압부대를 향해화염병과돌을무차별 투척</p> <p>※자제하여치안유지에 협 조해줄것을방송하면서최 루탄을발사치않고시위군 중과대치</p>	<p>스1개,이정표2개를쓰러뜨 러바리케이트를쳐놓고경 찰에투석및화염병투척</p> <p>○14:30경시민회관앞동쪽 차도에서학생등1,000여명 이성조기를불태우고반미 구호등을외치며경찰에투 석시위</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들어올수있도록협조바란다"는방송을함.</p> <p>○14:20경시민회관앞차도에서는학생등(민통 련)1,500여명이뺑가리를치고노래를부르며연좌시위, 분위기고조</p>	<p>○14:20경시민회관앞과주 안성당앞간을오가며차도 에서민통련회원100여명 의선두로1,500여명이뺑과 리를치며유인물배포,화염 병투척</p> <p>○14:25경이민우총재등 200여명은신민인천1지구 당사에서행사강행여부를 협의후지구당사옥외방송 을통해서"금일행사는꼭치 루어야한다","이민우가입 장할수있도록협조해달라 ","법질서를지켜달라"고호 소</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4:25경민통령정책연구 실장장기표등이민통련회 원들앞에서 「구속자석방」 등구호를외치면서시위주 도				
14:30-15:00	○ 14:30 민정당 방향 수원서장 부대 시위군중 1500여명 시민회관 방향 150미터가량 밀어붙임 -소방차5대민정당사화재진화 ○14:30시위군중일부극렬학생등200여명이행사장부 근주안1동성당(130미터)앞에있는공중전화박스1개. 이정표2개를쓰러뜨려바리케이트를쳐놓고경찰에투 석및화염병투척. ○14:30이민우,김영삼,당지도부,국회의원등300여명	○ 14:30경 주안국민학 교 앞에서 시위학생 200 여명은 시내버스 대형안 내판과 공중전화 박스 1 개씩을 쓰러뜨려 바리케 이트를 쳐 놓고 돌과 화 염병 등을 다량 투척 시민회관동편교보빌딩앞 차도상에서민통련회원등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이태극기를앞세우고도보로신민당사앞에도착</p> <p>○14:30시민회관동쪽차도상교보빌딩앞에서허수아비와성조기를불태우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핵무기를철수하라 -미일의세물러가라 -생활임금인상하라 -군부독재파쇼물러가라는구호를외침. <p>○14:35경시위군중200여명이시민회관건너편인도의 보도블럭을깨어진압부대에투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서장부대배치(석암4거리방향) -수원서장부대배치(민정당사방향) <p>○14:50신민당사에서이민우총재등당지도부와주최측의명화섭의원등국회의원20여명이대책회의실시</p>	<p>1,000여명은 「속지말자신민당」 이란플래카드등을들고군부독재허수아비와대형성조기를불태우며"미국은핵무기를철수하라","미일의세물러가라"는등의구호를외치면서신기촌방향으로진행타가저지당하자다시시민회관로타리로되돌아왔으며이때민민투(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학생들이합세하여"김대중김영삼에의한개헌운동중지하라","미일자본축출하자","미제국주의자들심장에칼을꽂자","인천을해방구로","헌법제정민중의회소집하자"는등의과</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격구호와유인물등이난무 하였고근로자및일부민통 령회원100여명은리어카 위에확성기를설치하고이 리저리끌고다니며구호제 창</p> <p>※진압부대에서최루탄발 사신기존방향진출저지</p> <p>○14:32경시민회관앞로타 리에서시위군중을민통련 정동년이주도</p>				
15:00-15:30	<p>[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5,000, 구경꾼 2,000, 도합 9,000여명</p> <p>[상황]</p> <p>○15:00경학생풍시위군중1,000여명이민정당사방면 으로진출하려는것을화학탄을발사저지</p>	<p>○ 15:00경 인천시장이 전화로 안동선 의원에게 「더 지체하지 말고 대회를 빨리 열도록 해달라」 고 촉구하자 안동선 의원</p>	<p>○ 15:20경 신민당 주최 측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회를 강행하기로 한다"고 방송하였으나, 시위군중 계속 투석</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수원서장부대와해분산작전전개</p> <p>○15:10노승환,이택돈,박왕식,명화섭,유제언의원등 이시민회관에입장키위해도착하였으나시위군중에의 해지지당하고다시당사로되돌아와“경찰의악랄한방 해와학생들의무분별한폭력적망동으로신민당행사는 무산되었다.잠시후성명서를발표하겠다”고방송한편 행사장에서는노승환지부장이“경찰책임자를만나서 경찰의최루탄발사등방해공작으로행사가중단된것을 규탄하고예정대로행사를속개토록하겠다”고방송.</p> <p>○15:20경당사에서“어떠한일이있더라도시민회관에 서대회를금일중개최하기로결정하겠다”고방송당시 지구당사앞도로에서는당원300여명이연좌</p>	<p>은 「내가 결정할 일이 못된다 이총재 및 김영삼 고문과 협의한 후에 연락 하겠다」 며 전화를 끊었고</p> <p>○15:10경지구당사확성기 를통해다음과같이방송 "경찰의방해와학생들의무 분별한폭력적망동으로행 사는무산되었다"</p> <p>"잠시후성명을발표하겠다 "</p> <p>○15:20경노승환지부장등 이행사장부근에왔다가시 위대가길을비키지않아입 장치못하고당사로되돌아 감</p>	<p>○15:45경학생등일부가경 찰차량을포위하고경찰관 들을각목등으로폭행하여 경찰관3명이부상</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인천시장은다시15:25경 부시장을직접신민당인천1 지구당사에보내대회개최 를요구하였으나노승환지 부장은 「깨스때문에못하겠 다」 고회답				
15:30-16:00	○ 15:30경 시위군중 1,000여명이 시민회관 광장 에서 북과 팽가리를 치며 “김영삼, 김대중에 의한 개헌운동 중지하라”고 구호제창하고 진압부대에 투석하면서 스크램을 짜고 민정당사 방면으로 진 행. ○15:35관할인천동부서장이경찰국장과함께신민당 사를찾아가동부서장이위원장과면담을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15:30경 행사장 앞 광장에서는 민통련 및 학 생 등 2,000여명이 팽과 리와 북을 치면서 "광주학살책임지고미국은 물러가라","군부독재타도 하고민주정권수립하자"," 김영삼과김대중이별이고 있는개헌운동중지하라"는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15:40경안기부분실장이석암파출소직원을통하여 10분후에인근석암파출소(당사와400미터상거)에서 만나자고요청(메모지)하였으나만날필요없다고거절 당함.</p> <p>○15:45경시위군중이계속하여진압부대에투석및화염병투척등시위가점차극렬화되는등시위가더욱악화되므로이를진압고저진압차량을앞세우고시민회관4거리부근에전진하였을때군중이진압차량을포위등차량에탑승한전경들을각목등으로무차별폭행전경1명이 가스차에서추락되는등당시현장에서전경사복1명,진압복장전경2명이납치되어무차별집단폭행함으로수원서장부대즉각반경SY44탄발사와동시사복부대(8중대)투입시위폭행자검거에당함.이때구출작전으로진압부대및8중대사복의부상자많이발생</p> <p>○15:50경대한생명빌딩앞에서민통련이주도하던시</p>	<p>등구호를외치며진압경찰에화염병과보도부력을꺼낸벽돌등을투척하면서일부시위군중은각목등을들고민정당사로진행타가진압경찰의최루탄발사저지로다시시미회관앞로타리로후퇴</p> <p>○15:35경경기도경찰국장은인천동부서장과같이신민당인천1지구당사를찾아가「행사가진행되도록경찰의안전보호하에당지도부가입장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주최측에면담요청</p> <p>○15:45경중앙인사의입장</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위대는허수아비화형식을가졌음.</p> <p>○15:55경주최측에서방송을통하여“조금더기다려보 다가이총재와길고문의참석없이도행사를진행시킬예 정이다”라고방송한후안동선,장기욱의원등이교대로 개헌구호를선창하면서분위기조성.</p>	<p>을위한길을터주고대회장 주변의질서를위해시민회 관주변의시위대를해산시 키고저진압부대가GAS차 량1대를앞세우고시위군중 속으로진입을시도하였으 나각목등을휘두르며진압 부대를공격차량에탑승하 였던기동8중대장인김00 경감등10명을각목으로무 차별구타하여전치3-12주 의치료를요하는부상을입 혔으며이때다급해진진압 차량이급히후진타가전경1 명(일경이00)이깔렸으며 시위꾼4-5명이차에깔렸 던전경을각목등으로마구 구타</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진압부대에서최루탄발사진압</p> <p>○15:50경시민회관옆대한생명빌딩앞에서는민노련,민통련회원등200여명이시위를주도하면서전경허수아비화형</p> <p>○거의같은시간에대회장옥외방송을통해 「좀더기다려보다가이총재와김영삼고문참석없이도행사를진행시킬예정이다」 라고방송</p> <p>○15:55경경찰은2대로신민당인천1지구당사에서</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400여m상거한석암과출 소에서 「당지도부의대회장 입장문제를협의하자」 는메 모를전달했으나 「만날필요 없다」 하여목살당함				
16:00-16:30	[인원] 장내 2,000, 장외 시위군중 4,000, 구경꾼 2,000, 도합 8,000여명 [상황] ○16:00경교보빌딩앞시위대일부가주안1동성당부근 에서화염병으로보이는라면박스5개분량의물건을손 수레로시민회관앞4거리까지운반하여시위군중과합 세극열시위		○ 16:30경 학생등 100 여명이 경찰타이탄트럭 1 대를 탈취 적재함에 불을 붙여 경찰을 향해 밀어부 침			
16:30-17:00	○ 16:30경 주안가든 앞에서 시위군중 100여명이 안양서장 부대에 최류탄 지원 가던 경찰 타이탄 트럭 (1045번 가스탄 476발 적재) 1대를 탈취 행	○ 16:30경 시민회관 남 쪽에 대치중인 진압부대 에 최류탄을 보급하고 시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사장 앞 4거리로 밀고 가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민당은각성하라 -신민당은자폭하라 -이원집정제반대 -미제국주의철폐수등구호제창 <p>○16:45탈취한타이탄트럭을시민회관4거리에서적재 함덮개를벗겨서적재함위에놓고불을부쳐석암4거리 쪽진압부대를향하여밀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서장부대가차량회수와동시진화 -이때장내에서방송으로“2차에걸쳐김영삼고문등당 지도부가행사장입장을시도했으나경찰의학생들자극 으로입장치못했다그러나시간이늦더라도정정당당하 게대로로행사장에들어올것이다”라고방송 <p>○16:50시민회관앞시위대는탈취차량에서조달한것 으로추정되는가스탄용산자확보</p>	<p>민회관 동쪽에 대치중인 진압부대에 공급하기 위 하여 석암4거리를 거쳐 시민회관 쪽으로 가야하 는데 지름길인 현대아파 트 골목으로 잘못 진입 시민회관북쪽시민회관앞 에서최루탄을운송하는경 찰타이탄트럭() 1대가 시위군중에 순식 간에 포위되어 각목과 돌 맹이를 맞고 탈취(운전사 등 2명은 피신) 당하여 적재하고 있던 최루탄 476발을 꺼낸 후 차를 시민회관 앞까지 밀고 감</p> <p>○16:40경최루탄운송차량</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6:55동시위대성명불상자가“금일하루를시위와농성으로완전히장악하자”라고선동.	차적재함덮개를벗겨기름통을떼어적재함에뿌린후 불을붙여진압부대쪽으로 밀어부침 ※17:10경탈취당한차량회수 ○일부시위청년들은신민당이대회를강행한다면대회장안에들어가수라장을만들자고고함 ○16:40경신민당1지구당사에서김영삼고문은취재기자4명에게"학생들의과격한행동과시장이시민들을다른곳으로빼돌렸기때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다", "시장을 문책토록 요구하겠다", "시위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학생들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주안역 쪽을 터주어 학생들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언동</p> <p>○16:45경 옥외확성기를 통하여 "2차에 걸쳐 당지도부에서 행사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학생들을 자극하여 입장치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늦더라도 정당당하게 대로로 행사장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방송</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7:00-17:30	<p>[인원] [상황] ○17:00경주안1동성당부근500여명과행사장앞4거리500여명등1,000여명의시위군중은 -000독재정권을이민우가물리쳐주겠는가 -김대중,김영삼은안된다 -우리스스로가해야된다는구호를외치면서투석을하여극렬시위계속 -안양서장부대대치</p> <p>○17:20홍사덕대변인성명발표 -경찰의계획적이고도발적인악랄한방해에의해신민당결성대회가좌절되었다. -당지도부가대회장에입장하는시간에맞추어평화적으로시위하는청년들에게최루탄을발사하여그들의출입을봉쇄한것이다. -이후견잡을수없는불행한사태에대한모든책임은현정부에있으며대회를연기하기로결정하였다.“우리는</p>	<p>○ 17:00경 주안1동 성당 부근 500여명과 행사장 앞 로타리 500여명 등 1,000여명은 "독재정권을 이민우가 물리쳐 주겠는가?", "김대중·김영삼도 안된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석을 하며 시위</p> <p>○17:00경인천시장이김형광의원에게 전화로 "현상황은정상적인질서회복한계를이탈했다" "17:30까지행사를진행하든가포기하든가통보해달라만일회답이없을시는질서회복을위해불가피진압</p>	<p>○ 17:20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은 대회를 무기연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p> <p>○17:40경학생등1,000여명이주안역앞으로이동하면서버스안내판2개를뽑아바리케이트를설치하고극렬투석</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마침내승리할것이다.</p> <p>○17:29경이민우총재,김영삼고문과당소속의원30여 명은승용차편으로상경</p>	<p>작전을개시하겠다고통고</p> <p>○17:20경홍사덕대변인은 신민인천1지구당사에서성 명을통하여 "당지도부및경인지부장단 이협의끝에경찰의조직적 이고계획적인최루탄공격 으로대회개최가어렵게되 었다는테의견을같이하고 무기연기키로했다"</p> <p>"총재를비롯한전당직자들 이상경즉시중앙당사에서 앞으로의대책을협의키로 했다"고발표</p> <p>○17:25경대회연기발표가 있은후에도시위군중들은</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p>흐트러질기세없이민통련 회원200여명은시민회관 앞로타리에서철야시위를 다짐하는등기세를올렸고</p> <p>○학생및근로자등2,000 여명은시민회관앞로타리 에서시내로진출키위헤스 크람을짜고주안로타리쪽 으로움직이면서시청과구 청건물을점거하여 「인천을 해방구로하자」 는말이나왔 음</p> <p>※시내진출을저지코저진 압부대로도로차단대치</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7:30-18:00	<p>○ 17:40 진압작전 전개최루탄 발사로 행사장 주 변의 시위군중이 주안역 등지로 분산</p> <p>○18:10시민회관의당원들은만세삼창을한후자진해산 귀가</p>	<p>○ 17:30경 김영삼 고문 등 당소속의원 30여명은 승용차 편으로 모두 상경</p> <p>○시위군중2,000여명은 민정당사쪽의진압부대에, 민통련회원등300여명은 석암로타리방향등진압부 대에돌과화염병등을수없 이투척하며격렬한사위</p> <p>○17:40경경찰의진압작전 으로시위군중의주력이분 산되자그중1,000여명은주 안역앞으로이동하면서버 스승강대2개를뽑아바리케 이트를설치하고극렬투석</p>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18:00-18:30		<p>○ 18:15경 홍사덕 대변인은 대회장에서 대기중이던 당원들에게 무기연기 사실을 알린 후 만세삼창을 하고 전원 해산</p> <p>○18:15경주안역주변시위군중재집결 주안역앞100여명 주안역입구계단200여명 제일연탄앞300여명 등600여명이재집결경찰과대치</p>				
18:30-19:00						
19:00-19:30		※ 19:20경 진압병력 투	○ 19:00경 학생등 300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입, 해산조치	여명이 제물포역 앞으로 이동			
19:30-20:00						
20:00-20:30			○ 20:20경 학생등 300 여명이 도화국민학교 앞 에서 시위 하면서 형사기 동대 봉고차량 1대에 화 염병을 투척하여 소실			
20:30-21:00		○ 20:40경 인천 도화국 교앞에서 학생등 300여 명이 교통초소에 투석 유 리창 4매를 파손시킨후 초소 옆에 정차중이던 형				

시간구분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3시위)」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86.5.3.)"pp.140-150	내무부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 고」 "2.사건내용및특징,현황요 약"pp.13-34	대검찰청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 과발표」 (1986.5.19) "나.시간별소요진행상황" pp.79-	경기도경 (자료선정필 요)	개인/단체 행동 자료 (구술자료)	판결문
		사기동대 봉고차량(동부 서)에 화염병을 던져 방 화 전소				
21:00-21:30		○ 21:25경 경동로타리 쪽에서 동인천역 방향으 로 학생풍 200여명이 차 도에 재집결 시위				
21:30-22:00		○ 21:40경 소요종료	○ 21:40경 소요종료			

■ 부록 6: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경찰측 자료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1	「5.3시위사건종합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2) 「5.3사건주요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0) 「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5.11) -5.3시위사건 수사상황, 검거대상자 (수사과) -동부서, 민민투조직도 -부평서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8) -민민투계보도 -5.3사건관련시위계보 「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수사과, 1986.5.4.) ²⁷⁾ -시위에 관련 연행자 조사결과 (ABCD구분)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 5.20) ²⁸⁾	
2	「질의예상답변자료-5.3사태관련」(의혹, 고문사실등) 「인천사태인천소재배후조직규명수사계획」(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주요수배자, 주요사건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하달」(내무부, 86.5.1) ²⁹⁾ 「진상보고」-박병무, 한휘석, 왕주형 구타 물고문 사건. 전미영 성추행 고문 관련 진술서	
3	「종합수사보고-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³⁰⁾ -「5.3인천시위사건 관련 연행조사자 처리방안 검토자료」 ³¹⁾	
4	5.3사태 송민정 문미숙 수사경위 (부천서, 86.7.31) ³²⁾ 인천사태관련구속자 석방상황 (1986.8.1.)-문미숙외 12명 배영미에 대한 대공분실 조사 상황 (86.7.23)-부천서 -숙명여대, 좌경사건, 노동야학, 위장취업, 부천서 점거농성 권인숙의 변호인접견시 언동에 대한 진상보고 (7.23) 인천지방검찰청 방화사건 수사상황(1986.7.28.)-부천서 성고문 항의 부천경찰서 농성사건 민중기 모, 이상영누나 등 16인 권인숙의 변호인접견시 언동에 대한 진상보고 (7.23)-배영미 가혹행위, 성추행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위협 건 변호사에 제보..	
5	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부천, 7.21): 수배자 검거 김사무엘(장신대) 언더 왕주현에 대한 고문 사실 여부 의견서: 온태회(신민당원) 황언구 이배호, 소미화(학생) 부인지역연합민민투계보 5.3사건수사상황보고-제선합보(부천, 1986.5.11) 5.3사건수사상황보고_제4보, (부천, 1986.5.10.) 검거보고 (부천, 1986.5.10.) 한생현(장신대), 김애경 장신대 5.3인천시위사건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부천서)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2보 (부천경찰서, 1986.5.8.)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3보 (부천경찰서, 1986.5.9.)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 보 (부천경찰서, 1986.5..) 제1보? 「중점수사사항」 현장 투석조, 진압전경폭행자	
6	민정당사 방화범 검거(1986.5.22.) 이상명(인하대 씨클연합회장) 5.3시위관련자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조사경위보고(인천동부경찰서,1986.6.16.) -피의자 신문조사 -진술서	
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3)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2.)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1)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8) 프랑카드 등 선전문 분석 (경기도경, 5.16)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6) 일보: 시위관련연행자조치상황(수사과, 1986. 5.15/14/13/12/11/10/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5) 시위관련연행자조치상황(수사과, 1986. 5.14)/1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4)/13/10/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9) ³³⁾ -자수 이상명 진술서 -이용주 검거 보고(1986.5.25.) ³⁴⁾ -검거 이용주 진술서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8	5.3추가 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국장, 86.5.27) -이재영(인하대), 이상명(인하대), 이용주(인하대) 5.3시위추가검거자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26.) -권오광(해고근로자), 강권구(해고자), 김윤기(안동대) 박병규(안동대), 박부경(홍익대) 김수영(연세대) 이철숙(안동대) 송광석(인하대) 이재길(안동대) 이용주(인하대) 5.3사건 추가검거 수사상황 12명 (인천동부경찰서 5.3사건 추가검거자 수사상황(부평경찰서, 1986.5.26.) -이종태(교원대, 노동해방동맹) 임명빈(성대, 노동해방동맹) 5.3사건 추가검거자 수사상황(부천경찰서) -김신실(장신대) 우제구(민통련) 한생현(장신대)	
9	신민당 당원 김노진 로얄 승용차 방화소실 사건(1986.5.6.) ³⁵⁾ 인천동부경찰서	
10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내무부, -5.3행사사건 상황도 (상세) 단체별 구호 및 플래카드, 유인물 제목, 피해상황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발표」(대검.‘86.5.19) ³⁶⁾ 「5.19 대검발표 수사내용의 특이점」(경기도 경찰국) 실황조사서(경기도경 5.28) ³⁷⁾ 신한민주당행사진행	
11	김천석 연세대 민민투 참가 배경 (민민학련, 민민노투위) 연대 민민투 인천시위진행상황 진술서 (86.5.20/ 가장 상세!) ³⁸⁾	
12	6.18부평시위관련연행자(일반인)전과사실현황 (1987.7.9.): 6.18~6.19 새벽 (291명 연행, 전과자 35) -인천동부경찰서 291명 -부평경찰서 211명 6.18 부평시위 연행자 총 661명 -인천경찰서 159명 부평시가지시위기도사건 발생(종합) 86년 11월 22일 16:05, 북구 부평동 부평시장입구, 인천대 신현호 외 학생 3명, 장기집권희책하는 예측정권 타도하자, 유이물 100매, 살포 기습시위발생,부평동 대한극장 앞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1986.8. 17. 1936~20:20) 39)</p> <p>「5.3사태 구속자 가족동향보고(부평서, 1986.6.27.)</p> <p>「5.3시위사건 수사」(부평경찰서,)김중성, 황광우 인노투 관련자 (34명) 인천노복40)</p> <p>수사사항 (양승조,) -인노연 조직도</p> <p>5.3시위관련 수배자 검거 보고(1986.5.17.) 이진권 서울대</p> <p>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7보 (부평경찰서, 1986.5.1.?)</p> <p>라면상자 출처에 대한 수사상황보고 박명무(인노련)41)</p> <p>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6보 (부평경찰서, 1986.5.13.) -민불련 관련자 수사상황 서동석등</p> <p>서울대 씨클조직 및 연계 현황</p> <p>이보용 소지 메모 수사보고 (행사일정)</p> <p>시위준비물에 대한 수사사항(프랑카드 제작 시위참여) - 박병무, 서동석</p> <p>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5보 (부평경찰서, 1986.5.11.)</p> <p>조직계보도 (부평경찰서) 민불련, 인노련, 서울대연극회, 연세대 공대 언더조직</p> <p>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4보 (부평경찰서, 1986.5.10.)</p> <p>5.3시위사건 수사보고 (부평경찰서, 1986.5.9.)</p>	
13	<p>5.3시위관련자처리상황(인천, 7.30)</p> <p>5.3사건수배자검거보고(인천,7.26) : 유원모(안동대졸) 김윤태(고려대 총학생회장), 진철승(민불련 문화부 간사, 7.7) -부천경찰서 정영철 검거</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21)</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9)</p> <p>신민당 김동주 의원 질의자료 입수(6.15)</p> <p>신민중앙당사 농서 관련 동향 42)</p> <p>5.3시위관련 수감자 신민당 의원 접견 대화 내용</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4/6.13/12/11/10/9/8/7/6/5/4/3/2/1/5.31/30/29/28/27/26/25/24/23/22/20)</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3)</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2)</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1)</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0)</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9)</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8)</p> <p>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7)</p>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6) 수사보고(서충익) 동부서, 1986.6.7. 수사보고(박동규) 광명서, 1986.5.31. /황운성, 김정호 인천지검구소사건송치현황 (1986.5.31.) 총구속123, 구속기소 35(소요죄 32명, 집시법3명,) 기소유예 86명 5.3시위관련자에 대한 고문사실 여부: 고문가혹행위 일절 없었음.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4)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2) 5.3인천소요 및 민민투 관련자 수사에 따른 추가 지시(경기도경찰국장, 5.28) ⁴³⁾ 장기포 수사상황 (상세 27쪽)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 5.3시위사건관련자에 대한 수사상황보고지시(86.5.27) ⁴⁴⁾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8)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6) 추가검거자수사상황(동부, 5.23) 이상명(인하대) 구속 송광석(인하대,무역2) 훈방 조철희, 이영호 등 5.3사건수사보고 - 「사건시위계획」, 시위용구제작등 상황, 민정당사 방화사건 5.3 仁川騷擾搜查 關係官 會議 資料 (치안본부, 1986.5.17.) -對外秘 5.3인 천사건수사종합보고 (대공수사단, 5.17) ⁴⁵⁾ 5.3인천소요사태 미검자 명단(52명, 대공수사단, 5.17) 시위장소 및 시간별 검거자 현황 보고사항 (미상, 5.16)-개략적 보고	
14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인천사태관련) 답10: 민통련은 별도의 ‘시민대회’ 개최계획.	
15	집시법위반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인천카토릭회관 (인천서, 1986.12.14.) 장신영, 백도현, 김종일, 조규선 반제동맹수배자검거보고 (동부서, 86.12.13)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보고 (인천경찰서, 86.12.2) ⁴⁶⁾ 부평대한빌딩옥상 기습시위관련자 수사보고 (인천서, 86년 11.28)-윤성학외 7명 인천시위관련자 신병처리 결과보고 (인천서, 86.11.15) ⁴⁷⁾ 집시법위반 사건 검거보도 (86.10.30) -한기인 구속영장집행상황보고 (안성서, 86.10.30) 미림극장앞 시위관련 관련자 조사보고(인천, 86,9,28) ⁴⁸⁾	이남희 민통 련 서울지부 조직부 간사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성남시가지 기습시위 발생상황(성남, 86.10.1)⁴⁹⁾ 동인천미림극장 집시법위반 피의자 검거(동부서,86년 9.28)⁵⁰⁾ 인하대 후문 집시법 위반, 구속1명, 구류5명, 훈방3명 (인천서, 86년 9월 25일)⁵¹⁾ 특수공우집행 방해, 동치사상 피의사건, 인하대 후분 아시안게임 저지투쟁위원회 화염병 투척 신철호(1986.9.22.)⁵²⁾ 인하대 총학생회발대식후 시위사건(인천서,1986, 9.11) 이경주⁵³⁾,이호성,김상철 집시법위반(화성경찰서, 9.20) 수원역전 한신대 500명시위 인하대 시위관련자 조사결과 보고 (1986.9.11.), 이범윤 인하대 민주광장 1500 명 시위 민중생명위협하는 아시안게임 저지하자... <수배자 검거보고> 유원도,김윤태(고려대 총학생회장)⁵⁴⁾ 진철승(민불련 문화부 간사) 이진준(서울대 총연극반), 이용주(인하대)⁵⁵⁾이재길(안동대) 김수영(연세대) 박부경(홍익대)⁵⁶⁾, 박현정(성신여대 민민투) 오은실(성신여대) 이철숙,박병규(안동대) 5.3시위 관련자 수사상황 (인천경찰서, 1986.5)5.3시위관련자종합수사상황 (인천 경찰서, 1986.5.13.) -집중수사대상(송대헌)수사보고 (인천서, 5.13) 정재익등 시위 준비물 제작 수사 5.3시위관련자수사상황 (인천경찰서, 5.11) -유형별통계, 안동교수카농수사상황, 조직단체계보 5.3시위관련자수사상황 (인천경찰서, 5.10) 5.3시위관련자 검거보고(추가) (5월9일) : 권오광, 강권구, 김윤기, 피의자 정재익, 제성민 수사상황 (인천서, 5.9) 5.3시위관련자 수사보고 (인천경찰서, 5월9일)⁵⁷⁾</p>	
16	<p>「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안기부, 5.7)⁵⁸⁾ 「전언통신문, 5.3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안기부 인천분실장, 1986.5.8.) 「구속수사통보」(안전기획부, 1986.5.7.)⁵⁹⁾ 「전언통신문」 구속수사통보 (인화공사, 86.5.7. 22:00)⁶⁰⁾ 「5.3사건 수사상황보고」 (부천경찰서, 1986.5)⁶¹⁾ 「배후조직계보」 「연행자 수사결과」 「5.3행사 시위관련 연행자 분석 현황」 직업별, 학교별 310명 분석⁶²⁾ 「연행학생 및 근로자 명단보고」 (동부서, 5.4) 「5.3시위사건 종합수사보고서 사본1부」 (부평서, 5.4) -분류표 총 42명</p>	
17	<p>피의자 신문조서</p>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18	「5.3사태중점수사상황」(인천동부경찰서, 5.14) 「5.3사태종합수사보고」(인천동부경찰서, 5.13) - 「주안·동성당과계수사」 「5.3시위구속자중간수사상황」(인천동부서, 5.11) - 「인천대학교배후세력계보도」, 중앙대, 「5.3사태추가검거자 수사보고」(인천동부서, 5.11) - 검거인원현황등 통계, 배후세력 계보 - 「5.3시위관련구속자현황」, -5.3사태관련수배자명부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 -주안성당,민정당사 방화,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인천동부경찰서, 5.10) -수배자명부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인천동부경찰서, 5.9) 「5.3시위관련자 수사결과 보고」(동부서-경기도지사, 경찰국장, 1986.5.10.) 「5.3사태중점수사상황」2 (인천동부경찰서, 5.14) 「기습시위기도관련자수사상황결과보고」 (동부서,1986.9.30.) 「5.3사태관련자국회답변자료」(인천경찰서장, 1986.8.2.) -5.3사태관련자 처리상황부(인천동부경찰서/부평경찰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발생 검거보고」(인천동부경찰서, 1986.11.3.인천대학원민주화투쟁) 「5.3사태관련수배자 검거보고, 자수, 이재훈」(동부경찰서, 1986.8.9.) 「5.3구속자가족협의회, 구속자 소식」 「관련자조사,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인하대생 상세한 수사 자료
19	「5.3인천폭력시위사건 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1986.5.5.) ⁶³⁾ 구속자 명부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 (경기도경찰국장,1986. 5.13) 주안성당 준비상황도, 인노련 시위상황도,화염병 깃발 제작 참고도,장소별 검거자 현황, 탁지일 등 국가전복 공산주의 사상교육, 피의자 시위계획도, 유인물 분석 내용별 명의별 (27), 유인물 상세분석표(39종)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 1986.5.16.) -민통련 등 배후조직도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 1986.5.20.) -검거자 처리현황, 조직 단체, 직업 현황	
20	「구속기소자현황 및 경찰의견」(경기도경 수사과, 1986.6.15.) 「5.3시위사건 관련 구속기소자명단」(수사과, 1986.5.30.)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2.)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 1986.5.12.)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5.3시위사건종합수사상황」 (경기도경찰국, 1986.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답변자료-5.3시위관련」 -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 일보」 - 「피의자 분석표」(구속, 불구속, 즉심 161명) - 「5.3사건관련 시위 계보」 (민통련, 정재익배후,고려대 총학,성신여대 자민투, 동국대,인천대,중앙대,민불련, 인노련,서울대연극회,연세대 공대 언더,장신대언더 <p>「구속피의자 身柄引渡 현황」(경기도경찰국, 1986.6.)</p> <p>「5.3시위사건관련 구속자기소자 명단」 (경기도경, 1986.5.30.)⁶⁴-「시위관련 연행자 처리현황」</p> <p>「주요수배자 명부」 경기도경찰국장, 1986.5.14</p> <p>「수배 및 검거자 명단」(인천시경 수사과, 1986.5.19.) 5.3연관수배자 51명, 민민투 수배자</p> <p>「5.3인천시위사건 수배검거자 명단」,74명 (경기도 경찰국, 1986.5.20.) -미검자 명단(52명),</p> <p>「5.3인천소요사건미검자명단」 51명 (경기도경찰국, 1986.5.18.)</p> <p>「수배자전담수사반 편성 명단」 경기도경찰국, 1986.5</p>	

- 27) 사건명: 신한민주당 경인지부 개헌추진 결성 대회장 폭력시위사건? 적용법조: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3조1항, 「형법제 144조 2항(특수공무방해, 동제164조(현주 건조물 방화), 동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동제367조(공익 건조물 손괴), 동제369조(특수 손괴) -도로교통법 제63조 등을 적용 방침/
- 28) 김성택 (연세대, 민민투부위원장)을 안기부가, 오희숙(연세대 민민투위원)은 대공수사단이 직접 검거했다는 기록
- 29) 5.1. 발신, 5/6 접수?? 최근 국가전복기도, 반미등 극렬지위를주도하고 있는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에 대한 수사계획을 별첨과 같이 하달하니 보안에 유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별첨 민민투등 용공지하조직 수사 계획 1부, 검거대상자 38명,
- 30) 사건명: 신한민주당 경인지부 개헌추진 결성 대회장 폭력시위사건
- 31) 연행자 319명 명부 (가장 충실함)
- 32) 문미숙, 송민정 등은 5.3인천 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서울로 귀가하면서 부천역에 하차하여 부천역전에서 약20명과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동일 20:00경 검거 (「인천5.3사태관련 여자피의자에 대한 동향보고」, 부천경찰서, 1986.7.28.)
- 33) 중앙대 정외과 2년 홍동호 신문결과 : 이번 시위는 민민투가 노동자와 연계하여 벌이는 시위이다. 시위용품은 인노련에서 준비했으니 소지하지 말 것. 가두시위하다 민정당사 습격하되... 김종태의 3인, 노동자해방동맹은 <노동자해방선언> 반미 유인물 2천매 살포
- 34) 후배 박종민
- 35) 신민당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
- 36) 체제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준비로 치안기능을 마비 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한 사건
- 37) 자세한 현장 지도 첨부
- 38) 집회명: 광주학살 원흉 미제축출과 파쇼타도 및 헌정회의 쟁취를 위한 **법민중 쫓기대회** /주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민족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 39) 고대생 등 100명,애스컴 쪽 화염병 투척, “미제국주의 축출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 구호 부평역쪽 행진.. 헌법특위 분쇄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41명 검거, 고려대 서울대 인하대, 연세대, 경희대, 외대 성심여대, 동국대, 무

- 진압경찰병력: 실황조사서 (경기도경) 경기도 자체인력 35개중대 4,690명
-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 -소계 80개 중대 10,720명

직 (1시간 가투, 중요한 시위투쟁임)

- 40) 한덕희, 박문식, 김일섭, 김진국
- 41) 임인구 가에 숨겼던 라면상자 5개 관련 수사
- 42) 관제데모 조작설. 군중혼분용 가스차 진입,
- 43) 소위 민민투는 용공이적단체이므로 각 대학별로 결성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 등
- 44) 수배자 검거 경찰서는 검거상황을 즉보할 것, 검거 피의자 수사상황은 매일 15:00 한 서면보고할 것
- 45) 민민학련 기관지 「민주선언」/ 민민투 4.22 광운대 비마상앞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민민투 위원장 회합, 민민학련 첫 투쟁 대대적 준비 결정, 4.29 홍대 학생회관에서 서울대, 연대, 성대, 이대 민민투위원 참석, 시위계획 모의, 인천현장 답사후 확정/5.2일 홍대에서 재회합, 5.3참가시 역할 임무 확정
- 46) 윤성학,양승전,이장수,박현준,이양일,김홍춘,현미숙,임현주(반미미족해방 반과쇼민주쟁취투쟁연합결성?)
- 47) 11월 13일, 노학대동제 폐막후 시위, 남상민, 유인중
- 48) 아시안게임저지 기습시위 백성화 외 40명
- 49) 아시안게임 분쇄하고 헌제민회 쟁취하자 (성남노동자투쟁연합, 6개대학 50명)
- 50) 서강대 박용희 외 17명, 화염병 213개, 유인물 1천매, 아세아네임 속지말고 집권연장 분쇄하자.
- 51) 구속 이원용, 구류 신정철 조기완 박기홍 조재운 정상용..
- 52) 민중기간 정치놀음 헌법특위 분쇄하자 구호 외치며 학내 시위, (신정철, 조기완, 박기홍, 조재운,김상룡, 이원용, 김치욱, 공영진, 백승일)
- 53) 86.5.2 부평공단파출소 기습 가두시위 가담, 부평경찰서 검거 5.4일 구류7일, 이호성은 85.4.29 부천역곡역앞 역곡파출소 기습 가두시위 가담 부천경찰서 구류 3일
- 54) '인천5.3민주대회'로 인식하고 고려대생동원 :
- 55) 주상연과 5/21,15:00,부평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주상연(경영3제적)과 접촉,국문1년 박종민집에서 검거
- 56) 무혐의자 수배 사건
- 57) 민민투공동의장단 시위계획 (연세대, 서울대, 성대 이대)
- 58) "1.5.3인천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좌경성향 불순단체 실상규명함에 있어 구속자를 대상으로 소요의 배후지령자, 불순단체간부, 연계조직 등을 발본색원"
- 59) 5.3인천 시위와 관련 검거된 다음 5명에 대하여 구속수사토록 혐의되었음(동부1, 부천1, 부평3): 조은숙, 우제구,부평: 이종태,임명빈, 김현애
- 60) 각경찰서에서 검거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검거 경찰서별로 구속 수사 통보합니다. (22:10, 전통하달 동부 박, 부천 이, 부평 천)
- 61) 김현대 범죄사실(16쪽)에 민민투, 자민투에 각각 가입한 간부로서... 최인호 서울대 재학중인자로 동대학교 민민투 자민투에 각각 가입하고 ...
- 62) 대공분실 처리 명단 : 김현대, 정재익, 이덕희, 윤영민
- 63)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3조1항, 「형법제 144조 2항(특수공무방해, 동제164조(현주 건조물 방화), 동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동제367조(공익 건조물 손괴), 동제369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63조 등을 적용 방침//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미일외세 물러가라 며 화형식과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미 반일적인 과격 행동이었음
- 64) 구속자 57명에게 소요죄를 적용 기소하고 있다!

- 시위군중: 시위군중 10,000명(민통련 200명 포함)-「실황조사서」, 경기도경찰국
- 반미구호
 - 한미은행 점거 농성, 미문화원 점거농성, 버거킹 점거사건
- 주요구호
 1. 방송
 2.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 타도, 군사독재 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

■ 부록 7: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신문 자료

번호	제목	출처
1	「民主정착」所任의 出帆 창당 「新韓民主黨」의 政綱과 進路	동아일보 1985.01.18
2	"국政 감사권 부활" 新民黨 공약	조선일보 1985.01.24
3	李 新民主黨 총재 會見 "改憲推委 구성하겠다"	동아일보 1985.02.02
4	激動'85 <1> 2.12總選과 巨大新民主黨 탄생	동아일보 1985.12.09
5	与-野 「院外대결」 채비	조선일보 1985.12.20
6	改憲추진支部長 임명	동아일보 1986.01.17
7	15개大 千여명모여 시위 최루탄에 돌·화염병 맞서	동아일보 1986.02.05
8	新民主黨 중앙堂舍 봉쇄	조선일보 1986.02.23
9	내년 3월까지 改憲 매듭짓게	경향신문 1986.03.05
10	서울大 연합示威사건 公訴狀 <요지>	동아일보 1986.03.06
11	場外투쟁 일부日程 확정	동아일보 1986.03.08
12	新民主黨 改憲추진위 서울지부 結成대회	경향신문 1986.03.11
13	新民主黨, 지방대회 준비 박차	조선일보 1986.03.14
14	新民主黨 改憲추진 釜山支部 결성	동아일보 1986.03.24
15	40여분 연설 拍手 끊이지 않아	조선일보 1986.03.25
16	光州시위 69명 연행 新民主黨 서명운동 관련	매일경제 1986.03.31
17	群衆들도합세 光州가두行進	동아일보 1986.03.31
18	피켓과 口號의 光州중심가는 人波몰려 車없는거리 3시간...두金씨 결속다짐에 歡呼	동아일보 1986.03.31
19	"光州 示威관련 69명 연행"	동아일보 1986.03.31
20	署名추진 全南지부 어제 光州서현판식	경향신문 1986.03.31

번호	제목	출처
21	"社會混亂 조성 행위" 民正 즉각中斷 촉구	경향신문 1986.03.31
22	街頭政治는 時代錯誤다	경향신문 1986.03.31
23	불법示威 혼란 조성 嚴斷	경향신문 1986.03.31
24	新民改憲 全南지부결성 한때 街頭시위도	조선일보 1986.04.01
25	光州 시위관련 69명 연행	조선일보 1986.04.01
26	한국 民主발전 逆流 우려	경향신문 1986.04.02
27	改憲추진大邱大會 新民黨 현판식가져	동아일보 1986.04.05
28	「院內방학」에 「場外公방」加熱기미	동아일보 1986.04.12
29	「改憲공방」場外로	조선일보 1986.04.12
30	李敏雨총재 5월께 訪美	매일경제 1986.04.14
31	忠南지부 改憲추진위 新民黨,19일결성대회	경향신문 1986.04.15
32	5월政局의 風向 (2) 新民—「民心自信」과 「戰列고민」	동아일보 1986.04.24
33	숨가쁜政局 금주가 分水嶺	경향신문 1986.04.28
34	평화적 政府이양傳統 반드시 이룩 全대통령·3黨대표 對話내용(요약)	매일경제 1986.05.01
35	5월政局의 風向 (7) 「時期」서 「形態」로 옮긴 改憲	동아일보 1986.05.01
36	全대통령—3黨대표 對話내용	동아일보 1986.05.01
37	新民黨 발표 改憲서명자 70萬	동아일보 1986.05.03
38	示威군중·경찰 投石戰 民正지구당 일부 불타	동아일보 1986.05.03
39	全國24개大 시위	조선일보 1986.05.03
40	폭력示威…新民仁川대회 저지	경향신문 1986.05.03

번호	제목	출처
41	경찰과 대치 격렬한 投石戰	경향신문 1986.05.03
42	新民 仁川대회 못열어	조선일보 1986.05.04
43	運動圈학생 独自행동 大邱대회부터 나타나	조선일보 1986.05.04
44	學生運動에 문제 크다	조선일보 1986.05.04
45	화염병과 최루탄과……	조선일보 1986.05.04
46	大會전 불길한 조짐…流産예측 적중	조선일보 1986.05.04
47	살벌한 表現…극렬口号 난무	조선일보 1986.05.04
48	民正당사-新民승용차 불태워	조선일보 1986.05.04
49	仁川사태 논의	매일경제 1986.05.05
50	仁川시위사태 관련 1백29명 구속	매일경제 1986.05.05
51	仁川시위 百29명 拘束令狀	동아일보 1986.05.05
52	自民·民民鬪 容共조직규정 警察수배	동아일보 1986.05.05
53	「仁川사건」의 波長	동아일보 1986.05.05
54	5월政局의 風向 (9) 충격新民-改憲투쟁街道에 「伏兵」	동아일보 1986.05.05
55	돌과 최루탄 「우박」 …수라장 5시간	동아일보 1986.05.05
56	大會場주변 격렬 구호 油印物냉용	동아일보 1986.05.05
57	仁川시위 격렬 큰 혼란	동아일보 1986.05.05
58	金世鎭군 숨져 오늘오전 葬禮	동아일보 1986.05.05
59	左翼正體 드러낸 仁川事態	경향신문 1986.05.05
60	大學 이대로 줄은가 (6) 反保守 열병	경향신문 1986.05.05
61	「仁川시위」 拘束대상자 百29명 명단	경향신문 1986.05.05

번호	제목	출처
62	과격한 口號들	경향신문 1986.05.05
63	在野·勞·學 구호 제각각... 「百貨店式 시위」	경향신문 1986.05.05
64	「仁川사태」 129명 令狀	경향신문 1986.05.05
65	"仁川사태"...民正-新民主党과 在野	조선일보 1986.05.06
66	新民,仁川사태 妙方에 고심	조선일보 1986.05.06
67	仁川시위 拘束-수배자 명단	조선일보 1986.05.06
68	仁川시위 129명 拘束	조선일보 1986.05.06
69	大學은 「反國家基地」 될수없다	경향신문 1986.05.06
70	容共흐름 坐視만 할것인가	경향신문 1986.05.06
71	反美깃발·左傾사상·共產구호·極烈행동	경향신문 1986.05.06
72	6.25는 民衆해방혁명"史實왜곡 버젓이	경향신문 1986.05.06
73	在野단체 본격수사	경향신문 1986.05.06
74	129명 수감	경향신문 1986.05.06
75	新民 仁川사태 공공분석	매일경제 1986.05.07
76	"仁川사태는 組織的大會 방해	동아일보 1986.05.07
77	86-88년 「好機」 간주 民衆蜂起 혁명 유도	조선일보 1986.05.07
78	검찰,自民鬪-民民鬪 수사	조선일보 1986.05.07
79	"폭력시위 단호 대처"	조선일보 1986.05.07
80	"仁川사태조사단 자체가 심각성 인정한것"	경향신문 1986.05.07
	理性이 숨지다	경향신문 1986.05.07
	「仁川시위」 조종·주동32명手配	동아일보 1986.05.08

번호	제목	출처
	"「仁川 배후조종」當局 발표는 왜곡"	동아일보 1986.05.08
	"新民-在野 협력강화	조선일보 1986.05.08
	政局 타협路線 전폭支持	경향신문 1986.05.09
	대학가 「大字報 論爭」 한창	조선일보 1986.05.10
	仁川시위 화염병등 出處 밝혀져 검찰,보관경위 조사	조선일보 1986.05.10
	新民 馬山대회 충돌없이 끝나	조선일보 1986.05.11.
	馬山시위 42명 연행	조선일보 1986.05.11
	1천여학생 40분간 示威	매일경제 1986.05.12
	우려와는달리 좋은반응속 진행	동아일보 1986.05.12
	市民精神으로 넘긴 「馬山긴장」 新民 개헌추진 馬山대회 도큐멘터리	동아일보 1986.05.12
	警察,강력범 소탕령 첫날 새벽4시간동안 3千4百명 검거	동아일보 1986.05.12
	「仁川사태」 54명 추가手配	동아일보 1986.05.12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경향신문 1986.05.12
	"仁川사태는 「이상한」 2千명때문"新民발표	동아일보 1986.05.15
	"「仁川사태」는 政府측 工作" 新民 "左傾 급진세력 소행" 반박 民正	조선일보 1986.05.16
	「仁川사태」 異變...与공세 野수세	조선일보 1986.05.17
	"仁川사태 民民鬪·民統聯이 주도"	동아일보 1986.05.19
	急進학생·과격在野 민중봉기 유도	동아일보 1986.05.19
	左傾과의 連繫고리 끊어라	경향신문 1986.05.19
	體制전복 「투쟁의 날」로 정해	경향신문 1986.05.19

번호	제목	출처
	與野 속셈다른 「場內 부분進入」	동아일보 1986.05.20
	民推協·仁川사태 심층분석 「政經文化」 6月號	경향신문 1986.05.21
	백91명 重輕傷	매일경제 1986.05.24
	「仁川사태」 民統聯관련 수사	동아일보 1986.05.24
	文益煥목사 拘束수감 集示法적용	조선일보 1986.05.24
	"民統聯서 仁川시위 주도"	조선일보 1986.05.24
	張琪杓씨 구속영장(요지)	조선일보 1986.05.25
	全州는 院外투쟁 종결편	경향신문 1986.05.29
	憲特6월國會서 구성합의	동아일보 1986.05.30
	新民全州대회 진통끝에 열려	동아일보 1986.05.31
	仁川사태 57명구속起訴 88명은 起訴猶豫로석방	동아일보 1986.05.31
	"護憲의지 굴복시켰다"	경향신문 1986.05.31
	新民 場外투쟁이 남긴것	조선일보 1986.06.01
	"별도 集会-시위"에 초비상	조선일보 1986.06.01
	"대회 무산되면 우리책임"在野圈 自制	동아일보 1986.06.02
	「仁川사태」 手配45명 특별검거령	동아일보 1986.06.02
	民正,盧총리 역공에"잘했다"	조선일보 1986.06.12
	「急進」 몸살...異常기류 캠퍼스	조선일보 1986.06.15
	拘束者13명 석방...週內 23명더	경향신문 1986.06.18
	學園소요 관련立件 올上半期8百13명	동아일보 1986.08.26
	自民·民民鬪 검찰수사 발표문 (요지)	조선일보 1986.08.31

번호	제목	출처
	"憲特·亞洲대회 방해企圖"	조선일보 1986.08.31
	"直選改憲대회 재개"	동아일보 1986.09.13
	國民 생존위협 容共논리	매일경제 1986.10.15
	「國是否定」放置할수 없다	경향신문 1986.10.15
	정치부記者 긴급放談 國基흔든 壇上의 容共發言 "어떻게 그럴수가..."	경향신문 1986.10.15
	左傾을 直視하자 (10) 野黨-急進의 連帶	경향신문 1986.10.28
	"民主化운동과 容共세력 구별해야"	조선일보 1986.11.04
	치안본부 民統聯 분석내용	동아일보 1986.11.13
	民統聯 油印物 집중조사	동아일보 1986.11.13
	民統聯조직 "단체20개 회원1만명 거느려"	조선일보 1986.11.13
	총돌없이 끝난 「새벽搜索」	조선일보 1986.11.13
	文益煥씨 抗訴 포기 징역3년 확정	조선일보 1986.11.13
	청중 1백만명 동원목표	경향신문 1986.11.20
	沮止와强行...緊張더해가는 「新民서울改憲대회」	동아일보 1986.11.22
	政局 「서울大會」 싸고 超緊張	경향신문 1986.11.24
	極烈化우려 場所불허	경향신문 1986.11.24
	新民대회장 변경 舊 서울高자리로	매일경제 1986.11.25
	政局 週末향해 초긴장	동아일보 1986.11.25
	新民서울大會-强行대沮止 숨가쁜 秒읽기	동아일보 1986.11.25
	改憲政局의 기로-新民서울대회	동아일보 1986.11.25
	"警察3만동원 「新民대회」 봉쇄"	조선일보 1986.11.26





번호	제목	출처
	大学街에 「新民대회」 壁報 잇달아	조선일보 1986.11.27
	改憲대회 봉쇄·强行비상 与野 각각 对国民성명	매일경제 1986.11.28
	"乱動주도 단체·個人 모두 嚴斷"	조선일보 1986.11.28
	"議會主義 포기……용납할수 없어 이번에 안막 으면 게릴라式 再發 위험"	조선일보 1986.11.28
	정치부記者 放談 서울大會와 개헌政局	경향신문 1986.11.28
	"霧散전후"속타는 政局…關心은 後遺症	경향신문 1986.11.29
	첫충돌 麻浦서…光化門은 「戰警의 거리」로 不發된 新民 서울大會 도큐멘터리	동아일보 1986.12.01
	경찰"무사히 넘겼다"들뜬 분위기	동아일보 1986.12.01
	警察 과잉連行…市民들 항의 빗발	동아일보 1986.12.01
	버스기다리던 市民 최루탄에 失明위기	동아일보 1986.12.01
	13-14일 9개都市서 개헌대회 新民,전면場外투쟁 선언	조선일보 1986.12.04
	"新民대회는 사회질서 파괴 취소 않으면 강력저지" 民正	조선일보 1986.12.04
	5.3 仁川사태	조선일보 1986.12.27
	親北傀 反美공산혁명 음모사건 檢察발표요지	동아일보 1987.02.24
	國法거부 體制전복 民衆革命기도	경향신문 1987.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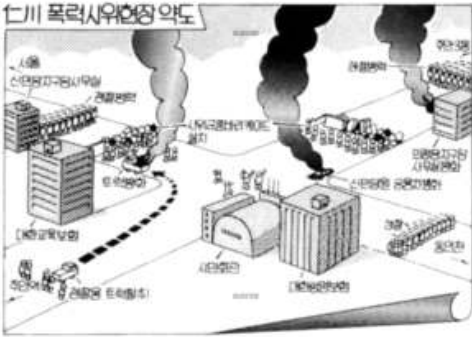


■ 부록 7: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신문 사진 자료
 (저작권료 문제 해결 전까지 공개 금지)



번호	제목	출처
1		공개 금지
2		공개 금지
3		공개 금지

번호	제목	출처
		
4		공개 금지
5		공개 금지

번호	제목	출처
	 <p data-bbox="229 678 695 835">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의 모습. 사진은 5월 3일 오후 2시경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 모습이다. 참가자들은 연필, 돌, 그리고 불을 던지며 항쟁을 벌였다. </p>	
6	 <p data-bbox="229 1574 695 1615"> 연좌농성 약 5만명으로 추산되는 시민 군중이 연좌농성 및 제1야당계파원, 신민당원들이 신민당대회장 앞의 '한민관' 가운데 일부시위대가 일제일기 연좌농성을 벌여왔다. </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공개 금지</p>
7	 <p data-bbox="229 1648 272 1877"> 북민 新民車 인천시 구도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북민 新民車가 불에 타서 완전히 소실된 모습이다. </p>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공개 금지</p>
8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공개 금지</p>

번호	제목	출처
		
9		
10		
11		
12		

번호	제목	출처
		
13	 <p>○7일 오후 靑島 敬愛중학교 仁川 京畿시부경청 태위에 연상한 과격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도로주변 가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있다. 일부는 손에 지옥을 들고 있다. <4단-韓東報기자></p>	
14	 <p>격렬示威 잔해 인천의 폭력시위가 일단 진압된후 거리에는 돌과 각종 폐품이 가워히얹여 시위의 격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p>	

번호	제목	출처
15	 <p data-bbox="252 696 687 719">○CJ의 權利 시위 지난 3일의 단행시에 일부 직원 시위시절의 사진이다. 시위대가 위해 공문장(장)을 들고 행진했다.</p>	
16	 <p data-bbox="284 1621 663 1727">개헌헌관시 마산대회가 끝난뒤 新民黨의 李翰雨총재 金泳三고문장 남지도부가 朴正희 氏에 對해 謝罪聲明을 하고있고 그뒤에는 많은 市民들이 參加하고 있다. <萬山=일시취재단></p>	
17		

번호	제목	출처
		
18	 <p data-bbox="240 1111 679 1167"> 改憲協商에 불안감을느낀 在野는 新民黨을 의세의존적, 보수대연합세력으로 몰아치며 「反新民黨 투쟁」을위협, 야당을 인질로 삼기 시작했다. (사진은 5·3 仁川사태) </p>	
19		
20		